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960년대 제주 개척농가의 공간구성과
커뮤니티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부 기 홍

1960년대 제주 개척농가의 공간구성과 커뮤니티 특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용 규

부 기 홍

이 논문을 건축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6월

부기홍의 건축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金 泰 一 
위 원 張 明 訓 
위 원 李 容 圭 

제주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Jeju Pioneering Farm
in the 1960s.

Ki-Hong Boo
(Supervised by professor Yong-Kyu Y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chitecture

2022.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표목차	iv
그림 목차	v
국문 초록	vi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3. 용어의 정의	
1) 제주 중산간지역	8
2) 개척농가	8
3) 개인농장	8
4) 테시폰식 건축물	9
5) 입주자	10
6) 커뮤니티	10

II. 이론적 고찰

1. 제주 중산간지역의 복구	
1) 제주의 중산간지역과 복귀사업	11
2) 제주 개척농가의 형성과정	13
2. 제주 중산간지역과 지속가능한 성장	
1)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	17
2) 공동체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21
3. 선행연구 고찰	23

Ⅲ. 제주 개척농가 공간구성 특성

1. 개척농가의 단지 특성

- 1)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 28
- 2)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분포 32
- 3) 1967년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 34

2. 개인농장의 배치 특성

- 1)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 37
- 2) 개인농장의 진입유형 41

3. 소결 45

Ⅳ. 제주 개척농가의 입주자 특성

1. 개척농가 입주자 일반 사항

- 1) 입주자의 출신지 47
- 2) 입주자의 종교 50

2. 개척농가 입주자 특성

- 1) 금악 개척농가 51
- 2) 월평 개척농가 54

3. 소결 56

Ⅴ. 제주 개척농가의 공동체 특성

1. 금악 개척농가의 생활적 요소

- 1) 도로의 형성과정과 교통 59
- 2) 용수의 확보방안 62
- 3) 에너지원과 통신체계 64

2. 금악 개척농가의 공동체 특성

- 1) 입주자의 특성 68
- 2)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 73

3. 입주자 특성과 개인농장 공간특성의 관계 76

4. 소결	81
VI. 결론	85
참고 문헌	88
Abstract	90
부록	92

표 목 차

<표 1-1> 개척농가 항공사진	4
<표 1-2> 연구의 대상 및 연구의 방법	5
<표 2-1>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의 교육관련 통계	15
<표 2-2> 지역개발 모델 분류	17
<표 2-3> 주류 경제와 공동체 경제의 특성 비교	21
<표 2-4> 선행연구의 흐름	27
<표 3-1>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	30
<표 3-2> 1967년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분포	35
<표 3-3> 1967년 개척농가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	37
<표 3-4> 필지 획지유형 사례	39
<표 3-5> 필지 진입유형 사례	43
<표 5-1> 금악 개척농가의 생활요소	66
<표 5-2>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의 특성	71
<표 5-3> 입주자 특성과 개인농장 공간특성의 관계	78

그림 목 차

<그림 1-1> 제주 개척농가의 위치	3
<그림 1-2> 금악 개척농가 사진 인터뷰	6
<그림 1-3> 금악 개척농가 워크숍	6
<그림 1-4> 연구의 흐름	7
<그림 1-5> ‘텍스폰’ 건축물대장	9
<그림 2-1> 1960년대 제주개발계획 관련 신문 삽화	12
<그림 2-2> 선홍 개척농가의 테시폰식 건축물	14
<그림 2-3> 1970년 당시 촬영한 금악 개척농가	16
<그림 3-1>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어승생 용수관 구상도	31
<그림 3-2> 어승생 용수개발사업 현황도	31
<그림 3-3> 필지 획지 유형화 과정	38
<그림 3-4> 개척농가 필지획지 유형 분포	40
<그림 3-5> 개인농장 진입 유형화 과정	42
<그림 3-6> 개척농가 집입 유형 분포	44
<그림 4-1>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분포	49
<그림 4-2>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위치	49
<그림 4-3> 월평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위치	50
<그림 4-4> 입주자의 가톨릭 신자 분포	51
<그림 4-5> 금악 개척농가의 커뮤니티 특성	53
<그림 4-6> 월평 개척농가의 커뮤니티 특성	55
<그림 5-1> 이시돌 협회 도로 포장 건의사항 검토 문건	61
<그림 5-2> 어승생 저수지 연결공사 당시 사진	63
<그림 5-3> 이시돌협회 전화 연결 건의사항 검토 문건	65
<그림 5-4> 금악 개척농가 인터뷰 및 워크숍 결과물	69
<그림 5-5> 금악 개척농가의 하위 커뮤니티	8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주 개척농가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척농가는 성 이시돌 목장과 맥그린치 신부를 중심으로 황폐화된 제주 중산간지역을 복구하고 제주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입주자의 고령화로 소실 위기에 처한 개척농가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밝혀지지 않은 개척농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과 개인농장의 분포 및 현황 등 단지특성, 필지 획지 유형과 진입 유형을 통한 배치 특성 등 공간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개척농가 입주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와 관찰 조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일반사항을 알 수 있었던 금악과 월평 개척농가를 대상으로 입주자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개척농가 중 최초로 계획되었고 핵심적인 기억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금악 개척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금악 개척농가의 생활적 요소와 공동체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입주자 특성과 개인농장 공간 특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척농가에서 배치와 단지계획에서 길을 중시하는 서구 근대적 공간구성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이후 제주적 특성에 의해 변용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출신지나 종교가 서로 다른 입주자가 모여 인위적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에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기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위치와 배치, 동번호 등 공간특성과 입주자 특성, 공동체 활동 등 공동체 특성을 통해 개척농가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증가로 새로운 커뮤니티의 등장과 기존 커뮤니티와의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커뮤니티의 공존을 위한 지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제주, 중산간지역, 개척농가, 공간특성, 입주자, 커뮤니티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의 취락들은 용천수를 통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초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물이 부족했던 중산간지역은 취락이 발달하지 못했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제주의 초지가 몽골식 목장으로 개발되어 이전까지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던 거주영역이 중산간지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중산간지역에서 나오는 용천수는 해안지역의 용천수에 비해 양이 적어 중산간지역의 취락의 규모는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들어 해안지역에 대한 왜구의 빈번한 침범과 인구증가로 인한 농토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중산간지역의 취락은 확대되게 된다. 중산간지역은 식수가 부족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넓게 분포하였었고 임산물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목장이 존재하였기에 자급자족 경제생활에 최적지였다(고관범, 2005).

1948년 일어난 제주 4·3은 제주 중산간지역 취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단독선거에 반대하며 중산간지역에서 항거하는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5km밖에 위치한 중산간지역에 금족령을 내리고 강경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정부가 시행한 금족령과 강경진압작전은 중산간지역의 파괴를 가져왔다. 중산간지역의 기존 마을이 대다수 파괴되었고 입주자들은 희생당하거나 마을을 떠나야했다. 그리고 1954년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파괴된 중산간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승만 정권에 이어 들어선 혁명정부는 ‘원주지 복귀 사업’을 통해 파괴된 옛 농토에 주택을 지어주고 생활비, 식량, 농지 등을 지원하였다(김호선·김태일, 2000). 이를 통해 일부 중산간마을은 복구되었으나 일부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이처럼 중산간지역의 도시구조가 파괴가 진행되던 1954년 한림에는 아일랜드 태생의 패트릭 제임슨 맥그린치 신부(P.J.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가 부임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직사, 가축은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던 맥그린치 신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가 축산업이 발달한 고향 아일랜드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중산간지역의 초지에 축산업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1961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버려진 초지에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하였다. 성 이시돌 목장은 제주도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성 이시돌 목장에는 제주도에 없던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입되었다. 테시폰식 건축물은 1960년 안식년을 맞아 아일랜드로 돌아갔던 맥그린치 신부가 발견하여 도입한 건축물로 시공이 빠르고 비숙련자도 지을 수 있으며 시공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돈사, 직원숙소, 창고 등 많은 건축물이 필요했던 성 이시돌 목장에 안성맞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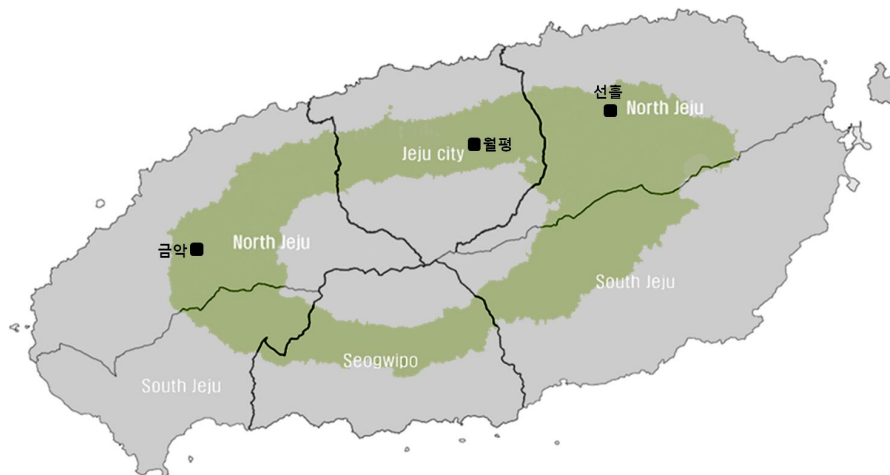
이처럼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한 맥그린치 신부는 멈추지 않고 중산간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제주시 월평동, 조천읍 선흘리에 제주 개척농가를 설립한다. 제주 개척농가는 직업을 제공해주는 성 이시돌 목장과 달리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시키고 각각의 개인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입주자들에게 수만평의 땅을 저리의 장기대출로 분양해주었으며, 입주자들에게 축산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주었고 돼지, 싸이로, 사료 등 축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었다. 또한, 성 이시돌 목장에 도입했던 테시폰식 건축물을 통해 주택과 축산업에 필요한 돈사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렇게 형성된 개척농가는 입주자들에게 축산업에 관한 교육과 경제지원을 함께 진행했다는 점, 산업과 주거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제주 중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구축을 모색한 사업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맥그린치 신부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주도하에 진행된 도시 복구라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추진한 '원주지 복귀 사업'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개척농가가 중산간지역의 도시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척농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했던 점을 통해 개척농가에 관한 연구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오늘날 제주 중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척농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2018년 맥그린치 신부가 노환으로 서거하는 등 1960년대 제주 개척농가에 관한 기억을 가진 핵심 증언자들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그렇기에 당시 기억을 채록하고 연구하는 것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언을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개척농가의 공간적 특성, 입주자 특성, 공동체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1960년대 제주 개척농가 실체를 밝히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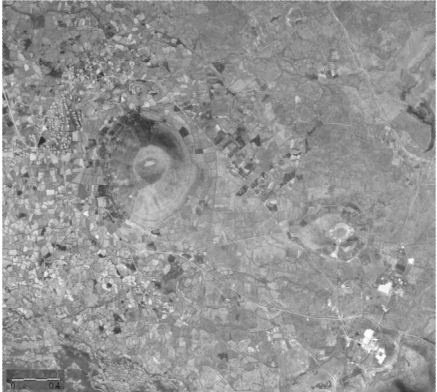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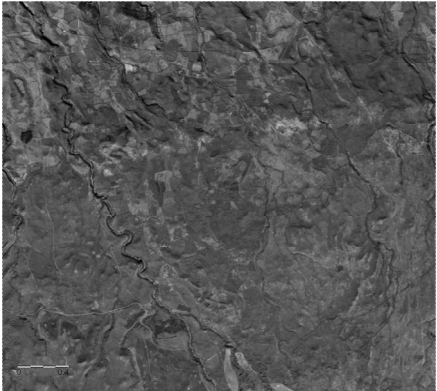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존재했던 개척농가(이하 금악 개척농가)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존재했던 개척농가(이하 선흘 개척농가), 그리고 제주시 월평동에 존재했던 개척농가(이하 월평 개척농가) 등 3곳의 개척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나아가 개척농가에 존재하던 테시폰식 건축물과 개척농가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입주자들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제주 개척농가의 위치

<표 1-1> 개척농가 항공사진

	1967년 항공사진	2021년 항공사진
금악 개척농가		
월평 개척농가		
선홀 개척농가		

금악 개척농가는 성 이시돌 목장 인근에 위치해 1960년대 당시의 커뮤니티 원형이 잘 남아있다. 이에 공간구성 특성, 입주자 특성,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월평 개척농가는 다수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당시를 기억하는 주요 입주자의 인터뷰가 가능해 공간구성 특성, 입주자 특성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선홀 개척농가는 다수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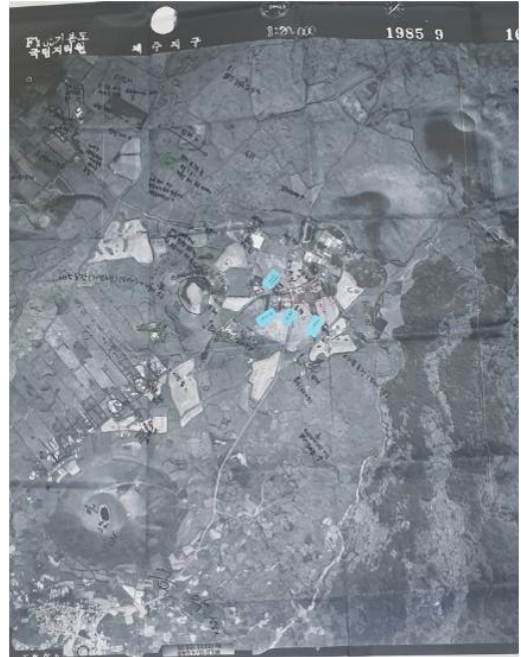
고 있었고 2차 이후의 입주자는 인터뷰가 가능했지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주요 입주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공간구성 특성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답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우선 1960년대 당시 문헌과 항공사진 및 영상 등 문헌 자료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남아있는 개척농가 공간구성의 물리적 현황을 확인하였다. 금악 개척농가는 인근 단지에 거주하였던 김○○님(52세)님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08월 19일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 박○○님(80세), 박○○님(82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준비한 사진자료를 제시하여 1차로 개별 인터뷰로 1960년대 금악 개척농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차로 예비조사를 통해 준비한 항공사진, 모형,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제시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F.G.I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 개척농가에 대한 1960년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기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05월까지였으며 인터뷰 대상은 금악 개척농가의 입주자 및 관계자였던 고○○님(75세), 박○○님(67세), 월평 개척농가의 2차 입주자인 김○○님(81세), 이○○님(67세), 선흘 개척농가에서는 2차 입주자 고○○(87세), 지○○님(64세)이었다.

<표 1-2> 연구의 대상 및 연구의 방법

	금악 개척농가			월평 개척농가			선흘 개척농가		
	공간 구성	입주 자	커뮤 니티	공간 구성	입주 자	커뮤 니티	공간 구성	입주 자	커뮤 니티
문헌조사	●	●	●	●	-	-	●	○	-
현장답사	●	○	-	●	○	-	●	-	-
인터뷰	●	●	●	●	●	○	○	-	-
워크숍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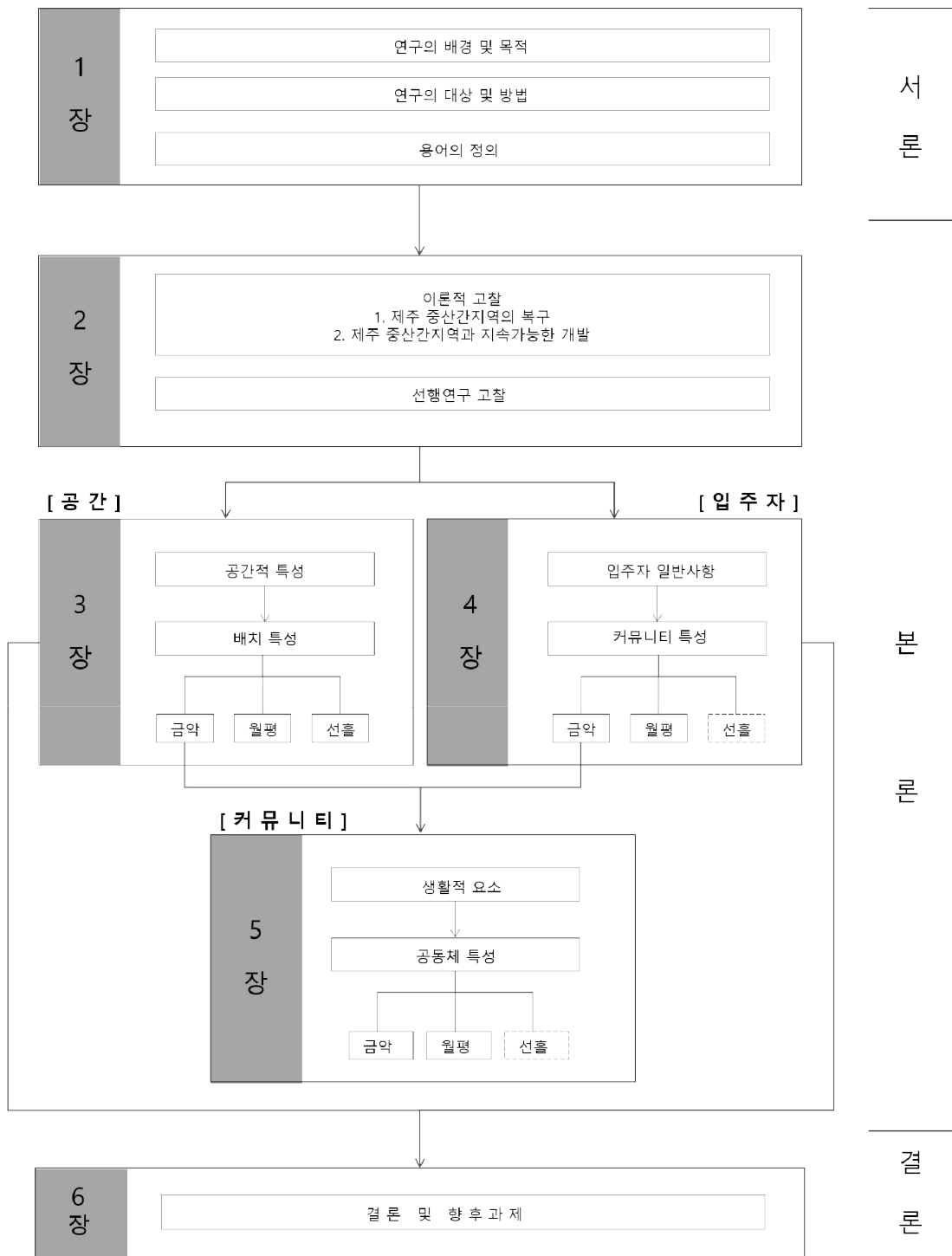
(●:직접 조사, ○:간접 조사, -:미조사)



<그림 1-2> 금악 개척농가 사전 인터뷰



<그림 1-3> 금악 개척농가 워크숍



<그림 1-4> 연구의 흐름

3. 용어의 정의

1) 제주 중산간지역

제주 중산간지역은 일반적으로 한라산 해발 200~600m 일대 산간지역을 의미한다(제주도, 2006). 그러나 관습적으로 산간지역을 관통하는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번) 안쪽 지역을 중산간지역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또한, 제주 4·3 당시에는 중산간지역 초토화작전을 시행하면서 제주 해안가에서 5km 안쪽 지역을 중산간지역으로 통칭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라산 해발 200~600m부근이면서 제주 4·3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지역을 모두 ‘중산간지역’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개척농가

제주 개척농가는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한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목장으로 한림읍 금악리, 제주시 월평동,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했다. 당시 금악 개척농가는 본인들의 커뮤니티를 ‘개척농가’라고 명칭하였으나, 월평 개척농가는 본인들의 커뮤니티를 ‘한라목장’ 혹은 ‘이시돌 개척농장’, 선흘 개척농가는 ‘이시돌부락’이라는 서로 다른 명칭으로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불렀다. 당시 개척농가의 설립을 주도했던 맥그린치 신부와 관계자들은 ‘개척농가’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월평·선흘 개척농가도 명칭은 달랐으나 본인들이 초지를 ‘개척’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악 개척농가에서 불렀던 ‘개척농가’로 3곳의 커뮤니티를 정의한다.

3) 개인농장

개척농가는 20동 내외의 단위세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척농가 안에 존재하던 단위세대는 개인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 되어 있었으며, 월평·선흘 개척농가 입주자들의 증언에서는 마땅한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악 개척농가에서 사용되던 개인농장이라는 명칭을 있던 월평·선흘 개척농가에도 통합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다.

4) 테시폰식 건축물

테시폰식 건축물은 1960년대 초반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제주도에 최초로 도입 되었으며, 현수아치가 연속된 파곡모양의 셸구조 건축물을 의미한다.¹⁾ 테시폰식 건축물은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어왔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명칭은 테쉬폰으로 테시폰식 건축물을 만든 건축구조 기술자 제임스 윌러가 특허에서 쓴 공식 명칭인 ‘테쉬폰 헛’에서 기안한다. 이후 테쉬폰이란 명칭은 지명, 언론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최호석, 2021)

그러나 1960년대 당시에는 테쉬폰이 아닌 ‘텍스폰’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테시폰식 건축물 건설에 관여하거나 거주하였던 관계자들의 증언에는 ‘텍스폰’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건축물대장에서 테쉬폰이 아닌 ‘텍스폰’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증언을 뒷받침해주었다. 현재 맥그린치 신부를 이어 성 이시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신부님도 ‘텍스폰’이라 인터뷰시 증언한 것을 보면 성 이시돌 목장과 개척농가 입주자 및 관계자들은 ‘텍스폰’으로 통일하여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최호석, 2021)

구분	면적	가격	비고	명칭	비고
19	80	(264.46)			61.
	462.46	(1528.80)	농기구및수믹스		61.
109	18	(59.50)		텍스폰	59.
계	2	(6.61)	과장실	슬라브	59.
	4	(13.22)	수위실		60.
한림읍공수제30번지 포	116	(42.581)	숙소	스택트	61.
포구리도	120	(59.50)	사무실		61.
1930.	126	(330.58)	비옥분사		61.
	130	(59.50)	숙소	텍스폰	61.

<그림 1-5> ‘텍스폰’ 건축물대장(출처 : (출처 : 박철수 강연 자료, 2021)

이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삼안식 주택, 테쉬폰 구법 건축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기 때문에 연구에 앞서 용어의 정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페르시아 지역의 크테시폰 유적에서 유래된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1) 이용규·양성필, 앞의 책, 제주학연구센터, 2021

테시폰식 건축물로 정리하고 연구를 한다.

5) 입주자

당시 개척농가에는 개인농장을 분양 받고 테시폰식 건축물에 직접 입주하여 생활하는 ‘입주자’와 분양을 받았으나 테시폰식 건축물에 입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축산업에 종사만 하면서 타지역에 위치한 본가로 출퇴근 하는 ‘분양자’, 분양자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에 입주하여 관리를 담당하는 ‘거주자’가 존재하였다. 또한, 개척농가 설립부터 입주한 ‘1차 입주자’와 추후 입주한 ‘2차 입주자’가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1960년대 입주와 정착 당시의 개척농가에 대한 기억을 공유한 개척농가의 구성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통칭하여 광의의 ‘입주자’로 정의한다.

6)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사회학부터 건축학에 이르기까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를 정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Hillery는 커뮤니티의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의 유대 등 세가지 구성요소를 커뮤니티 개념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며 커뮤니티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대를 느끼는 사회집단’으로 정의하였고, De Fluier는 커뮤니티를 ‘어느 특정지역에 함께 살면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규정하였다(이재광, 2011). 파크(Park)는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인간과 지역을 꼽았으며, 커뮤니티를 기능적 관점에서 “특정제도를 통해 묶여있는 인간들의 모임”으로 정의하였다(成慶, 2013).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어원이 “같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communitas”이며, “communitas”의 어원은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으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s”이라는 점(成慶, 2013)을 고려하여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힐러리의 정의인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대를 느끼는 사회집단”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제주 중산간지역의 복구

1) 제주의 중산간지역과 복귀사업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며 일어난 제주 4·3은 제주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무장대가 근거지로 삼은 제주 중산간지역은 그 여파가 더욱 컸다. 정부군은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5km 밖에 있는 중산간지역에 금족령을 내렸다. 중산간지역에 시행된 금족령은 존재하고 있던 전통적인 취락의 파괴를 가져왔고, 그 결과 ‘잃어버린 마을’로 통칭되는 취락이 생겨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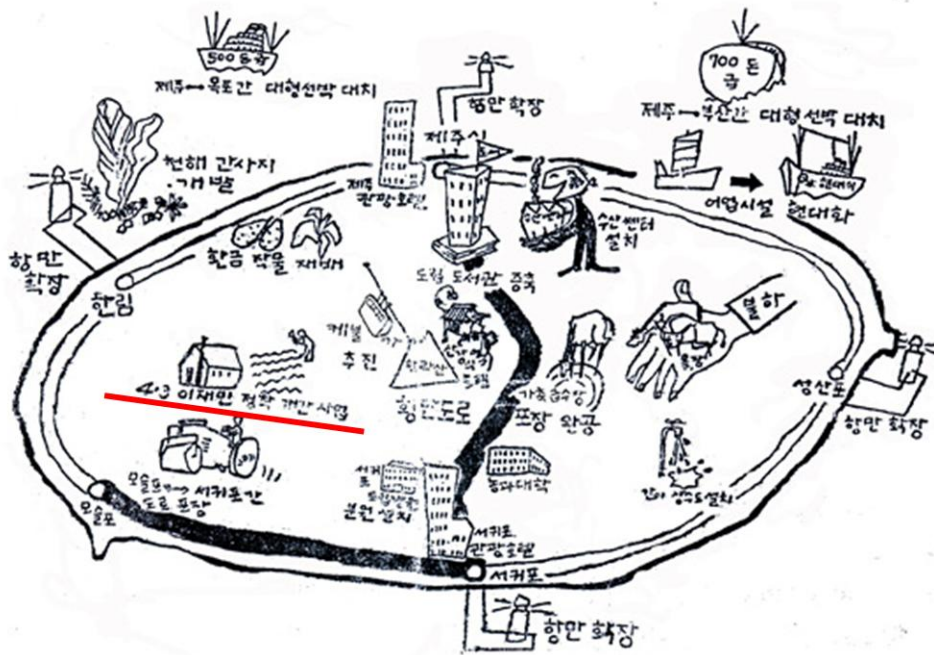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도 제주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개전 3일만에 북한군에 의해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임시수도가 부산까지 옮겨질 정도로 전쟁 초반 남한의 전황은 좋지 않았다. 당시 남한의 남은 영토는 낙동강 방어선 안쪽에 위치한 경상도 일부와 제주도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덜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제주도에는 제주향, 성산향, 한림향을 통해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와 피난생활을 시작하였다.

제주 4·3으로 인한 파괴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유입으로 인해 제주도는 많은 주택의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제주도가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난민귀농정착사업’이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난민주택’으로 칭해진 주택이 제공되었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2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이지만 돌담으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하면서 각 세대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었다(김호선·김태일, 2000).

6·25전쟁이 끝난 뒤,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UNKRA(United Natio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의 원조를 받아 전국에 후생주택(재건축주택) 혹은 UNCRA주택으로 불린 복구주택을 건설하였다. 당시 제주도에도 피난민

이 물려들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후생주택이 건설되었다. 제주도의 후생주택은 흙을 구워 만든 블록으로 만든 조적조 구조를 갖춘 9평과 18평 2종류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을 거쳐 욕실로 들어가는 서구식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양 후 기존 제주도의 주택처럼 화장실의 공간이 화장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집권한 혁명정부는 제주 4·3으로 파괴된 제주 중산간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원주지 복귀 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지원내용은 주택, 개간농지, 가축, 식량, 농사자금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도민의 소득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건설된 복구주택은 외주에 제주의 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목구조의 트러스에 합석지붕이었으며, 내부공간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이 놓인 기본적인 제주 전통 평면형식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김호선·김태일, 2000).



<그림 2-1> 1960년대 제주개발계획 관련 신문 삽화. 제주 4·3 이재민 정착 개간사업이 표기되어있다. (출처 : 1963년 제주신보)

2) 제주 개척농가의 형성과정

제주 개척농가는 황폐된 제주 중산간의 유휴지를 활용해 제주도민들의 지속가능한 경제 자립을 도모했던 사업이었다. 1961년 성 이시돌 목장과 이시돌 산업농촌개발협회(I.D.A)을 설립하여 도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던 형태로 경제적 자립을 도왔던 그는 나아가 입주자를 모집하여 직접 개인목장을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그 결과 1963년 금악·월평 개척농가가 설립되었고 1964년 선홍 개척농가가 설립되게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강한문(당시 성 이시돌 목장 서무계장)의 글을 고찰하였다.

그의 구상을 실천하는 데에는 1963년부터 1967년 까지 5년 동안(2년의 연장을 통해 1969년 6월까지 지원받았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 옥수수 원조 PL480 제2관(제주사료사업협정)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63년 PL480이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그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원조를 유치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322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PL480의 옥수수 판매 자금과 일부 원조를 이용해 제주도 중산간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제주시 월평동, 조천읍 선홍리의 토지 800여 ha를 매입 개간하고 100여 가구를 모집하였다. 개척 농가 모집 조건은 가구당 약 3만 평씩 땅을 30년 최장기 저금리(연 3.5%이자, 당시 보통예금 대출이자 40% 내외)상환이었다. 또한, 테시폰식 건축물로 된 18평의 주거동과 20평의 창고동, 그리고 블록으로 지어진 6평의 비육돈사와 20마리의 돼지가 함께 분양되었다.(양영철, 2016). 또한 ‘배합 사료 공장’을 설립하고 여기서 생산된 사료는 개척농가에 저렴하게 공급되었다. 당시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서무 계장이었던 강한문은 개척농가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강한문, 1969).

“이 사업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보면 I.D.A 중앙실습농장에서 일정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전형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계약케 하여 소정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개척농가회원의 경우를 보면 주택 18평, 창고 20평, 돈사 4평, 분뇨탱크, 싸이로, 울타리시설 및 토지 10정보(1정보는 3000평)를 신용대부하며 사료, 자돈, 비료, 농양, 농자, 면양 등을 현물융자 하여 주고 트랙터를 배치 개간을 하여 준다. 토지 10정보는 주식공물 1정보, 사료작물 3정보, 목야지 6정보로

구분 경영케 하며 목야지는 목야개량을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시설물 및 토지는 연 3부5리 이자로 10년간 연부상환하며 현물용자는 월1부리로 1년 상환으로 되어 있다. 상환이 완료되면 I.D.A는 즉시 회원명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농가 10호 이상으로 1개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개척농가 이다. 그 외 비육돈농가회원으로서 도내 일반농가 중 희망농가로 하여금 회원자격을 취득케 하여 개척농가와 동일한 조건과 상환방법을 적용, 돈사 4평과 분뇨탱크를 시설하여 주고 자돈 20두를 대부하여 비육시킴으로써 농가 경제 구조 개선을 원조한다는 내용이다.”

강한문의 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척농가에는 테시폰식 건축물을 통해 18평의 주택과 20평의 창고가 보급되었다. 테시폰식 건축물은 아일랜드 구조 기술가 제임스 윌러 (1884-1968)에 의해 고안된 건축물로 현수아치가 연속된 파곡모양의 셸구조 건축을 말하며, 현수아치의 형틀 비계 위에 거푸집을 설치 후 다시 시멘트 모르타를 수차례 입혀 자연스러운 처짐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1960년 7년마다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을 맞아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가 14개월을 지낸 맥그린치 신부는 그 곳에서 테시폰식 건축물을 경험하였으며, 이때 테시폰식 건축물의 견고함과 빠른 공기, 비숙련자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시공성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테시폰식 건축물은 당시 제주도에 귀한 재료였던 목재를 아낄 수 있는 건축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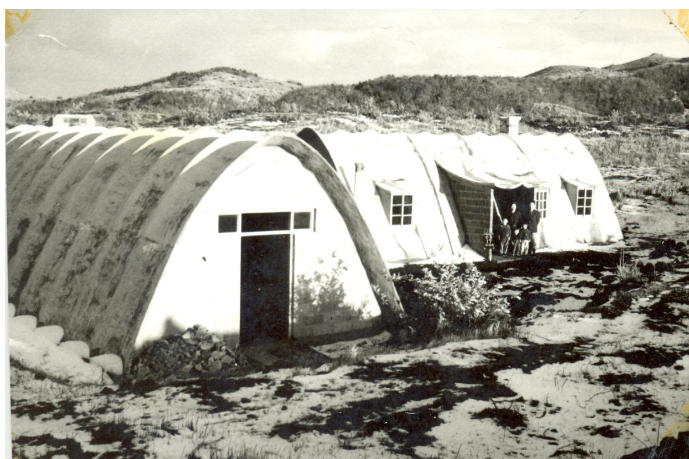


그림2-2 선홍 개척농가의 테시폰식 건축물
(출처 : (재)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테시폰식 건축물의 장점은 당시 맥그린치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 한 후 성 이시돌 목장에 테시폰식 건축물을 도입하여 주거와 축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제주 개척농가를 설립하면서 개인농장마다 주택과 창고를 테시폰식 건축물로 보급하였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각지에 보급된 테시폰식 건축물은 총 200여동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용규·양성필, 2021)

모집된 입주자는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에서 초지 조성 및 축산업에 대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당시 시행된 신규 교육은 이수자 829명 중 243명이 탈락한 586명만이 수료하였으며, 보수교육은 2,559명 중 56명이 탈락한 2,503명이 수료하였고, 장기실습은 이수자 243명 중 27명이 탈락한 216명이 수료하였다. 당시 탈락자들은 I.D.A에서 정한 전형에 불합격 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한 경우였다(강한문, 1969).

<표 2-1>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의 교육관련 통계 (출처 : 강한문, 1969)

교육 구분	회원별	교육 회수	참가 또는 계획 인원	수료 또는 수강 인원	비고
신규 교육	개척농가	18	295	245	
	기성농가 (비육돈)	17	531	341	
	계	35	829	586	
보수 교육	개척농가	26	684	684	
	기성농가 (비육돈)	100	1,875	1,810	
	계	126	2,559	2,503	
장기 실습	개척농가	7	97	85	
	기성농가 (비육돈)	7	146	131	
	계	14	243	216	

당시 실시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강한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강한문, 1969).

“중앙실습농장은 “I.D.A센터”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금악리 속칭 “정물:에 자리 잡고 있다. 중앙실습농장은 PL480 제2관제주사료사업을 뒷받침할 각종 종축의 확보와 가입회원들에게 분양할 우량자축(자돈 자양 기타 가축), 시범비육사업,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목야개량, 사료작물재배, 트랙터를 위시한 각종 차량 및 농기구의 정비관리, 그리고 가입 회원의 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회원실습에는 양돈, 면양, 소 등 가축의 사육관리를 비롯하여 목야개량, 사료작물재배, 싸이로시설관리, 트랙터 및 그 부속 농기구의 운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하여 농부로서의 열가견과 실력을 갖도록 충분한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처럼 개척농가는 입주자를 모집하여 대지와 테시폰식 건축물로 건설된 주택, 돈사, 창고 등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축산업에 관련된 교육이 함께 제공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주거와 산업이 결부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개척농가를 통해 설립 목적이던 제주도민의 지속가능한 경제자립을 꾀하게 된다(이용규·양성필, 2020).



<그림2-3> 1970년 당시 촬영한 금악 개척농가 (출처 : 제주도 제46호)

2. 제주 중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1)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

연구자 양영철에 따르면 지역개발 모델은 매우 다양하고 많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개발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과 지역개발의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는 점이라고 한다. 지역 개발의 주체가 지역 기업, 지역 자치단체 등 내생세력이 주체인지, 지역 밖의 기업, 사람 등 외생세력인지와 지역개발의 이익이 특정한 사람, 기업에 가는지, 아니면 지역 내 커뮤니티로 가는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했다(표 2-2).

제1모델 향리적 지역개발 모델은 내생세력이 개발을 주도하지만 개발이익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쏠리는 모델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제2모델 내생적 지역개발 모델은 내생세력이 개발을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이 지역 내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케이스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제3모델 착취적 지역개발 모델은 외생세력이 주도하고 개발이익도 특정한 계층에게만 쏠리는 가장 좋지 않은 모델이다. 제3모델의 경우 지역에 환경파괴, 지하자원 고갈 등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제4모델 은혜적 지역개발 모델은 외생세력이 주도하지만 개발이익은 지역 내 커뮤니티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델이다.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이 어떠한 모델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외부인인지, 개발의 주체가 맥그린치 신부 혼자인지, 개발의 이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 태생이지만

<표 2-2> 지역개발 모델 분류 (출처 : 양영철, 2016)

	특정한 계층에게	지역 내 커뮤니티에게
내생세력	제1모델 (향리적 지역개발 모델)	제2모델 (내생적 지역개발 모델)
외생세력	제3모델 (착취적 지역개발 모델)	제4모델 (은혜적 지역개발 모델)

20대에 한림 본당에 부임한 이후 60여년을 제주도와 한림지역에 살아온 인물이기에 외부인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우리가 따른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가 개발을 주도하긴 했지만 이시돌농촌개발협회로 명명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켰기 때문에 개발의 주체가 맥그린치 신부 혼자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개발의 이익은 맥그린치 신부나 맥그린치 신부가 속해있던 선교회가 아닌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로 향하고 있었다. 특히, 복지의원, 요양원, 젊음의 집 등 다수의 사회환원 사업에 지역개발이익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봤을 때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은 ‘개발주체는 외국인이나 지역주민화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순기능이 많은 제2모델과 제4모델이 섞인 모델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은 지역개발의 이익을 지역 내 커뮤니티로 순환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개발을 할 때 지역자원을 활발히 활용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개발의 주산업으로 축산업을 선택했다. 당시 제주도에는 원간섭기 이후 목장이 형성되었고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제주산업 중 가장 중심 산업 중 하나였고, 그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축산업은 익숙한 업종이었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가 개발한 중산간지역에는 버려진 유휴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맥그린치 신부는 축산업으로 지역개발을 시행했다.

맥그린치 신부는 언급한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도 지역자원을 활용하였다. 물적 자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면서 인적 자원을 외부 인적 자원으로 사용한다면 옛날에는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원주민’이라는 칭호로 골동품 취급을 당하는 일명 ‘하와이형 개발’로 전락하게 된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지역개발을 피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다. 물질, 밭일 등을 통해 타지역 여성들에 비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던 제주의 여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림수직을 운영하였으며, 아일랜드에서 수녀를 초청하여 교육장을 만들어 지역 내 인적자원을 단순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로 육성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축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개발에 관한 자금운영의 자주성을 중요시했다. 자금은 내

부조직에서 조달하는 내부자금과 외부에서 조달하는 외부자금이 있었는데, 내부자금의 조달은 '계'라 불리는 비공식적 상호부조를 공식적 상호부조인 신용협동조합으로 탈바꿈시켜 진행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돈도 없고 담보도 없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원을 지원해주고 양돈협업농가를 구성하여 돼지를 40kg까지 키우면 구입을 해주어서 자금순환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PL480이라는 외부자금을 대거 조달하였는데 이 외부자금들의 성격은 장기저금리 상환이거나 무상 원조였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상환의 압박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맥그린치 모델의 지역개발 자금운영은 매우 자주성이 컸으며, 그 덕분에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들도 그들이 어렵게 번 돈이 고리대금업자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양영철, 2016).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맥그린치 신부는 입도 초기 주민들에게 “동냥질하기 위해서만 허리를 굽히지 말고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라고 말했으며,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열매를 나눌 자격도 없다고 늘 강조했다. 그리고 진행한 지역개발사업인 가축은행, 한림수직, 성 이시돌 목장, 개척농가에 모두 지역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켰다. 또한, 개발의 과정에서 생기는 결정의 과정에도 맥그린치 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혹은 입주자들을 참여시켜 상향식 결정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충분히 본인이 주도하여 결정과정을 이끌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격려자와 후원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맥그린치 신부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신부의 신분으로 가톨릭계에 속한 입장이었지만, 개발과정에서 그에 함몰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가 진행한 지역개발사업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종교 신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이는 맥그린치 신부 본인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개발을 항상 조합, 공동체의 형태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어 위험도를 낮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지역주민과 조합원 간에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셋째, 지원이 간편하고 신속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에서는 4H와 가축은행, 한림신탁, 한림수직, 양돈협업농가, 협동조합, 호스피스병동 등 총 6개의 공동체가 존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의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갔다.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은 “개발의 이익은 주민과 지역사회로!”라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목장의 이익을 가지고 일해야 해요, 비영리단체니까. 일반회사는 주주들한테 이익이 나야 배당금 주는데 우리는 목장의 이익을 첫째는 농촌에서 일자리 만들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위해 자선사업하는거죠. (중략) 성 이시들의 모든 것은 외국사람이나 천주교에는 소유권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땅의 사람들 위해서 만들었죠(허영선, 2009).

이를 통해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수직에서만 1,300명을 고용하였으며, 마을공동목장의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었다.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맥그린치 신부는 물을 얻기 위해 18km 떨어진 물을 끌어오는 자체 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축산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판매하기 위해 일본과 홍콩으로 수출로를 자체적으로 개척하였다. 그리고 사료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한림항 부근에 성 이시들 사료공장을 만들고 PL480을 통해 들어온 원조 옥수수를 가공하여 사료를 자체 생산하여 목장에 공급하였다. 이처럼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모델을 창조하여 지역개발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맥그린치 지역개발 모델의 운영철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진행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역 내 커뮤니티로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립을 꾀하고 나아가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였다.(양영철, 2016)

2) 공동체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 영역은 시장경제와 국가경제, 호혜경제로 구분되는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경제와 호혜경제는 시장경제 아래로 포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 협동 경제, 제3섹터 경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김상준, 2008). 새로운 경제들은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지만 모두 시장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경제를 모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로 고려한다면, 시장경제가 아닌 다양한 경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황진태, 2012; 최영진, 2010). 대안 경제의 구체적인 형태는 공동체 경의 모습을 보이며, 시장경제와 다양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제는 성장을 위한 경쟁을 지향하고 대규모의 크기로 민간의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수출을 바탕으로 한 단기적 반환 가치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동체 경제는 활기와 협동을 지향하며 소규모의 크기로 다각화된 공동체의 주도아래공동체와 지역시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투자 가치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표 2-3). 한동안 공동체 경제는 낙후된 전통으로 인식되었으나, 전통적인 규범과 제도, 상호부조 문화의 가치 등 공동체 경제의 가치가 선진국에서도 재인식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유재 회복과 창조적 공유경제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Gibson-Graham, 2006).

<표 2-3> 주류 경제와 공동체 경제의 특성 비교 (출처 : 권상철, 2015)

주류 경제; 시장경제	대안 경제; 공동체 경제
성장 지향, 경쟁	활기 지향, 협동
민간, 수출 지향, 단기적 반환 가치	공동체·지역시장 지향, 장기 투자 가치
잉여의 사적 전유와 배분, 비윤리적	잉여의 공동 전유와 배분, 윤리적
전문화된, 관리되는	다각화된, 공동체 주도
대규모	소규모
노동의 공간분화 참여	지역 자립적인
비문화적, 사회적으로 배태되지 않은	문화적으로 독특, 사회적으로 배태된
비지역 소유, 비공간/세계	지역 소유, 장소 귀속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의 상호부조와 관리 규범들은 근대에 들어서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형태인 협동조합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특정의 문제를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어느 곳이든 있을 때 생겨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생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소비협동조합에서 시작하여 신용협동조합, 농축산업,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그 수와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김성오 외, 2013).

이러한 협동조합의 형태는 맥그린치 신부가 부임한 한림과 성 이시돌 목장에 수도 등장한다. 한림본당에 부임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제주 토종 돼지를 개량 하기 위해 미군으로부터 돼지를 얻어 길렀으며, 1957년 지역 주민들에게 돼지를 나눠주고 기르게 하고 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암컷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다시 분양하는 가축은행사업을 시행한다. 뒤이어 양털에서 실을 뽑아 옷, 담요 등 면직물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하는 직조강습소를 설립하였고, 나아가 이를 작업할 수 있는 한림수직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가축은행사업을 통해 돼지가 늘어나자 금약의 버려진 초지를 개간하여 성 이시돌 목장을 만들었고, 나아가 1962년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생산활동과 더불어 교육 및 사회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개척농가 사업을 시행하였고, 1980년대 초 전국적인 돼지 과다 생산으로 정부가 기업형 양돈 목장의 정리를 강제하자 직원들에게 돼지를 분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돼지는 한림지역 최고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제주도는 전국적인 양돈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양영철, 2016). 맥그린치 신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81년 이시돌 양로원을 개원하여 농촌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년 뒤 노인학교를 개교하였다. 1984년에는 3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개원하여 복지사업에 힘쓰게 된다(권상철, 2015).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은 한림과 주변 지역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며, 초기부터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라는 비영리기관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룩한 혁신적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Macaylay, 2001). 그리고 대지와 가축, 사료 등의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지역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일자리와 이익금은 지역민에게 돌아가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을 주었으며, 지역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게 후원해주었다(권상철, 2015). 이처럼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 공동체 경제를 형성한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 덕분에 한림지역과 중산간지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 앞서 제주 중산간지역 커뮤니티와 개척농가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 중 제주 개척농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척농가뿐만 아니라 개척농가에 존재했던 테시폰식 건축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개척농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개척농가의 형성과정 및 특성, 시범단지, 개척단지의 형성과정 및 특성, 테시폰식 건축물의 도입 및 변용과정, 테시폰식 건축물의 특성과 생활상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1) 제주 중산간지역 커뮤니티

고관범(2005)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조건에 따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형성과정과 해발고도, 해안선 등 기준으로 한 지리적인 구분, 민속학, 생활사 면에서 구분한 인문 사회적 구분, 제주도 마을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중산간 마을의 입지 선정과 용수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어 중산간 마을을 동·서로 구분하여 입지 특징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산간 마을에 나타난 지역 차이를 하천, 지질, 토양, 용수 등 직접적 요인과 행정 단위, 제주도의 동·서 길이에 따른 영향, 동·서 지역간의 문화차이 등 간접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주 4·3 당시 중산간지역에 내려진 금족령은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김지수(2000)은 제주 4·3을 통해 변화를 겪었던 중산간 마을 중 동광리 '무등이왓'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 4·3을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연구방식을 통해 제주 4·3 이전과 당시, 이후 마을 공간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 4·3 이전 동광리의 중심지 마을이었던 ‘무등이왓’이 황폐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부혜진 외 2인(2016)은 중산간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제주의 허파’,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곳자왓 지대의 마을 공동목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중산간지역의 곳자왓 지대 중 청수리와 저지리의 마을 공동목장으로 하였으며, 청수리와 저지리 마을 공동목장의 형성과정과 변천 및 소멸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목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목장의 생활상과 특징을 연구하였다.

2) 개척농가의 형성과정 및 특성

이용규·양성필(2021)은 맥그린치 신부를 중심으로 설립된 성 이시돌 목장과 제주 개척농가 중 성 이시돌 목장과 맞닿아 있는 금악 개척농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의 형성과정을 규명하고 그 안에 존재했던 테시폰식 건축물을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 그 분포와 평면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입주자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의 커뮤니티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주거생활 문화에 대한 규명을 실시하였다.

또, 이용규·양성필(2021)은 제주 개척농가 내 테시폰식 건축물과 개인목장의 분포에 대해 연구하고 그 중 월평 개척농가를 중심으로 테시폰식 건축물의 배치 특성과 변천과정, 현존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월평 개척농가에 현존하는 테시폰식 건축물중 일부가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은 있으나 현재는 폐가로 전락하여 멸실의 위험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시범단지, 개척단지의 형성과정 및 특성

제주 중산간지역에 형성됐던 시범단지와 개척단지의 형성과정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있었다. 이용규·김태일(2021)은 중산간지역 복구를 위한 개척농가가 형성된 이후 I.D.A의 PL480 차관이 2년 연장되면서 제주도와 성 이시돌 목장의 협력 하에 ‘개척단지’ 사업이 추진된다. 개척단지에 앞서 광령, 성읍, 하례 등 3개 단지에 ‘시범단지’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 금악, 금덕, 선홍, 동광 등 5개 단지에 ‘개척단지’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범단지와 개척단지는 중산간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시범단지는 농

업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개척단지는 주민 이주를 통한 도시적 차원의 취락구조 개편까지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된 개척농가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었으며, 중산간 일대의 도로·용수로 사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범단지과 개척단지는 취락의 수복을 넘어 근대 제주 중산간의 활용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구축을 이상적 도시계획을 통해 실천적으로 모색했음을 확인하였다.

4) 테시폰식 건축물의 도입 및 변용과정

김태일·김호선(2000)은 제주지역 근대주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50년대 제주 4·3로 인해 벌어진 파괴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쟁의 참상을 피해 로 물려든 피난민으로 인해 제주도에는 주택난이 발생하였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은 정부나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으며, 난민주택, 후생주택, 제주 4·3 이재민 복귀 주택 등 다양한 복구주택이 보급된다. 같은 시기 관이 아닌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보급한 것이 테시폰식 주택의 다른 이름인 ‘삼안식 주택’이었다. 이와 같이 등장한 1950~60년대 제주지역 근대주택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했던 상황이었기에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철수(2014)는 서울 수유리에서 시도되었던 수유리 시험주택 B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의 팽창으로 인해 생겨난 주택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다양한 시험주택을 테스트하였고 그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수유리 시험주택 B형이었다. 연구는 수유리 시험주택 B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행하고 제주도 성 이시돌 목장에 존재했던 테시폰식 건축물을 고찰하여 두 건축물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호석(2021)은 금악 개척농가 24호에 존재했던 ‘2중 외피 테시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되었던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하고 배치·평면·입면·단면 등 물리적 특성과 시공과정 및 기술적 특성 등 구조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의 입주자를 인터뷰하여 변용과정과 주거

생활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진 단일 외피 테시폰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개척농가의 일원들이 기술적 개량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테시폰식 건축물의 특성과 생활상

이용규·최호석(2021)은 앞서 보고된 2중 외피 테시폰의 내용 중 내부공간의 변화와 주거생활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의 연구에서 진행된 내부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부공간을 다이어그램화 하여 2중 외피 테시폰의 주거생활의 변화과정과 실내 거주환경의 특징을 밝혀냈다.

이용규(2022)는 연구자는 나아가 제주도에 보급된 테시폰식 건축물 중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을 선별하여 분포특성을 연구하였다. 더불어 성 이시돌 목장과 제주 개척농가 등의 테시폰식 건축물의 배치특성을 연구하였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을 병렬형, 단독형, 연립형, 2중 외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제주 중산간지역의 커뮤니티와 테시폰식 건축물, 개척농가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테시폰식 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던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에 대한 연구와 제주도의에서 진행된 테시폰식 건축물과의 비교연구도 진행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테시폰식 건축물에 관한 선행연구는 배치특성과 도입과정도 선행연구까지고 진행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가 테시폰식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 개척농가, 특히 선홍·월평 개척농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척농가와 테시폰식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입주자들의 생활상과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도 앞의 내용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된 테시폰식 건축물만이 아닌 공간적인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제주 개척농가의 입주자들의 특성과 커뮤니티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월평·선홍 개척농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표 2-4> 선행연구의 흐름

선행연구 주제	저자 및 발표연도	선행연구 내용
중산간지역 커뮤니티	고관범(2005)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조건을 연구하여 지역적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연구
	김지수(2000)	제주 4·3으로 인해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과정을 동광리 ‘무등이왓’을 통해 연구
	부혜진 외 2인(2016)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곳자왓 지대에 위치한 청수리와 저지리 마을 공동목장의 형성, 변천과정과 생활상을 연구
개척농가의 형성과정 및 특성	이용규·양성필(2021)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의 형성 과정과 테시폰식 건축물의 특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연구
	이용규·양성필(2021)	제주 개척농가 중 하나인 월평 개척농가의 배치 특성과 테시폰식 건축물의 변천과정, 현황을 연구
시범·개척 단지의 형성과정 및 특성	이용규·김태일(2021)	1960~70년대 제주 중산간 개발 사업이었던 개척 단지의 형성과정과 선정기준, 위치, 특성을 연구
테시폰식 건축물의 도입 및 변용과정	김태일·김호선(2000)	1950~60년대 등장한 제주도의 근대건축을 살펴보고 그 중 하나로 ‘삼인식 주택’에 관한 연구
	박철수(2014)	서울 수유리에 테시폰식 건축물로 존재했던 대한주택공사 시험주택 B형을 연구하고 성 이시돌 목장의 테시폰식 건축물과 비교연구
	최호석(2021)	2중 외피 테시폰을 최초로 발굴하고 시공과정 및 물리적·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 입주자 인터뷰를 통해 주생활을 연구
테시폰식 건축물의 특성과 생활상	이용규·최호석(2021)	앞서 연구된 2중 외피 테시폰의 연구 내용 중 내부공간의 변화와 주생활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연구
	이용규(2022)	제주도에 보급된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의 분포와 배치특성, 유형의 종류에 관한 연구

Ⅲ. 제주 개척농가의 공간구성 특성

1. 개척농가의 단지 특성

1960년대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과 개척농가 내 개인목장과 테시폰식 건축물의 분포 등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대 당시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배치특성을 통해 개척농가가 가지고 있는 공간구성 특성을 밝히는 것을 본 장의 목적으로 하였다.

1)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

제주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고도, 1967년 간선도로, 1967년 계획 용수관로를 고찰하였다. 제주 개척농가는 행정구역상 산북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제주도 제주시와 북제주군²⁾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금악 개척농가는 북제주군 서부지역인 한림읍 금악리에, 월평 개척농가는 제주시 월평동에, 선흘 개척농가는 북제주군 동부지역인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금악 개척농가는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성 이시돌 목장과 맞닿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 개척농가의 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고도 약 300m근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월평 개척농가는 고도 약 370m 근방에, 선흘 개척농가는 고도 약 220m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3곳의 개척농가 모두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주 개척농가 일대가 제주 4·3 당시 내려졌던 금족령의 대상지였음을 확인하였다.

개척농가가 형성되어 있던 1967년 당시 주요 간선도로의 분포를 통해 개척농가와 간선도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금악 개척농가는 한림과 연결된 간선도로

2) 북제주군은 광복 후인 1946년부터 존재하였던 행정구역으로 제주 개척농가가 존재하던 1960년대 초반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6년 7월 1일 제주시에 통합되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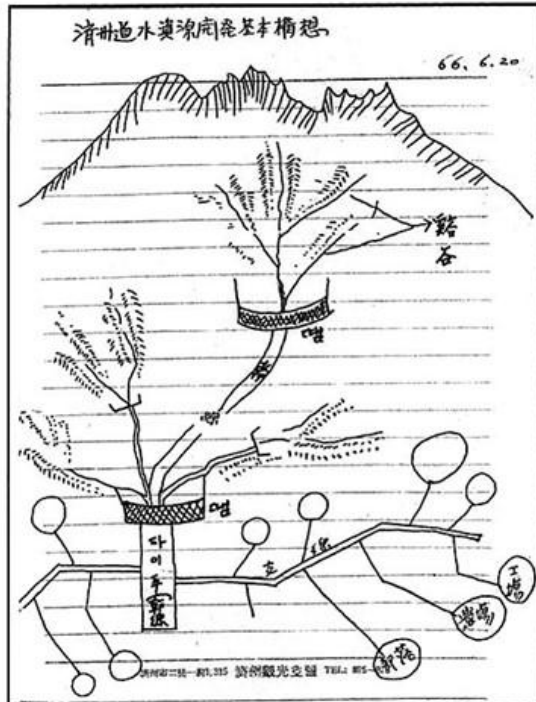
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주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선도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한림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림생활권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으며, 금악 개척농가 바로 맞닿아있는 맥그린치 신부의 주요 활동지 또한 한림본당이 있는 한림읍이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해주었다. 금악 개척농가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던 선홍 개척농가 또한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선홍 개척농가는 금악 개척농가와 같이 간선도로와의 접근 정도가 매우 가까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홍 개척농가 주변에 위치한 간선도로가 제주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봤을 때 선홍 개척농가는 행정구역상으로 속해있는 조천생활권은 물론이고 금악 개척농가에 비해 제주시 생활권과의 연관성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 추측되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금악·선홍 개척농가와 달리 주요 간선도로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월평 개척농가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되었다.

1967년 계획됐던 용수관 사업과 개척농가와의 관계성도 확인하였다. 인근에 위치하였는지도 확인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1967년 어승생에서 파생되는 수로를 건설하는 용수관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다.³⁾ 제주 중산간지역에는 항상 물이 부족하였기에 빗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물통에서 물을 길어와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의 주도로 계획된 용수관 사업에서 용수관이 지나도록 계획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용수관 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3곳의 개척농가는 모두 용수관로 계획지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척농가가 위치한 지역은 관에서도 용수를 공급해 줄 필요성을 느꼈을 정도로 입지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을 것을 추정해할 수 있었다. (표3-1)

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18), 『제주 상수도개발 60년사』, 제주도

<표 3-1> 개척농가의 지리적 특성

	지리적 특성
행정 구역	
고도	
1967년 간선도로	
1967년 계획 용수관로	



<그림 3-1>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어승생 용수관 구상도
 (출처 : 대한뉴스 제 786호)



<그림 3-2> 어승생 용수개발사업 현황도 (출처 : 상하수도본부)

2)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분포

1963년 형성된 개척농가는 그 안에 각각의 입주자가 관리하는 개인농장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었다. 개인농장에는 주거용·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었고 축산업에 필요한 대지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농장의 분포와 동호수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독이 가능한 1967년 항공사진을 1차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자 및 관계자 인터뷰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교차 검증하여 사상 최초로 제주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정확한 분포와 동번호를 밝혀낼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총 24세대의 개인농장이 존재하였다. 금악오름 동쪽에 위치한 맥그린치로라 불리는 개척농가 주요 도로인 금악북로를 따라 1호부터 14호까지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로 개인농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나머지 16~19호, 21~24호까지는 맥그린치로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배치 되어있었다. 이러한 분포로 인하여 뭉쳐있던 1~14호는 다른 개인농장에 비해 더욱 관계가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4호는 1963년 입주를 시작한 1~23호와 달리 가장 늦은 1973년에 입주한 개인농장이었다. 해당 개인농장은 맥그린치 신부의 권유에 따라 유일하게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을 시공하였으며 다른 개인농장에 비해 농장의 크기가 컸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20호는 금악 개척농가 구역이 아닌 금악 본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20호 입주자는 금악 본동 출신 입주자로 대지를 불하받지는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에 테시폰식 건축물만 분양받았으며, 개척농가가 아닌 금악 본동 커뮤니티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악 개척농가는 유일하게 동번호 부여 방식을 알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 1차 입주자였던 박○○님의 증언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이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원하는 개인농장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아 그게 뭐냐 하면 이 우리 개인농장도 이게 쪽 큰 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1호, 2호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좋은 땅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간게 아니라 시험 봤어요. 그래가선 1등이 어느 동고르면 2등이 또 고르고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예 그렇게 시험 본건 맞아요 허허”

당시 시험과목은 축산업에 관련된 것으로 아일랜드식 양돈법, 배합사료등이었다고 하며,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개인농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가장 빨리 분양되었다고 한다(표3-2).

월평 개척농가는 금악·선흥 개척농가와 다르게 도로를 따라 분포하지 않고 규칙성 없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월평 개척농가가 대표적인 주요 도로가 없고 많은 골목을 통해 통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평 개척농가 2차 입주자 김○○님⁴⁾에 증언에 따르면 금악·선흥 개척농가와 달리 근접하여 분포하지 않고 멀리 분포하고 있는 것은 분양 당시 대지 분할에 관여한 입주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요거 설계를 하거나 지을때는 요 강○○⁵⁾라는 사람이 거의 주도를 해가지고, 땅이 어느정도 있으면은 그 근방에 한 2만5천평이나 3만평을 그 영영 갈라줄 수 있는 데로 집을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거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 일주도로로 집이랑 요 도로추록 지어 넣고 남쪽으로 짹짹 갈라져서 지으면 안되느냐 내가 전에 뵈도 했는데, 그러면 거리가 너무 길쪽해서 관리하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이어나서, 나도 처음 입주를 처음 할 때는 할라고 생각했는데, 입주를 좀 나가 나이도 좀 머하고 집안도 양쪽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는 안할 때에 한번 하겠다란 사실상 집은 요런식으로 짓자 쪽해서 착착착해야 사람이 그래도 이웃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내가 해나긴 했어요 그 젊을때라도 했는데, 그러면 농장이 너무 멀면은 나쁜 점도 있다 이추록해서 이제 해도 그 강○○라는 사람이..

증언에 따르면 월평 본동 출신 입주자 강○○님이 분양과정에 깊게 관여하였으며, 강○○님의 의도에 따라 개인농장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월평 개척농가의 분포형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평 개척농가에는 테시폰식 건축물

4) 김○○님은 73년 입주한 2차 입주자이나 월평 출신으로 월평에서 거주하며 64년도 최초입주를 준비했었기에 64-70년대까지의 최초와 2차 입주자 구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5) 월평 개척농가 19호 입주자인 강○○님은 월평 본동 출신으로 월평 개척농가 분양 당시 월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분양에 깊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증언을 해준 20호 입주자 김○○님과 바로 맞붙어 있는 개인농장이었기에 절친한 사이였고, 이 때문에 김○○님은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반파된 것으로 확인된 6호가 존재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6호의 테시폰식 건축물은 건설 당시부터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입주예정자는 테시폰식 건축물을 보수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6호는 입주자가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었다고 한다(표3-2).⁶⁾

선홍 개척농가는 총 22세대의 개인농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와 마찬가지로 선홍 개척단지의 주요 도로로 남북을 지나는 중산간도로를 따라 1호~17호까지 순서대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18~20호는 알밤오름 남쪽에서 동서를 지나는 주요 도로인 선교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21~22호는 알밤오름 서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비교적 모여 있는 1~19호와 다르게 20~22호는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1호~17호까지는 정형화된 개인농장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8~22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선홍 개척농가의 개인농장 분포 방식은 금악 개척농가의 그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봤을 때 개인농장 분양 당시 금악 개척농가와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다(표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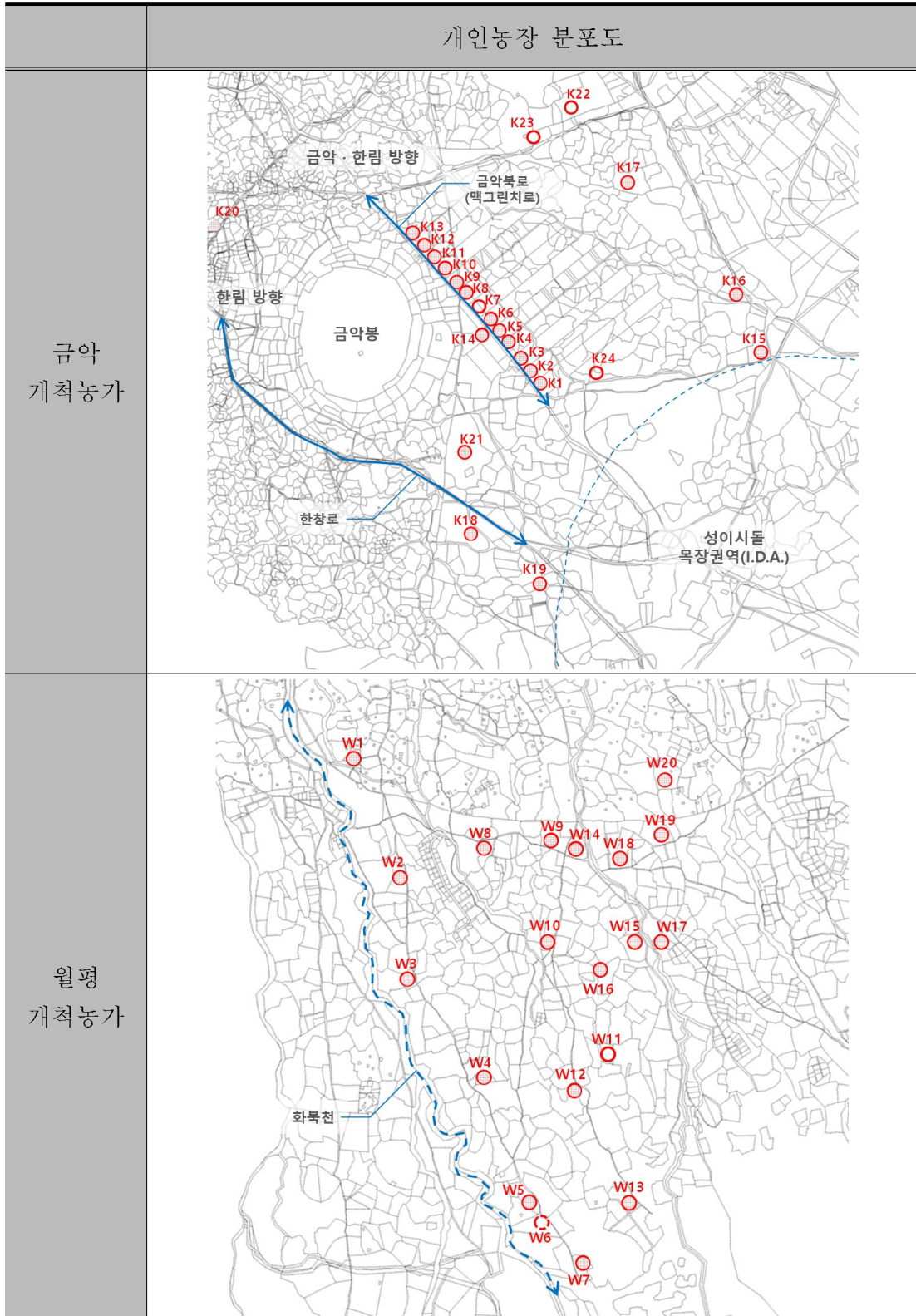
3) 1967년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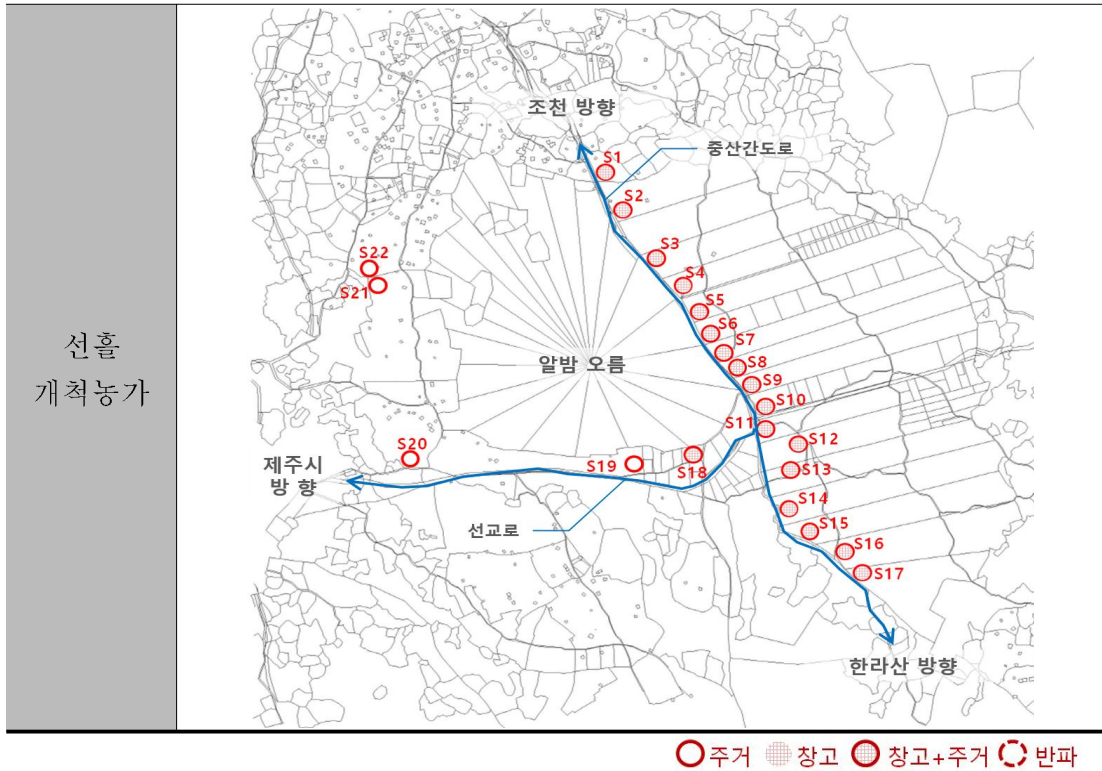
그동안 1960년대 개척농가에 존재하던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은 추정만 될 뿐 정확히 파악되지 못했다. 문헌에 따르면 제주도에 200여채의 테시폰식 건축물을 보급하였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 정확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남아 있는 판독이 가능한 항공사진 가장 오래된 1967년 당시 항공사진을 1차적으로 분석하고 입주자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현장답사를 통해 교차검증을 진행하여 최초로 정확한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금악 개척농가에는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23동,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20동 등 총 43동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월평 개척농가에는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20동,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18동 등 총 38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선홍 개척농가에는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22동,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18동 등 총 40동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1967년 제주 개척농가에는 총 121동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

6) 2차 입주자 이○○님은 부실시공으로 품질에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2차 입주자 김○○님은 6호의 반파과정을 증언하였다.

<표 3-2> 1967년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분포





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테시폰식 건축물의 개수를 확인했을 때 주거용과 창고용의 개수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은 확인된 개인농장과 같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은 그보다 숫자가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그러나 문헌고찰과 인터뷰에서는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과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함께 분양됐다는 내용은 있지만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만 분양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과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은 1963년 입주 당시에는 모두 분양되었으나 1967년 당시에는 일부 사라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이 돈사 등으로 변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필요한 입주자가 용도를 변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의 내구성이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에 비해 떨어졌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표3-3).

7) 금악 개척농가는 총 24세대의 개인농장이 존재하였지만 20호가 개척농가가 아닌 금악 본동에 위치하였으며, 대지를 분양받지 않은 특이케이스로 존재하였기에 제외한다.

<표 3-3> 1967년 개척농가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	창고용 테시폰식 건축물	합 계
금악 개척농가	23	20	43
월평 개척농가	20	18	38
선홍 개척농가	22	18	40
합 계	65	56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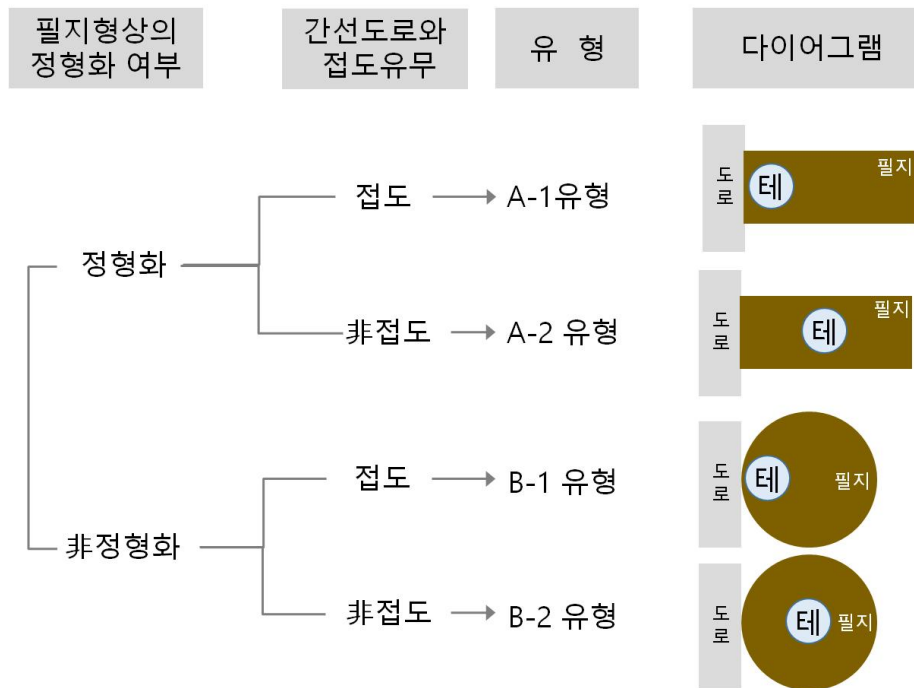
2. 개인농장의 배치 특성

항공사진을 통해 살펴본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들은 금악·월평·선홍 개척농가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와 개인농장으로서의 진입과 관한 배치는 차이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가 어떤 유형으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뒤이어 개인 농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어떤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1)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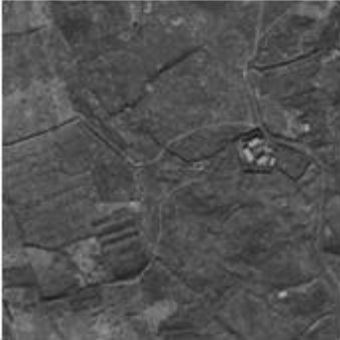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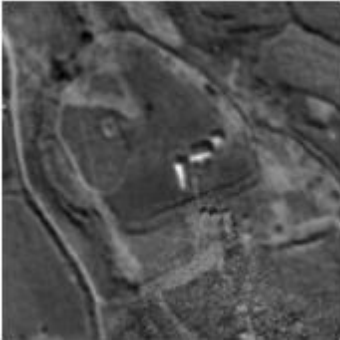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에 대한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필지가 정형화된 모습으로 구획 되어 있는 경우는 단지 형성 당시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필지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단지 형성 당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출입이 용이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계획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을 필지형상과 진출관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필지가 정형화된 모습으로 구획된 유형은 A유형,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구획된 유형은 B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A, B유형 내에서 테시폰식 건축물이 간선도로에 접하는가를 기준으로 접하면 1유형, 접하지 않으면 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필지가 정형화 되어 있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 있는 유형이 A-1유형(정형화 필지-직접 진출입 유형), 필지가 정형화 되어 있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유형이 A-2유형(정형화 필지-간접 진출입 유형), 필지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 있는 유형이 B-1유형(非정형화 필지-직접 진출입 유형) 필지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유형(非정형화 필지-간접 진출입 유형)이 B-2유형이다. 유형은 필지가 더 정형화 되고 테시폰식 건축물이 주요도로에 맞닿아 있는 순서인 A-1유형 - A-2유형 - B-1유형 - B-2유형 순으로 단지 형성 당시 체계적인 계획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구분된 유형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척능가에 어떤 유형이 얼마나 분포하였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A-2유형은 개척능가에서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3-3, 표 3-4)



<그림 3-3> 필지 획지 유형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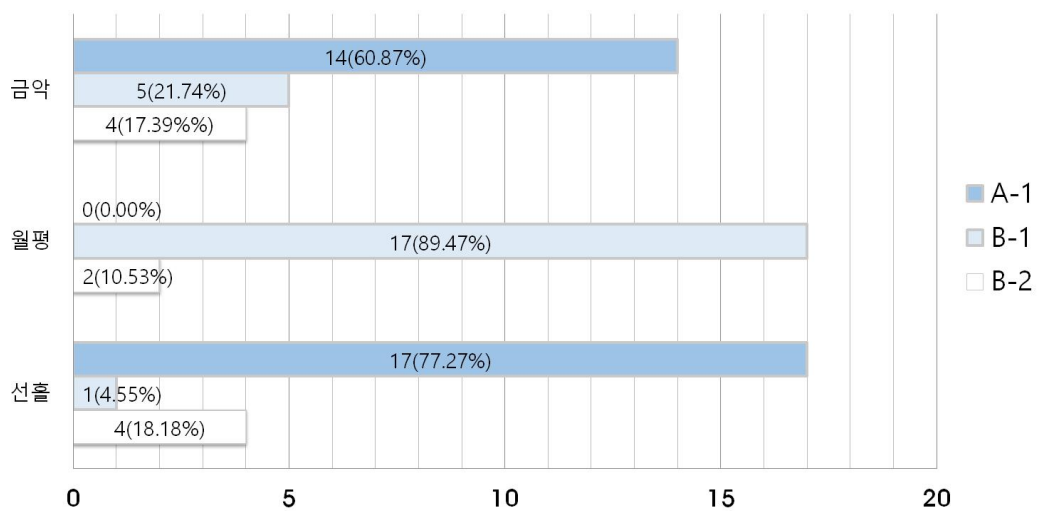
<표 3-4> 필지 획지유형 사례

유형		실제 사례
A-1 유형	도로 테 필지	
A-2 유형	도로 테 필지	미존재
B-1 유형	도로 테 필지	
B-2 유형	도로 테 필지	

금약 개척농가는 A-1유형이 60.87%(14세대)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B-1유형이 21.74%(5세대), B-2유형이 17.39%(4세대) 존재하고 있었다. 월평 개척농가는 A-1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B-1유형이 89.47%(17세대)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B-2유형이 10.53%(2세대) 분포하고 있었다. 선홍 개척농가는

A-1유형이 77.27%(17세대)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B-2유형이 18.18%(4세대), B-1유형이 4.55%(1세대) 분포하고 있었다.(그림 3-4)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화 결과 금악·선흘 개척농가는 필지의 획지가 정형화되어 있고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와 접해있는 A-1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한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필지의 획지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B-1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1유형이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금악·선흘 개척농가가 월평 개척농가에 비해 단지 계획 당시 체계적인 계획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월평 개척농가의 필지 획지 유형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월평 개척농가 2차 입주자 김○○님의 증언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월평 개척농가의 필지 구획 당시 입주자 강○○님의 깊은 관여가 있었으며, 강○○님은 월평의 연고를 가진 것으로 증언 되었다. 기존의 간선 도로가 존재하거나 경사가 적어 필지 구획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다른 개척농가들과는 달리, 급한 경사와 간선도로가 없었던 월평의 경우 기존의 지형과 필지구획을 우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을 이해하는 강○○님이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기하학적인 형태가 아닌 기존 제주에서 익숙한 방식의 필지 구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다른 개척농가와 달리 현지인의 주도로 필지 구획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4> 개척농가 필지 획지유형 분포

2) 개인농장의 진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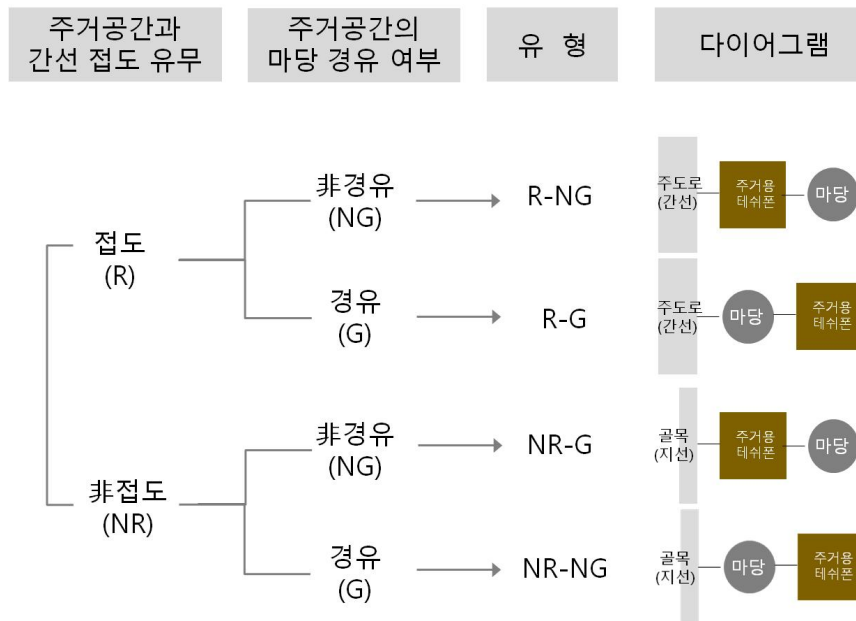
도로에서 개인농장에 진입하여 입주자가 거주하던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과정을 유형화 하고 개척농가에 어떤 유형이 얼마나 분포 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와 개인농장간의 연관성을 유추하였다. 도로를 거치면서 개인농장의 마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유형은 도로와 개인농장간의 연관성이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도로를 통해 테시폰식 건축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농장의 마당을 거쳐 진입하는 유형은 앞의 유형에 비해 도로와 개인농장의 연관성이 낮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농장과 연결된 도로가 입주자 및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선도로인 유형이 그렇지 않은 지선도로인 유형에 비해 도로와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먼저 간선도로와 개인농장이 맞는 유형을 R유형, 지선도로와 개인농장이 맞는 유형을 NR유형으로 구분하였고, R·NR유형 안에서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할 때 개인농장의 마당을 거치는 유형을 G유형, 개인농장의 마당을 거치지 않는 유형을 NG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간선도로에서 개인농장으로 진입하여 바로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유형은 R-NG유형(간선도로-마당 非진입유형), 간선도로에서 개인농장으로 진입하고 마당을 거쳐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유형은 R-G유형(간선도로-마당 진입유형), 지선도로에서 개인농장으로 진입하여 바로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유형은 NR-NG유형(지선도로-마당 非진입유형), 간선도로에서 개인농장으로 진입하고 마당을 거쳐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유형은 NR-G유형(지선도로-마당 진입유형)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그림 3-5, 표 3-5). 유형 중 간선도로를 통해 마당을 거치지 않고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R-NG유형이 가장 도로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유형이다. 반면, 지선도로를 통해 마당을 지나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NR-G유형이 가장 도로와 개인농장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개척농가에 어떤 유형이 분포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NR-NG유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금액 개척농가는 R-NG유형이 78.95%(17세대)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NR-G유형이 25.00%(6세대), R-G유형이 4.17%(1세대) 분포하고 있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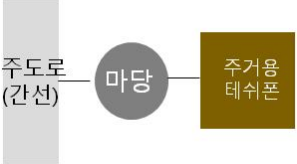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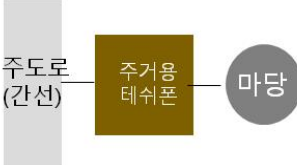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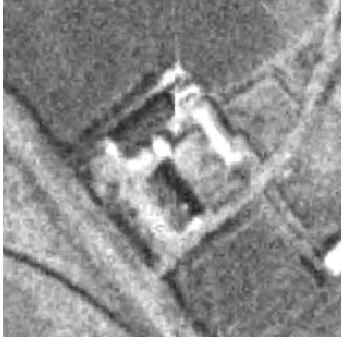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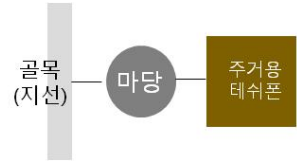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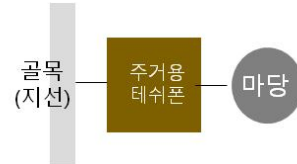
는 금악 개척농가의 다수의 개인농장이 간선도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었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는 A-1유형이 많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월평 개척농가는 NR-G유형이 63.16%(12세대)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R-G유형이 31.58%(6세대), R-NG유형이 5.26%(1세대) 분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난 이유는 월평 개척농가는 간선도로가 적고 지선도로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B-1유형이 많이 분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선홍 개척농가는 R-G유형이 81.82%(18세대)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NR-G유형이 18.18%(4세대) 분포하고 있었고 R-NG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금악 개척농가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개인농장이 간선도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었으며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와 접하는 A-1유형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그림 3-6).

유형화 결과 개척농가는 서로 도로와의 연관성이 상이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간선도로를 통해 바로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R-NG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을 통해 개척농가 중 가장 도로와 개인농장의 연관성이 깊었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지선도로를 통해 마당을 거쳐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하는 NR-G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했음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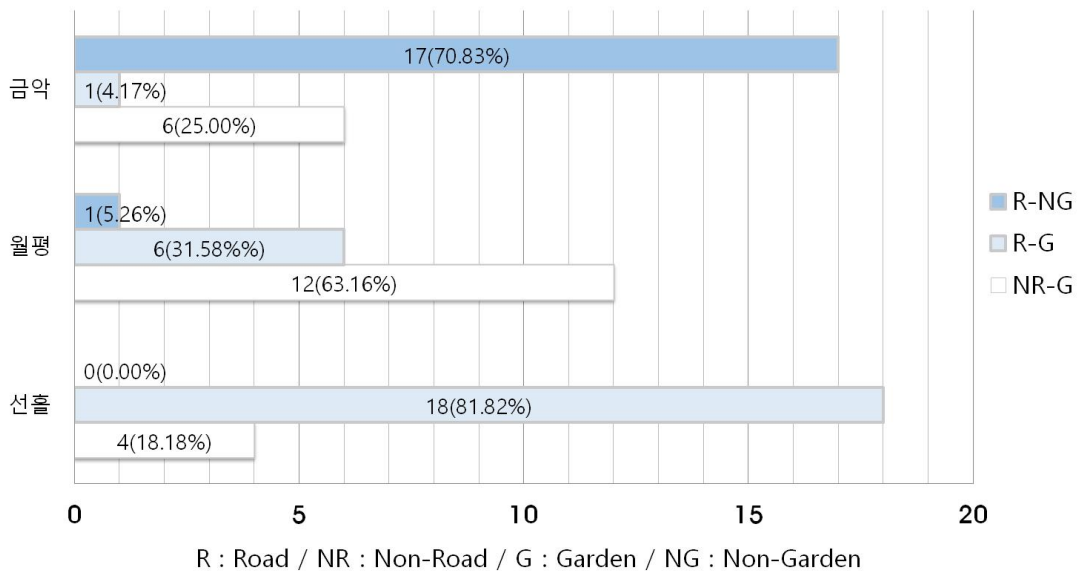


<그림 3-5> 개인농장 진입유형화 과정

<표 3-5> 필지 진입유형 사례

유형	실제 사례	
R-G 유형		
R-NG 유형		
NR-G 유형		
NR-NG 유형		미존재

개척농가 중 가장 도로와 개인농장의 연관성이 적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금악 개척농가의 경우 주거가 마당보다는 길(간선도로)과의 관계를 중시해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농장간의 거리 역시 타 개척농가에 비해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금악 개척농가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개인농장의 연계가 모색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월평 개척농가의 경우 반대로 주거가 길(간선도로)보다는 마당과의 관계성을 중시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농장간의 거리 역시 타 개척농가에 비해 가장 멀리 이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월평 개척농가는 개인농장간의 연계를 모색하기 보다는 각 개인농장의 자립을 모색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선홍 개척농가의 경우, 주거가 길(간선도로)를 통해 마당을 경유하는 R-G유형이 많았던 것을 통해 개인농장의 자립과 농가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농장간의 거리 역시 금악 개척농가보다는 이격되어 있었으나, 선홍 개척농가보다는 근접해있다는 점에서 선홍 개척농가는 개인농장의 자립을 모색하는 동시에 개인농장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개척농가 진입유형 분포

3. 소결

본 장에서는 제주 개척농가가 가지고 있는 공간구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제주 개척농가는 제주도 북부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1967년 당시 금악 개척농가는 한림과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연결되며 선홍 개척농가는 조천읍은 물론이고 제주시와도 연결된 간선도로 근방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악 개척농가는 한림 생활권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간선도로와 연결되어있지 않아 독자적인 생활권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한편, 개척농가는 모두 1967년 당시 계획되고 있던 용수관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개척 당시 용수 확보에 대한 고려나, 추후에 관개용수 시도 때 배려를 관에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1967년 당시 개인농장의 분포와 동번호, 테시폰식 건축물의 현황을 특정할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24세대의 개인농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요 간선도로였던 금악북로(맥그린치로)를 따라 1~14호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축산업에 관한 시험을 보고 그 등수에 따라 원하는 개인농장을 지목하여 분양받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지대가 낮은 개인농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선홍 개척농가는 22세대로 이루어져있었으며 주요 간선도로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산간동로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선교로를 따라 대부분의 개인농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20세대로 이루어진 개인농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간선도로가 아닌 골목과 같은 지선도로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1967년 당시 금악 개척농가에는 43개동(주거용 23개동, 창고용 20개동), 월평 개척농가에는 38개동(주거용 20개동, 창고용 18개동), 선홍 개척농가에는 40개동(주거용 22개동, 창고용 18개동) 등 총 121개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필지의 구획이 정형화되었는지 아닌지, 테시폰식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A-1, A-2, B-1, B-2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척농가별 어떤 유형이 얼마나 분

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1유형이 많이 분포한 금악·선흘 개척농가가 B-1유형이 많이 분포한 월평 개척농가보다 단지 형성 당시 체계적 계획의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월평 개척농가는 필지 구획 당시 월평의 연고를 가진 입주자가 깊게 관여했다는 것과 급한 경사와 간선도로가 없는 월평 개척농가의 특성이 필지 획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뒤이어 개인농장의 진입유형을 분석하였다. 개인농장과 닿아있는 도로가 간선도로인지 지선도로인지와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로 진입시 개인농장의 마당을 거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 R-G, R-NG, NR-G, NR-NG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척농가별 어떤 유형이 얼마나 분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R-NG유형이 많이 분포한 금악 개척농가가 도로와의 연관성이 가장 깊었으며, NR-G유형이 많이 분포한 월평 개척농가가 도로와의 연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의 경우 길(간선도로)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개인농장간의 연계를 모색한 것으로 유추된다. 월평 개척농가의 경우 길(간선도로)과의 관계가 적었으며, 개인농장간의 연계성보다는 자립성을 추구한 것으로 유추된다. 선흘 개척농가는 길(간선도로)과의 관계가 금악 개척농가보다는 작지만 월평 개척농가보다는 컸으며, 개인농장의 연계와 자립을 동시에 추구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본 장에서는 입주초기인 1967년 항공사진의 분석과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분포와 동번호, 길과 마당 그리고 테시폰식 건축물의 관계성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척농가의 계획 당시 공간구성 의도와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IV. 제주 개척농가의 입주자 특성

1. 개척농가 입주자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개척농가에 입주했던 입주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척농가에 거주했던 입주자 및 이들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금악 개척농가에서는 24호 입주자 고○○님을 5차례(2020년 04월 17일, 2020년 05월 15일, 2020년 10월 06일, 2020년 10월 27일, 2021년 02월 24일) 인터뷰 조사 하였으며, 월평 개척농가에서는 2차 입주자 김○○님을 3차례(2021년 04월 03일, 2021년 04월 10일, 2021년 06월 13일) 인터뷰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들의 일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중 출신지와 종교, 인척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다만, 선홍 개척농가는 최초 입주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는 입주자를 아는 관계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장에서는 금악·월평 개척농가에 한정하여 최초 입주 당시의 입주자 일반사항에 대한 고찰로 실시하였다.⁸⁾

1) 입주자의 출신지

금악 개척농가는 24세대의 개인농가 중 증언자가 기억하는 23세대 개인농가 세대주의 출신지를 확인하였다. 금악 개척농가는 제주도 출신 입주자가 52.17%(12세대), 제주도와 출신 입주자가 47.83%(11세대)로 큰 차이 없이 분포했다. 제주도 출신 입주자 중 91.67%(1세대)가 북제주군 출신이었으며, 남제주군 출신 입주자도 8.33%(1세대) 존재하였다. 도외 출신 입주자는 강원도 출신은 17.39%(4세대), 수도권와 전라도 출신은 각각 13.04%(3세대), 중국 출신 입주자는 제주 4.36%(1세대) 분포하고 있었다. 북제주군 출신 입주자는 금악과 옹포 출신이 27.27%(3세대), 귀덕과 한수, 한경 출신 입주자는 각각 9.09%(1세대)씩 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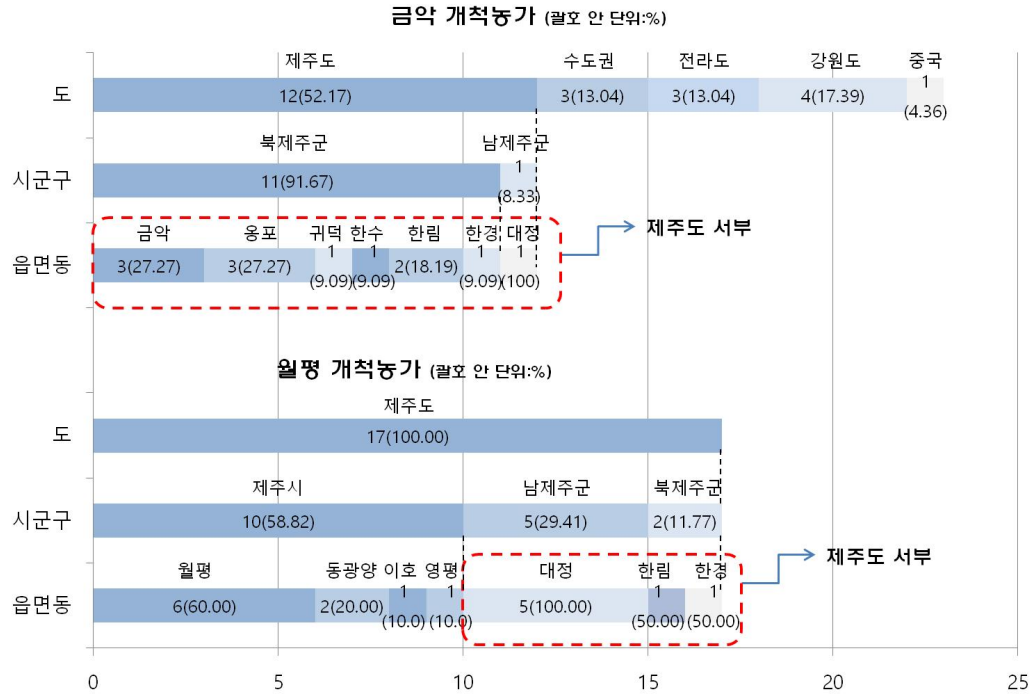
8) 선홍 개척농가 증언자인 지○○씨는 2차 입주자로 개인농장의 위치와 동번호는 정확히 기억하였으나 입주자에 대한 기억은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선홍 개척농가 최초 입주자인 고○○님은 고향으로 인하여 1차 조사 이후 입주자 조사를 위한 2차 조사가 불가하였으며, 이후 서면 인터뷰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였다. 한림읍 출신 입주자로 출신지가 확인되지 않은 입주자도 18.19%(2세대)가 있었다. 남제주군 출신 입주자는 100%(1세대) 모두 대정 출신 입주자였다. 또한, 제주도 출신 입주자는 모두 제주도 서부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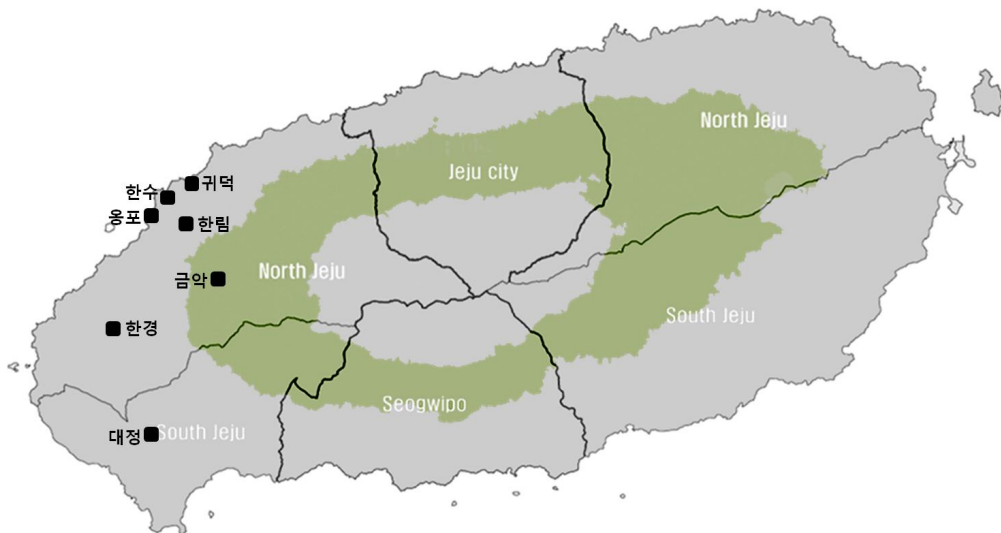
월평 개척농가는 20세대 개인농가 중 증언자가 기억하는 17세대 개인농가 세대주의 출신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월평 개척농가는 100%(17세대) 제주도 출신 입주자로 제주도의 출신 입주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도 출신 입주자 중 제주시 출신이 58.82%(10세대)였으며 남제주군 출신이 29.41%(5세대), 북제주군 출신이 11.77%(2세대) 분포하고 있었다. 제주시 출신 입주자 중 월평 출신이 60.00%(6세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광양 출신이 20.00%(2세대), 이호와 영평 출신 입주자가 각각 10.00%(1세대) 분포하고 있었다. 남제주군 출신은 100%(5세대) 모두 대정 출신이었고, 북제주군 출신 입주자들은 한림과 한경 출신이 각각 50.00%(1세대)로 분포하고 있었다.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출신 입주자들은 모두 월평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4-1)

입주자의 출신지 연구를 통해 금악 개척농가와 월평 개척농가에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가 다수 분포하였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입지가 제주도 서부지역이기에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으나 제주시 서부지역과 거리가 먼 월평 개척농가에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가 많이 분포했다는 점을 의외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금악·월평 개척농가의 입주자 출신지는 차이점도 존재했다. 첫째, 제주도의 출신 입주자가 존재유무가 차이가 났다. 금악 개척농가는 도외는 물론 심지어 중국 출신 입주자도 존재할 정도로 출신지가 다양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전원 제주도 출신 입주자였다. 둘째, 개척농가가 속한 시군구 외 출신 입주자의 비율차이가 월등했다. 금악 개척농가는 금악이 속해있는 북제주군 출신 입주자가 91.67%(11세대)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월평 개척농가는 월평이 속해있는 제주시 출신 입주자가 58.82%(10세대)에 불과하였다. 셋째, 개척농가가 속한 읍면동에서 금악·월평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컸다. 금악 개척농가는 북제주군 출신 중 금악 출신 입주자가 27.27%(3세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월평 개척농가는 제주시 출신 중 월평 출신 입주자가 60.00%에 달했다. 이와 같이 금악·월평 개척농가의 입주자들의 출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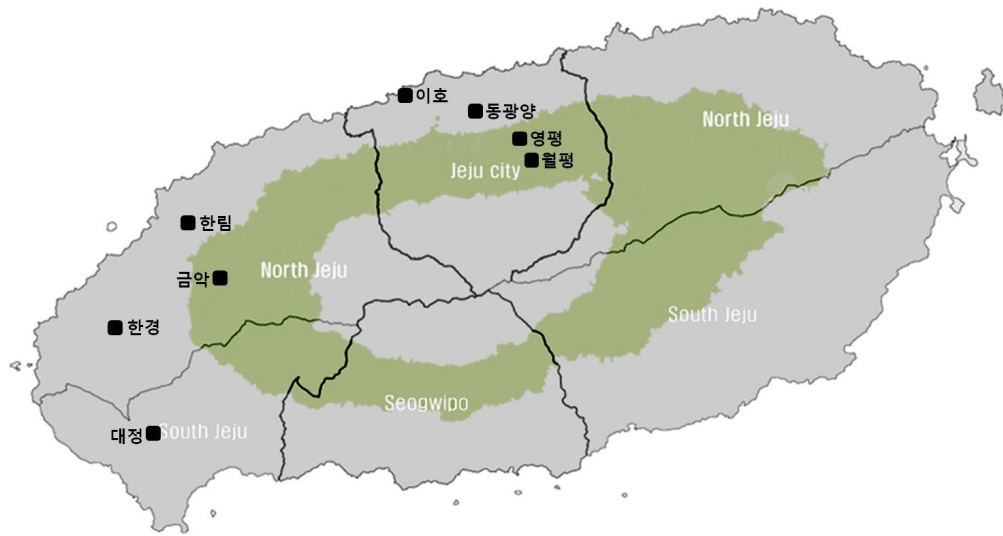
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림 4-1> 제주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분포



<그림 4-2> 1960년대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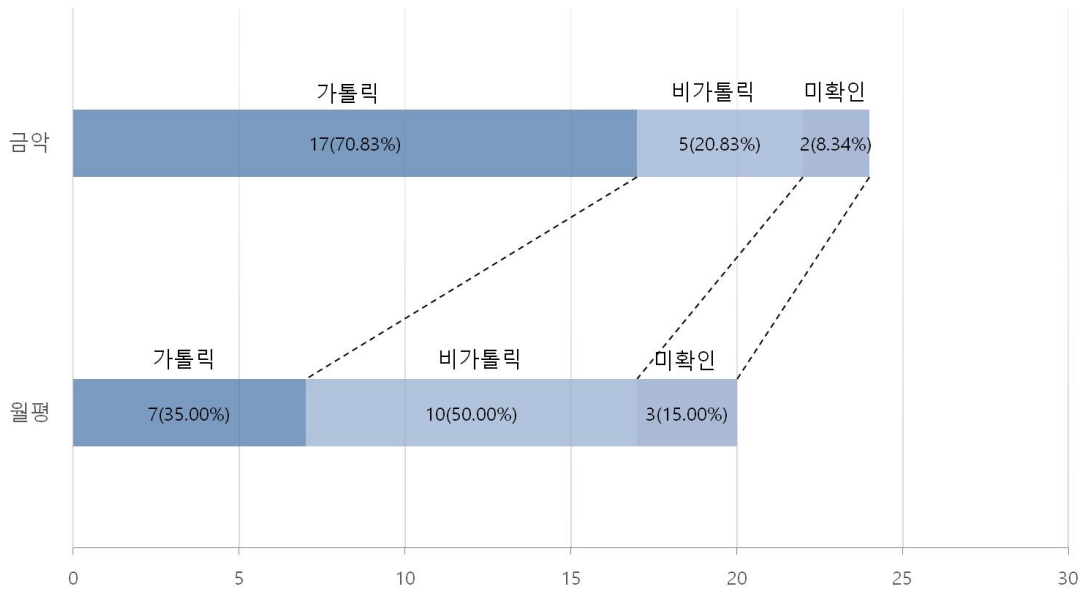


<그림 4-3> 1960년대 월평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위치

2) 입주자의 종교

입주자의 출신지 분포에 이어 입주자의 종교 분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개척농가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맥그린치 신부와 그가 설립했던 성 이시돌 목장이 가톨릭 색채가 짙음을 감안하여 입주자들이 가톨릭 신자였는지 비가톨릭 신자였는지를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증언을 통해 금악 개척농가는 24세대의 개인농장 중 22세대의 가톨릭 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세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월평 개척농가는 20세대의 개인농장 중 18세대의 가톨릭 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세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70.83%가 가톨릭 신자이고 20.83%만이 비가톨릭 신자로 확인되었으며 미확인이 8.34% 존재했다. 이와 반대로 월평 개척농가는 35.00%만 가톨릭 신자였고 50.00%는 비가톨릭 신자였으며, 미확인은 15.00%였다. 이는 금악 개척농가 주변에 성 이시돌 목장이 존재했다는 점과 당시 월평 개척농가는 지역에 연고를 둔 이들이 입주자로 다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배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4)



<그림 4-4> 입주자의 가톨릭 신자 분포

2. 개척농가 입주자 특성

본 절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와 종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입주자의 출신지와 종교(가톨릭) 여부가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금약·월평 개척농가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톨릭 신자 여부에 따라 종교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非종교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금약·월평 개척농가와 출신지가 인접했는지로 구분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입주 이전부터 입주자끼리 가지고 있던 혈연, 지연 등 인연을 함께 제시하여 입주자 특성을 고찰하였다.

1) 금약 개척농가

앞 장에서 확인했듯이 금약 개척농가에는 도내 출신 입주자와 도외 출신 입주자가 구분 없이 입주하였다. 다만, 가톨릭 신자가 非가톨릭 신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입주자의 정보를 함께 확인했을 때 도내 출신 입

주자에 비해 도외 출신 거주자가 가톨릭 신자들이 이루는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외 출신 입주자는 11세대 중 10세대가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외 출신 입주자가 높은 비율로 종교 공동체를 이룬 배경에는 입주자 모집 당시 성 이시들 목장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입주자였던 박○○님의 증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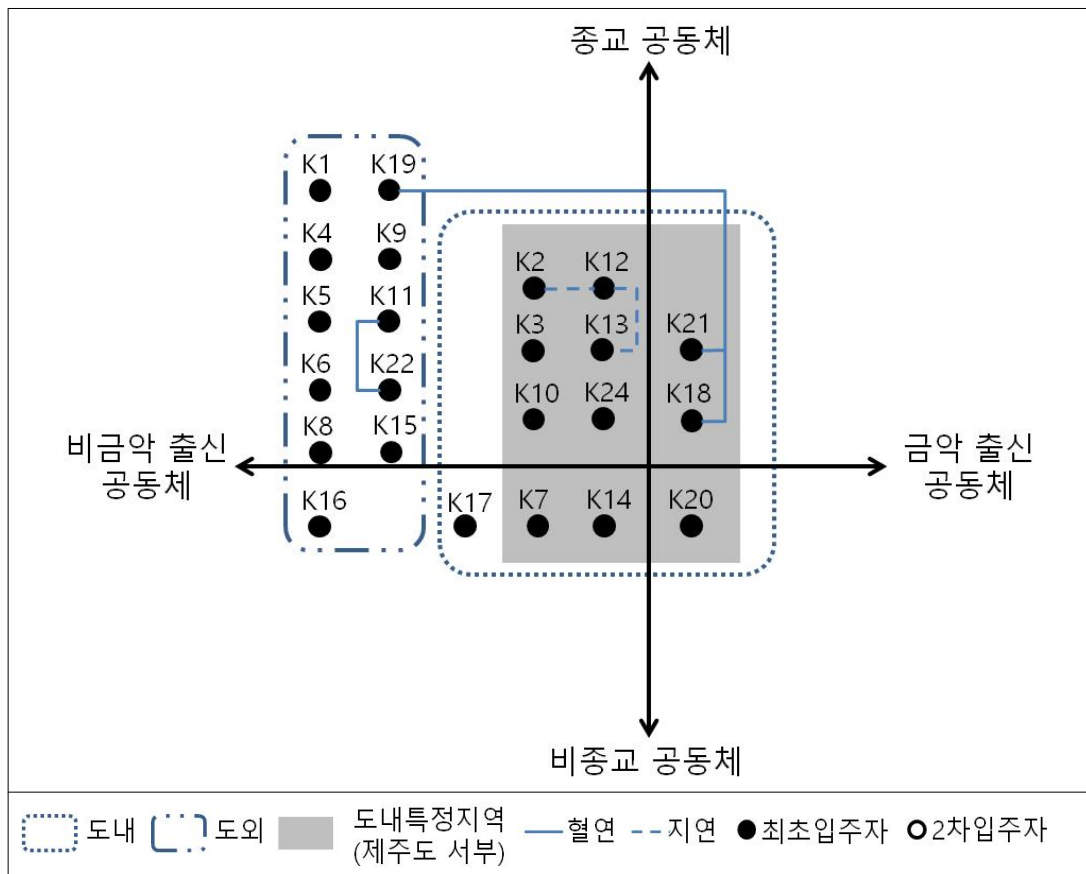
“이 이시들 협회에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지요... (중략)... 전국 아니 전국적은 아니
고 신부님이 제주도 오셔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사는 것이 뭐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 뭐하
기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육지에서 온 거는 언제 이 임(피제)신부님(맥그린치 신부)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관련이 있거나 또 그럼 신부님 이런 누구 있는데 하면 오거나 이런 식이
었죠”

박○○님의 증언에 따르면 금악 개척농가의 입주자 모집은 이시들 협회, 즉 성 이시들 목장이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도외 출신 입주자도 분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성 이시들 목장과 관계를 맺었던 도외 가톨릭 성당을 매개로 입주자 소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도외 출신 입주자들이 성 이시들 목장의 가톨릭적 색채에 영향을 받았거나 이미 가톨릭적 색채를 가지고 입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악 개척농가에 도외 출신 입주자가 많이 분포한 이유는 금악 개척농가가 최초의 개척농가 사업이라는 점, 당시 중산간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새로이 거주지를 형성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도내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등으로 추정된다.

금악 개척농가의 도내 출신 입주자들도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세대가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도내 출신 입주자들은 12세대 중 8세대가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이는 도내 출신 입주자들의 출신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금악 개척농가의 도내 출신 입주자들은 전원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이다. 제주도 서부지역에는 금악 개척농가보다 일찍 성 이시들 목장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성 이시들 목장을 운영하는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지였던 한림과 같

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곧 도내 출신 입주자들이 입주 전 활동하던 출신지와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지와 겹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내 출신 입주자들 역시 성 이시돌 목장과 맥그린치 신부와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연스럽게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금악 개척농가의 입주자들은 입주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입주자가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주자들 중 11호와 22호, 18호와 19· 21호와 같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나, 2호와 12·13호처럼 지연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내 출신 거주자들은 모두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이었던 것을 봤을 때 입주과정에서 입주자 사이에 입주 추천 및 권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그림 4-5).



<그림 4-5> 금악 개척농가의 커뮤니티 특성

2) 월평 개척농가

월평 개척농가는 금악 개척농가와 달리 모두 도내 출신 입주자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이들은 종교 공동체에 속한 개인농장보다 그렇지 않은 개인농장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월평 출신 입주자들은 6세대 중 5세대가 非종교 공동체에 속해있었으며, 이는 제주시 출신 입주자들로 범위를 넓혀도 1차 입주자 기준 10세대 중 8세대가 非종교 공동체에 속해있어 마찬가지였다. 이는 월평 개척농가가 위치 자체가 교통이 불편한 험지였으며 주변에 성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월평 개척농가 주변에 성당이 없었으며, 성당을 다니는 입주자도 거리가 먼 성당을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성당을 다니는 입주자들도 모두 같은 성당 신장였던 금악 개척농가와 달리 서로 다른 성당의 신자였다. 반면, 非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은 1차 입주자 기준으로 7세대 중 5세대가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으며, 추후 입주한 1세대도 종교 공동체에 소속된다.

(이 때 성당을 많이 믿었네요? 주변에 성당도 없었는데?) “이때 대정(남제주군 서부지역)사람들이 성당을 많이 믿어가지고, 한 10여명 될건가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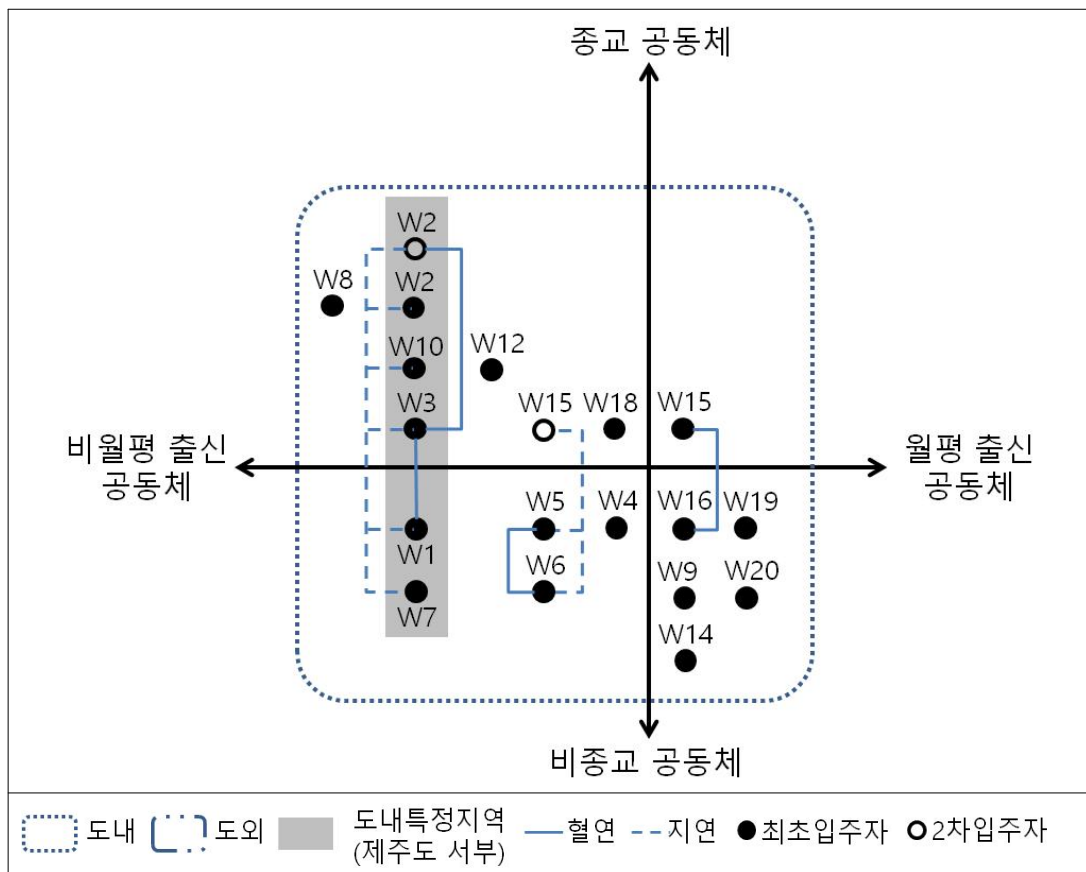
월평 개척농가의 非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의 출신지는 모두 제주도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위의 증언에서도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의 입주자들은 종교 공동체에 속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제주도 서부지역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 이시돌 목장이 존재하였으며, 월평 개척농가의 非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은 사업을 주도한 성 이시돌 목장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월평 개척농가도 금악 개척농가와 마찬가지로 입주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거주자들이 다수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호와 3호, 15호와 16호처럼 혈연관계가 존재하였으며, 5호와 6호·15호와 같이 지연관계가 존재했다. 또한 금악 개척농가와는 달리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최초입주자가 아닌 2차 입주자와 최초입주자간의 인연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월평 개척농가와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제주도 서부 출신 입주자들이 다수 존재한 이유도 증언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다. 증언을 통해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 사이에서 월평 개척농가에 대한 입주 추천 및 권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월평 개척농가에는 비제주시 출신 거주자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여기 대정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들어온 대정사람들이 대정사람들에게 추천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왔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면도 있죠, 김○○이라는 사람이 회장을 하였는데, 김○○라는 친동생도 들어오게 되고, 이분이 초대 회장을 했죠.”

이처럼 월평 개척농가는 성 이시돌 목장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거주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 개척농



<그림 4-6> 월평 개척농가 커뮤니티의 특성

가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분양 당시 토지의 매입과 분배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월평 출신 입주자가 관여했으며, 지역 연고가 강하고 종교적 색채가 덜했다는 점에서 금악 개척농가에 비해 자립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며, 이러한 추론은 추후 월평 개척농가에 한라농장⁹⁾이라는 월평 개척농가만의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그림 4-6).

3. 소결

본 장에서는 제주 개척농가 입주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1960년대 당시 악·월평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종교분포 등 일반사항을 최초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다음의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는 도내와 도외 출신 입주자가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었고 도내 출신 입주자 전원이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이었으나 금악 본동 출신 입주자의 비중은 낮았다. 도외 출신 입주자는 수도권부터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다양한 출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림에 거주했던 중국 출신 입주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에는 도외 출신 입주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내 출신 입주자들은 월평이 속해 있던 제주시 출신 입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월평 출신 입주자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비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은 모두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이었다. 이를 통해 금악·월평 개척농가에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이 분포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제주도의 출신 입주자의 유무, 개척농가가 속한 시군구 외 출신 입주자의 비율 차이, 개척농가가 속한 읍면동에서 금악·월평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 등 차이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9) 김○○님의 증언에 따르면 한라농장은 현재 한라신협의 모태로 월평 개척농가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월평 개척농가에서는 본인들의 커뮤니티를 개척농가가 아닌 한라농장으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응. 여기서 한라신협이 실제로 났혀 가기 시작했어요. 한라 농장에서. 한라농장으로 시작했는데 한라신협이라 했듯이 실제 여기서 월평에서 생겨가지고 이시돌로 해가지고 그 돈을 저금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 한라신협이 생겼어요.

있었다.

입주자의 일반사항 중 두 번째로 종교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척농가와 성 이시돌 목장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교(가톨릭)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금악 개척농가는 가톨릭 신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월평 개척농가는 非가톨릭 신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금악 개척농가는 지역기반 커뮤니티가 아닌 성 이시돌 목장의 영향력이 존재한 제주도 서부지역 또는 도외 지역의 가톨릭 커뮤니티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월평은 반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고찰한 입주자의 일반사항과 인터뷰 조사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척농가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금악 개척농가에 분포하고 있던 도외 출신 입주자의 다수가 가톨릭 신자들이 형성한 종교공동체에 속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증언을 통해 도외 출신 입주자들의 입주자 모집 당시 맥그린치 신부가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도내 출신 입주자도 도외 출신 입주자에 비해서 비율은 떨어지지만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도내 출신 입주자들이 맥그린치 신부와 성 이시돌 목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이었던 점과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개척농가 입주 이전부터 혈연·지연 등 인연을 맺고 있던 경우가 다수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입주 당시 입주자 사이에 입주 추천 및 권유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월평 개척농가는 금악 개척농가와 달리 종교 공동체가 많이 분포하지 않았으며, 이는 월평 개척농가 속해 있는 제주시 출신 입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월평 개척농가의 교통 등이 발달하지 못한 지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非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은 대부분 종교 공동체에 속해있었으며 이는 非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의 출신지가 모두 성 이시돌 목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제주도 서부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월평 개척농가도 입주 이전 인연을 맺은 입주자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증언을 통해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 사이에 입주 추천 및 권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월평 개척농가내에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

의 커뮤니티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월평 개척농가에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분양 당시 토지의 매입과 분배에 월평 출신 입주자가 관여한 점, 종교적 색채가 열었던 점 등을 통해 금악 개척농가에 비해 성 이시돌 목장의 영향이 덜한 지역 기반의 자립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추후 월평 개척농가에 한라농장이라 명명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제주 개척농가의 공동체 특성

본 장에서는 금악 개척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체 특성을 고찰한다. 앞장에서 고찰했듯이 금악 개척농가는 개척농가 중 최초로 계획된 단지로 성 이시돌 목장 인근에 위치하고 입주자들이 성 이시돌 목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악 개척농가는 기하학적인 필지 구획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거 배치와 단지 계획 등 가장 근대적 공간 구성 체계로 구성된 점, 지역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특성은 약하지만 강한 종교적 커뮤니티를 지니면서도 제주도 서부지역과 도외 출신 입주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개척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당시의 기억을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 이시돌 목장을 매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금악 개척농가에 대한 공동체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금악 개척농가의 생활적 요소

본 절에서는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들의 기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도로와 도로를 통해 존재했던 교통, 생활의 핵심적 요소였던 수도, 추후 도입되어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전기와 전화 등 생활적 요소의 분포와 도입과정 및 시기 등을 고찰하였다.

1) 도로체계의 확충과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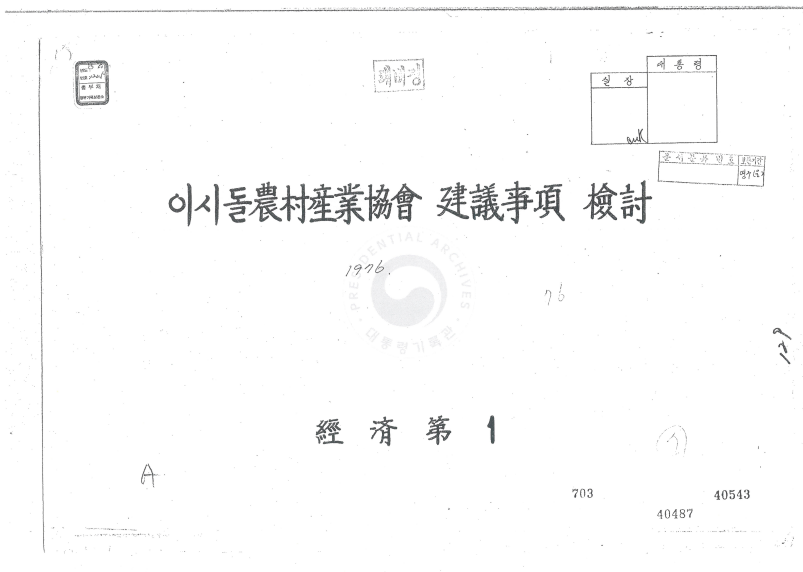
금악 개척농가를 관통하는 도로 중 주요 도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창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금악북로였다. 그 중에서도 한창로가 한림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와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한창로는 포장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성 이시돌 목

장과 금악 개척농가에서 키운 돼지가 출하할 때 포장되지 않은 한창로를 지나서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빠질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맥그린치 신부는 한창로의 포장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성 이시돌 목장을 방문하자 직접 대통령에게 도로의 포장을 건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한창로를 따라 성 이시돌 목장으로 들어오던 중 차가 고랑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포장도로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결과 한창로는 포장도로가 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시돌이 비포장 도로였어요. 한림에서 거기까지 한 12, 13km. 비포장도로인데 이시돌에서 돼지들을 키워가지고 차에 2층으로 실어요. 그러면 이시돌에서 출발해서 산간길도 없었죠. 한림으로 내려와서 성산까지 가면 한 100kg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깐 가는 동안 개네들이 배설물도 배출하고 체중이 엄청 줄잖아요. 그러면 정문에서 거기까지 가면 체중이 엄청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신부님이 대통령께 아스팔트 길 좀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돼지들이 엄청난 감량이 돼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고. 그래서 대통령 왔다 간 다음 길이 생겼어요.”

다른 주요 도로인 금악북로는 앞에서 언급한 듯이 1~14호 개인농장 입주자들이 직접 포장한 도로였다. 도로를 포장하는데 필요한 돌은 당시 개인농장의 경계 울타리 역할을 하던 밭담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밭담을 허물고 돌을 가져갔기에 개인농장의 경계 울타리는 이후 철조망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포장된 길은 현재 맥그린치로라 명명되기도 했다.

“우리가 밭담을, 여기 밭담을 다 걷어서 깔았다. 그래서 여기에 밭담이 없어요 여기에 다 깔았어요 여기서 여까지. 깔고 이시돌 목장에서 기계 빌려다가 자갈도 깨구. 그 다음에 다 날라. 이 많은 돌. 전부 다 우리 등으로 쳐다가 기계로 자갈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자갈 까는 기계로 했지만은. 하여튼 이 철조망, 서로 담 경계 없애볼고 이 철조망비가 우리 상환할 돈하고 맘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돌담이 없어요. 그니깐.”



이시들 農村産業協會 建議事項 檢討	
建 議 事 項	檢 討 意 見
<p>1. 法人稅, 法人營業稅, 關稅免除 (理由)</p> <p>가. 畜産獎勵 牧野開發 等 社會 및 育英 事業을 하는 非營利 法人임</p> <p>나. 政府의 嚴格한 監督을 받고 있음</p> <p>다. 利益金은 再投資를 하여 事業終了時에는 모든 財産은 政府에 歸屬하기로 되어있음</p> <p>라. 畜産業에 對하여는 法人稅가 74년까지 全額 免除, 77년까지 50% 免除로 되어 있으나, 一部 技術指導項目 (인조천)의 보조費에 法人稅와 法人營業稅가 賦課되고 있음</p>	<p>(1) 法人稅 및 法人營業稅 免除問題</p> <p>(가) 現行 法人稅法上 非營利法人이라고 하여 法人稅를 免除시켜주는 一般의 規定은 없으며 尙한 稅率面에서 若干 優待시켜주는 程度에 그치고 있음 (500萬원 超過利益 40% → 35%)</p> <p>(나) 따라서 法人稅와 法人營業稅의 免除는 不可함</p> <p>(다) 非營利 法人에 對한 一部 減稅制度를 法制化하는 方案도 考慮할 수도 있으나 尙한 非營利 團體의 濫用과 脫稅 憂慮가 있음</p> <p>(2) 關稅 免除問題</p> <p>(가) 現行 關稅 減稅 規定에 依하면 耕作農產, 土地改良事業과 畜産業에 必要한 一部 機械 (분도차, 스크어퍼, 공작차, 獵狗 牧草攪子 精磁機, 분쇄기 등)에 對하여는 關稅를 免除시켜주는 것으로 그 範圍이 制限的임</p> <p>(나) 이시들 協會에 對하여서만 工 導入 物品에 對하여 包括 免除하는 것은 困難함</p>
<p>2. 翰林 - 이시들 牧場間 道路 鋪裝 (12"~)</p>	<p>閣下 指爪에 依하여 今年度에 完工 豫定임</p> <p style="text-align: right;">704</p>

<그림 5-1> 이시들협회 도로 포장 건의사항 검토 문건
(출처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통해 버스가 다녔다. 한창로를 통해 성 이시들 목장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근버스가 다녔으며, 한창로와 금악북로를 통해 시외버스가 지나다녔다. 시외 버스는 금악북로를 통해 들어와 동쪽에 위치한 외부 단지의 종점으로 간 뒤 돌아와 한

창로를 통해 한림으로 나갔다. 이를 통해 개척농가와 한림이 버스로 왕래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를 통해 한림과 개척농가를 왕래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표 5-1)

2) 용수의 확보과정

제주도는 물이 부족하여 용천수가 많이 나는 해안가에 주로 취락이 분포하였다. 중산간지역은 해안가에 비해 물이 부족한 것이 일상이었으며 이는 금악 개척농가도 마찬가지였다. 물은 사람의 식수로 사용은 물론이고 축산업에 상당한 양이 필요했기에 금악 개척농가에게 그 중요성은 더하였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주로 물통을 사용하였다. 개척농가 주변에 존재하는 물통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노나진 밭이었다.

(그때는 물은 어떻게 사용했어?) 물이요?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저 금악오름 밑에 ‘노나진 밭’이라는 저 지형이 오목하게 생겨서 이 주위에서 비가 오면 전부 다 거기서 모여들어. (아 저수지처럼. 이름이 ‘노나진 밭’?) 네. 노나진 밭.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개척농가는 만들어 놓고 물이 없으니까. 그걸 신부님이 무슨 군인들 불도저 그걸 이용해서 땅을 밀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크게. 그 자리에 노나진 밭에. 그래서 이제 물을 좀 고이게끔. 나중에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부로부터 그 울타리 담을 연못 판 데에 들렸어요. 그때 이제 담을 들렸는데, 이제 거기서 물지게로 물 길어다가 일상 생활한거예요. 밥 지어먹고, 걸레 빨고, 세수하고.

위의 증언처럼 노나진 밭은 자연적인 물통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물통으로 금오름과 금악북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위치를 통해 봤을 때 주로 금악북로에 위치한 1~14호와 남서쪽에 위치한 18, 19, 21호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나진 밭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물통은 세미오름에 위치한 세미소라는 물통이었으며, 이외에도 밥셋물, 생사물, 건평 등지에도 물통이 존재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물을 중요시하여 여러 곳에 물통을 뒀다고 한다.

“목장은 뭐에 그것 땀에 여기에 이 물이 제일 뭐 하니까 신부님이 에 저수지를 여러 군데 봤어요. 요위에 가다보면 젊음의 집 옆에 그 봤어요? 거기도 저수지 있고 저 건평 가면 좋은 저수지도 있고 내가 이거까지 이것도 했는데 저수지 할 때도.”

물통을 통해 물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온 금악 개척농가는 대규모 용수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금악 개척농가 북동쪽에 위치한 흠골이라는 지역에서 PVC 파이프관을 이용해 근대적 방식으로 용수를 끌어왔다.

“수도, 참 수도 얘기하면은 흠골 이런 곳이 있어요. 흠골에서부터 인제 이 파오는데 개인농장 사람들에 근데 일하면은 이 나중에 땅값 변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 PVC 파이프가 처음 나올 때예요 아마. 제주도서 처음 썼을는지 몰라요. 우리가 땅을 파면 한 60센티 뭐 한 50,60 파면은 연결해서 예 (중략) 흠골은 저게 일리시안 골프장 있죠. 바로 가면 그 위쪽! 그거는 왜정 시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거기 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물을 끌어 온 거죠.”



<그림 5-2> 어승생 저수지 연결공사 당시 사진
(출처 :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금악 개척농가는 기존 방식인 물통과 근대적 방식인 자체 관정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였지만 용수의 부족함은 존재하였다. 이에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박정희 대통령 방문 후인 1976년 한창로를 따라 수도관이 연결되면서 그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된다. (표 5-1)

3) 에너지원과 통신체계의 확충

금악 개척농가에 전기는 1976년 근방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방문 이후 주요 도로였던 한창로를 따라 도입되었으며, 전기 도입 이전에는 호롱불, 대한 등을 사용하여 불을 켜었다고 한다. 전기 도입 이후 일부 개인농장에서는 난방을 전기장판을 이용했다고 한다. 개척농가로 도입된 전기는 이후 주변 단지로도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길을 뺄라라고 하면서 길을 빼고 우리는 3년동안 부역하고 전기도 넣어줘라 하니까 옛날에 우리 신부님이 자가발전을 해서 돼지도 기르고 그랬는데 이제 한전에서 길과 동시에 이듬해에 아마 전기가 들어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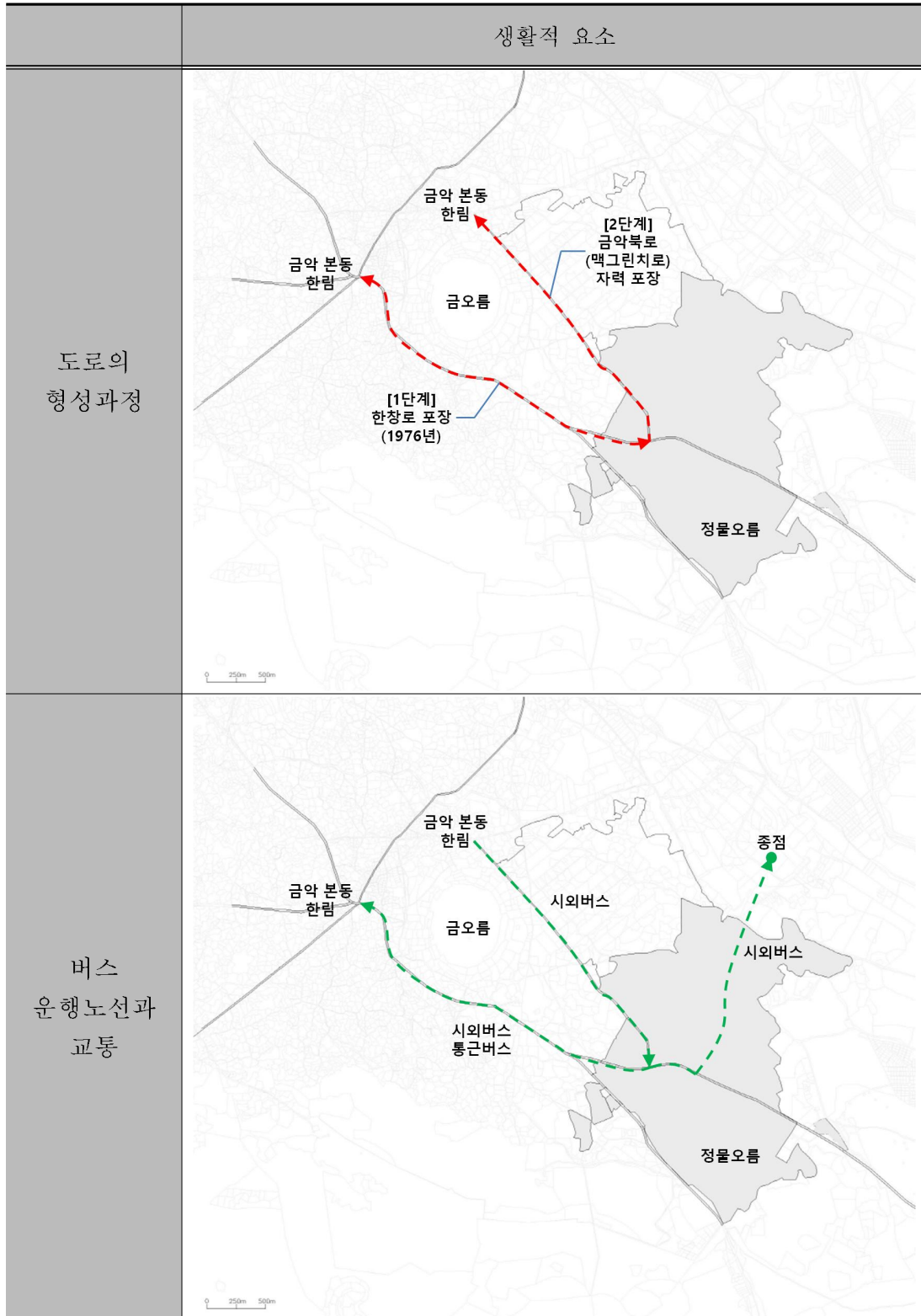
전화의 도입은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박정희 대통령 방문 당시 맥그린치 신부가 도로와 함께 요청한 전화 연결 건의에 대한 검토 문서로 1976년 문서이다. 문서에는 전화통신선 설치에 대해 한림에서 금악까지 8km 구간은 관(官)에서 공사를 진행해주고, 금악에서 성 이시돌 목장까지 4km구간은 성 이시돌 목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도입된 전화는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교환소를 통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1)

建議事項	檢討意見
3. 翰林館邊의 이시들 牧場間의 一般電話 架設	(1) 通信部가 1973年度 定期單位 通信網 設置計劃 (豫算 470억5천) 중 一部 實施하여 翰林-금곡지(2.11.1180名)間 電話 架設工事を 完了하도록 하고 (8.800) (2) 금곡지 一牧場間 (4km) 電話 架設은 이시들 牧場 自治委員會로 實施하도록 함 (自治委員會 1,092,000원) (3) 通信部가 翰林-牧場間을 全部 架設工事を 하는것은 目前에 難이 甚함 (4) 公衆이 아닌 牧場이라는 特定人은 爲하여는 電話 非設置區域 이거 例外委員會로 電話 架設을 할수 있음 (5) 金곡지가 牧場이 一團內에 所在하고 있기때문에 一團內에 一團의 電話를 設置하기가 地域域의 均衡上 困難함 (6) 2200 經費가 280萬원 必要됨 <div style="text-align: right;">705</div> 
4. 이시들協會 會費 徵收 12團世學의 對하기 徵收 費金 22百5千 長期 低利 融資	養林部가 養林에 事業性을 檢討하기 爲政 費金-一時 回收 費金에서 貸出 支拂 5千 指示 하시기를 建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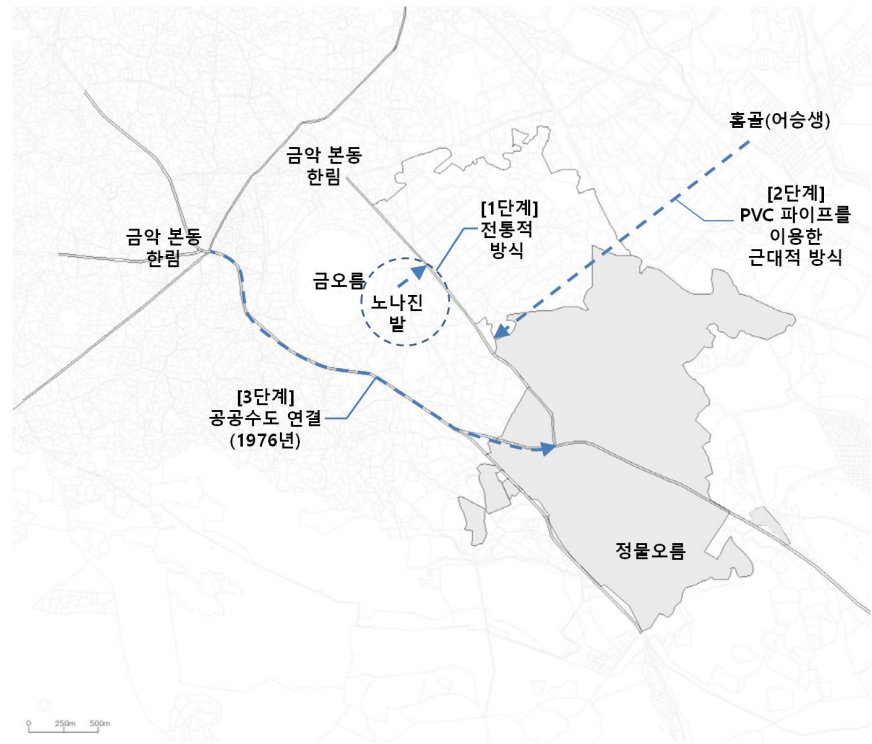
<그림 5-3> 이시들협회 전화 연결 건의사항 검토 문건
(출처 : 대통령 기록물)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밝힐 수 있었다. 금악 개척농가의 주요도로는 한창로와 금악북로였으며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방문 당시 맥그린치 신부의 건의에 의해 1976년 한창로가 포장되었다. 이후 1~14호의 주요도로였던 금악북로는 1~14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를 포장하였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통해 시외버스와 성 이시들 목장 통근버스, 오토바이 등이 다녔으며, 이들의 목적지는 한림이었다. 이를 통해 금악 개척농가는 한림 생활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용수는 과거 방식인 물통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였으나 성 이시들 목장의 대규모 용수의 필요성 증가로 근대적 용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행정에 의한 용수 공급(공공수로)이 이루어졌다. 에너지원은 입주 초기에는 나무 등을 이용해 난방하거나 호롱불, 대환을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하였으나, 이후 1970년대 중반 간선도로를 따라 한림과 금악을 통해 들어온 전기가 난방과 조명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 이전 통신체계의 형성과정을 명확히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간선도로 확충과 함께 한림, 금악을 통해 전화가 보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문 근처 교환소를 통해 성 이시들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에도 통신이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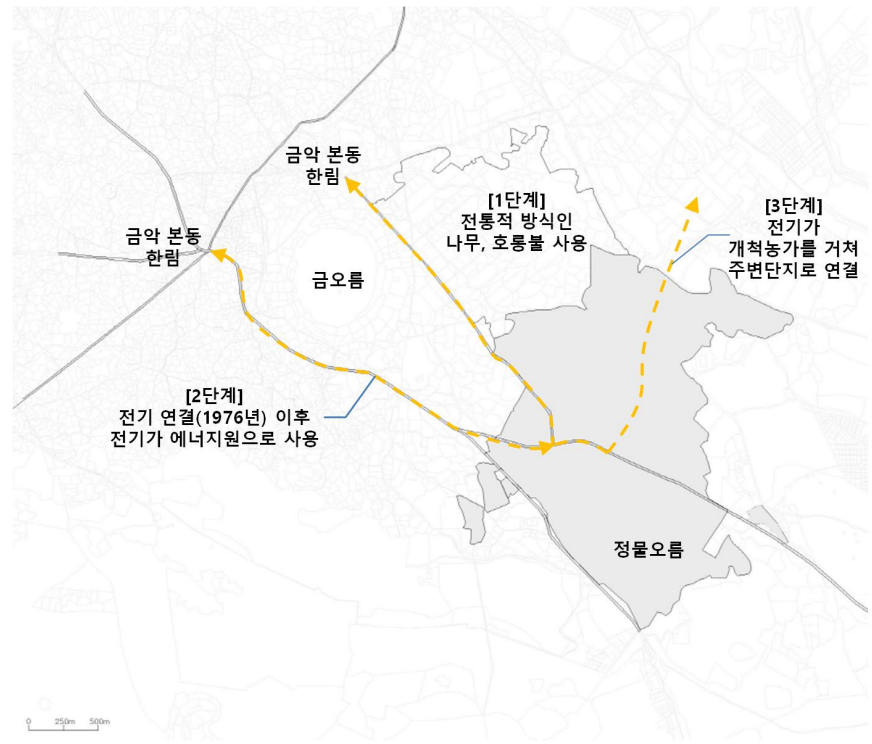
<표 5-1> 금악 개척농가의 생활적 요소



용수의 확보과정



에너지원의 확보과정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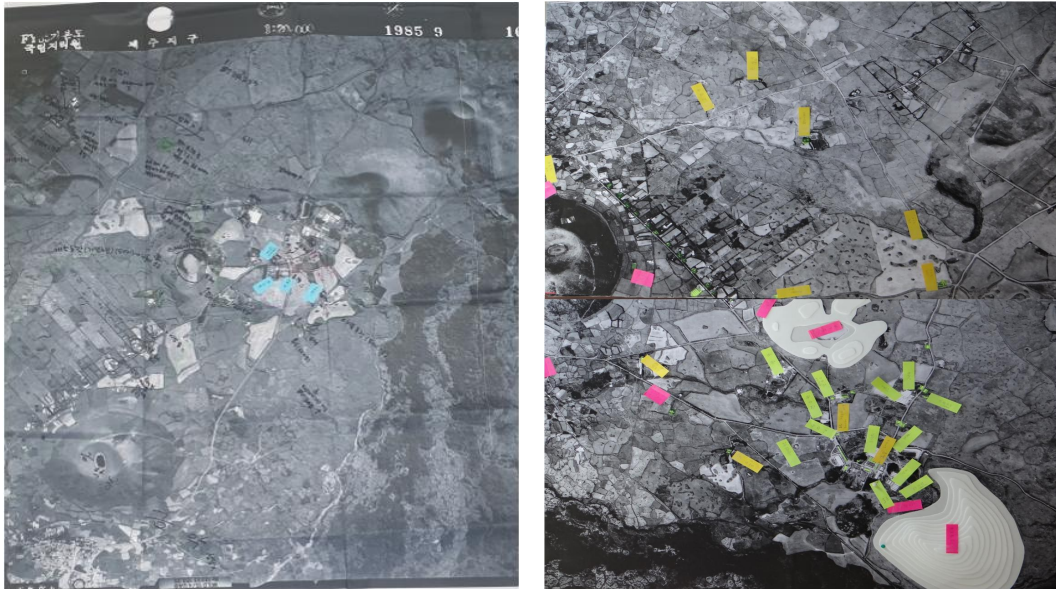




2. 금악 개척농가의 공동체 특성

1) 입주자 특성

개척농가 입주자의 출신지 및 종교 등 일반사항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 중 금악 개척농가는 성 이시돌 목장을 매개로 여전히 강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입주당시의 공동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입주자와의 인터뷰, 워크숍을 통해 알아낸 금악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동번호와 위치, 입주자의 성명과 출신지, 가톨릭 신자여부, 특징 등 입주자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림 5-4> 금악 개척농가 인터뷰 및 워크숍 결과물

1호 입주자 김○○님은 경기도 수원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다. 금악 개척농가 동광리 테시폰식 건축물¹⁰⁾에 거주하다가 금악 개척농가에 입주하였다. 동광리 개인 농장 형성이 금악 개척농가 형성 이전이라는 점에서 당초 금악 개척농가 입주를 위해 도외에서 입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호 입주자 임○○님은 한림읍 용포리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다. 3호 입주자 홍○○님은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본인도 가톨릭 신자였으며, 자녀 중 일부가 가톨릭과 연관된 직업을 가졌다. 이를 통해 3호는 가톨릭 색채가 짙은 집안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4호 입주자 박○○님은 전북 순천출신으로 가톨릭 신자였다. ‘농원’이라는 잡지에 실린 입주 광고를 보고 입주하였으며, 이후 동생인 박○○님도 입주하여 10~12명의 입주자가 같은 테시폰식 건축물에서 생활하였다.

“내려온 동기는요. 제가 19살 때 군대에 가서 23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45,000평(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간하면 그때 박정희 시절에 개간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가지고 소도 기르고 이제 꿈이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

10) 동광리 테시폰식 건축물은 제주시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평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 서귀포시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는데.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농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시돌 임신부님이 이시돌 목장을 산림에서 옮겨오면서 한우, 면영, 트랙터, 뭐 또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농원’에서 우선 주소를 오랜 해가지고 그것이 주소가 되어서 단신으로 제주도로 그냥 왔어요.”

5호 입주자 신○○님은 경기도 출신이었으며 가톨릭신자였다. 6호 입주자 이○○님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다. 7호 양○○님은 한경면 조수 출신으로 비가톨릭 신자였다. 8호 입주자 김△△님은 강원도 출신으로 가톨릭 신자였다. 당시 김△△님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한림을 자주 왕래했다는 증언이 있어 금약 개척농가와 한림생활권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사례이다. 9호 입주자 박△△님은 강원도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으며 선친이 초기 입주자였기 때문에 입주하였다. 박△△님은 설계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었던 까닭에 성 이시돌 목장의 사무국장 직책도 역임하였으며, 추후 건설되는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의 건설에 깊이 관여하였다.

“제가 73년도에 와서 다시 내려와서 신부님한테 얘기 하니까 그러면 시설을 맡으라고. 아, 내가 서울 가서는 설계사무실에 있었어요. 건축 설계사무실에.”

10호 입주자 홍△△님은 한림읍 한수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다. 11호 입주자 전○○님은 강원도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다. 또한, 23호 전△△님의 형이었으며 모슬포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12호 입주자 이△△님과 13호 입주자 김□□님은 한림읍 용포리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으며, 14호 입주자 장○○님은 한림읍 출신으로 비가톨릭신자였고, 15호 입주자 김◇◇님은 서울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다. 16호 입주자 모○○님은 유일한 외국인 입주자로 중국출신이었으며 비가톨릭신자였다. 입주 이전 한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밀가루를 맥그린치 신부에게 제공해준 인연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17호 입주자 홍□□님은 대정읍 모슬포 출신으로 비가톨릭신자였으며, 홍□□님 이후 라○○님이 입주하게 된다. 18호 입주자 양△△님과 21호 입주자 양□□님은 금악 본동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으며 형제 관계였다. 19호 입주자 김××님은 전라도 출신으로 가톨릭신자였으며 양

△△, 양□□님의 매형이었다. 김××님 이후에는 동성유지라는 곳에서 19호를 매입하였다. 20호 입주자 김●●님은 금악 본동 출신이며 비가톨릭신자였다. 개인농장 입주자 중 유일하게 개척농가가 아닌 금악 본동에 테시폰식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장은 소유하지 않았다. 22호 입주자 전△△님은 강원도 출신으로 11호 입주자 전○○님의 동생이었으며, 전△△님이 떠난 뒤 테시폰식 건축물이 석조 건축물로 재축되었다. 가톨릭신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3호 입주자 고○○님은 출신지와 가톨릭신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주 이후 고○○님에게 매도하고 이주하였다. 이후 22호처럼 테시폰식 건축물이 석조 건축물로 재축되었다. 24호 입주자 고△△님은 한림출신이며 가톨릭신자였다. 성 이시돌 목장 직원 출신으로 다른 개인농장보다 늦은 1973년 입주하였으며 가장 넓은 면적의 개인농장을 소유하였다. 또한, 유일하게 외피가 2점인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표 5-2). 이처럼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의 특성은 매우 자세히 정리할 수 있었다.

<표 5-2>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의 특성

동 번호	성명	출신지	가톨릭 신자여부	입주자의 특징
1호	김○○	경기도 수원	○	과거 동광리 테시폰식 건축물에 거주하다 입주하였음.
2호	임○○	제주도 한림읍 옹포	○	×
3호	홍○○	제주도 한림읍 귀덕	○	자녀가 카톨릭과 연관된 직업을 가짐.
4호	박○○	전북 순천	○	‘농원’이라는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입주를 결정함. 이후 동생인 박▲▲님도 입주하여 테시폰식 건축물에 10~12명이 살았음.
5호	신○○	경기도	○	×
6호	이○○	전남 장흥	○	×

7호	양○○	제주도 한경면 조수	×	×
8호	김△△	강원도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한림을 왕래함.
9호	박△△	강원도	○	선친이 초기 입주자라 입주하게 됨. 건축사설계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어 성 이시돌 목장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았으며 추후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 건설에 깊이 관여함.
10호	홍△△	제주도 한림읍 한수	○	×
11호	전○○	강원도	○	23호 전△△님의 형으로 모슬포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함. 딸이 성 이시돌 병원에 근무함.
12호	이△△	제주도 한림읍 옹포	○	×
13호	김□□	제주도 한림읍 옹포	○	×
14호	장○○	제주도 한림읍	×	×
15호	김◇◇◇	서울특별시	○	×
16호	모○○	중국	×	유일한 외국인 입주자. 한림에서 식당 운영 중 맥그린치 신부와의 인연으로 입주.
17호	홍□□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	홍□□님 이후 라○○님이 입주함.
18호	양△△	제주도 한림읍 금악	○	21호 양□□님의 형이자 19호 김○○님의 처남관계.
19호	김××	전라도	○	18호 양△△님의 매형. 김○○님 사망 이후 동성유지에서 매입함.
20호	김●●●	제주도 한림읍 금악	×	개척농가가 아닌 금악 본동안에 위치함.

21호	양□□	제주도 한림읍 금악	○	18호 양○○님의 동생이자 19호 김●●님의 처남관계.
22호	전△△	강원도	확인 불가	11호 전○○님의 동생. 전△△님이 이주한 후 테시폰식 건축물이 석조 건축물로 재축됨.
23호	고○○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입주 후 고□□님에게 매도하고 이주함. 이후 테시폰식 건축물이 석조 건축물로 재축됨.
24호	고△△	제주도 한림읍	○	타 개인농장과 달리 늦은 시기인 1973년 입주하였으며 가장 넓은 면적의 개인농장을 소유함. 이전에는 성 이시돌 목장의 직원이었음. 개척농가에서 유일하게 외피가 2겹인 ‘2중 외피 테시폰식 건축물’을 소유하였음. 이후 고◇◇님에게 매도하고 제주시로 이주함.

2)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

금악 개척농가는 개발되지 않은 초지를 개척해야 했으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축산업을 주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단지였으며, 이에 걸맞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증언에 따르면 당시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들은 입주자끼리는 물론이고 성 이시돌 목장의 근무자들과도 친밀하여 곧 잘 어울렸던 것으로 보이며, 인원이 많이 모였을 경우 돼지를 잡아 회식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를 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당 혹은 테시폰식 건축물에서 결혼식을 지내는 등 입주자들의 경조사를 챙기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단합이 잘 돼 있었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내일 같이, 모이면 그래도 큰 일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다 같이 잘 모이고 그랬습니다. ...(중략)... 그때는 다 퇴근하면 술도 엄청 먹고 댕병 하나 해가지고.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 통근버스 하나였어요. 내려가서 사오고,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최고급 자가용이었어요. 다들 모여서 집에서 먹었어요. 그 때는 집에서 여럿이 모이면

부엌에서 먹다가 방에서도 먹고요. 네 집, 내 집이 없어요. 오늘 이 집에서 먹으면 내일은 저 집에서 먹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였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 7,8사람 모이면 돼지 한 마리 사서 잡으면 신부님도 뭐라고 안하셨어요. 일과시간 아니면.”

“저는 성당에서 그렇게 했고, 저희 형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텍스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출처 : 이용규, 양성필)

증언과 같이 금약 개척농가 입주자들은 서로의 집에서 모여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었으나 모임을 가질 이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임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개인농장은 24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마지막에 입주한 24호 입주자 고○○님은 성 이시들 목장의 직원 출신이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개척농가와 성 이시들 목장의 직원, 성당 신자와 두루두루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24호가 금약 개척농가와 성 이시들 목장이 맞닿는 위치에 존재했으며, 성당에서 개척농가로 들어오는 위치에 있었기에 24호에는 자연스럽게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집이 첫 집이니까. 성당에서 이렇게 성당 수녀님 오다가 첫 집이니까 “우리 집에 읍서”하면 우르르 다 와서. 우리 집은 또 TV를 제일 먼저 봤어요. 금약오름에 그 뭐가 안테나에서 제일 잘 나왔어. 다른 집들은 안 나와. 그래서 와서 TV보고. 저녁에도 드라마 보러 오면은 팔죽 끓여드리고 수제비하고 우리 집에 자꾸 왔죠. (그럼 보통 성당에서 모임 끝나고 나면 선생님 집에 모이는 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제일 첫 집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다가 “아유 집에 강 점심인데 뭐 먹코 뭐 먹코” 하면 “우리 집에 읍서” 그러면 나는 밀가루도 40KG 한포대씩 들여왔어요. 식용유도 10되짜리 한 통. 동성유지. 서문통. 거기 사장님 아니까. 저런 통으로 식용유도 한 통. 그렇게 하니까 오면은 수제비도 많이 해먹고, 많이 내가. 알아서해 하면은 재료 내놓으면은 뭐.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은 하고 할머니들은 TV 보고. 옛날 그 시절은 좋았죠. 요즘은 귀찮아서라도 안하죠 요즘은.”

이외에도 금악 개척농가에는 과거 흔히 존재하던 계가 존재했다고 한다. 당시 계의 종류로는 부녀회 계, 공동구매에 관한 계들이 존재했으며 계의 명칭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이 마을에서 개라든가 그런 것은 안했나요?) “옛날에는 했어요. 부녀회 계하고. 동문시장에 가서 접시도 세트도 사서 나누어 가지고 했죠. (계들이 이름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때는 그냥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활발했던 왕래는 TV가 보급되면서 그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TV가 24호에만 보급되었던 시기에는 24호를 중심으로 모였으나, 각 세대에 보급된 이후에는 각자 집에서 TV를 시청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왕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금악 개척농가의 입주자들은 이처럼 모임을 가지며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호~14호 입주자들은 가장 독특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1호~14호 입주자들은 금악북로를 따라 배치되었던 개인농장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개인농장에 비해 근접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임에 그치지 않고 당시 포장되지 않은 길이던 금악북로를 포장하는 공동 작업을 실시했다.

“신부님은 트랙터하고 기계만 지원해주고 우리 힘으로 집마다 자기 경계선 담 스스로 내놓고 그거 실어다가 우리가 직원으로 일할 때,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 가서 퇴근하면 저녁만 먹고 또 나가서 밤 11시~12시까지 등에 돌짐을 졌어요. 와서 트랙터에 실어주면 가서 또 자갈 께는 기계로 부려주면은 또 우리가 짊어지고 또 자갈 께서 만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개척농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닐거고 왜냐면 저기 저 떨어져 있는 개척농가도 있으니까.) 아 거긴 안했어요. 우리가 급하니까 열네 집. 14호까지. (그러면 1호에서 14호는 특별히 친하셨겠네요?) 네. 집마다 다 짊었고 그때만 해도요. 또 이제 는 길이 완성되면 이보다는 낫겠지 하고 희망을 조금 가졌지요.”

이처럼 1~14호 입주자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이외에도 개척농가 북동쪽에 위치한 22호, 23호는 서로 친분관계

가 깊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금악 개척농가라는 공동체 안에도 더욱 연관성이 높은 소규모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3. 입주자 특성과 개인농장 공간 특성의 관계

금악 개척농가 커뮤니티에서도 더욱 친밀도가 높은 소규모 공동체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 입주자들의 특성과 개인농장의 입지 및 개인농장 번호 부여 방식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간 특성 및 소규모 공동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우선, 금악 개척농가는 간선도로에 면한 정형적 필지를 지닌 개인농장과 비정형적 필지를 지닌 개인농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개인농장에 부여된 번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의 번호는 간선도로(금악북로)에 면해 필지가 정형적으로 구획된 지역 중 성 이시돌 목장에 가까운 동측부터 시작되어 14호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후 15~19호까지는 비정형의 필지 중 성 이시돌 목장에 근접한 순으로 부여되고 있다. 20호 개인농장은 금악 본동 내 농장 없이 주거용 테시폰식 건축물로만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후 21~23호 개인농장은 비정형의 필지로 더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1972년에 입주한 24호는 다시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악 개척농장의 종교 공동체와 개인농장의 입지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였다. 금악 개척농가에는 종교 공동체에 속한 개인농장이 많았던 까닭에 개척농가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농장들도 서로 모여 있지 않고 종교 공동체에 속한 개인농장들과 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농장 입지 선택에 종교 공동체에 속했는지 여부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표 5-3).

다음으로 출신지와 개인농장 입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금악 개척농가의 도외 출신 입주자의 출신지와 개인농장 입지의 관계를 고찰했다. 수도권 출신 입주자 3세대 중 2호와 5호는 금악북로를 따라 인접한 위치 있었으며, 물리적으로 떨어진 15호도 주요도로로 연결되어 통행이 원활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

라도 출신 입주자 3세대 중 4호와 6호는 금악북로를 따라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19호는 다소 떨어진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다. 강원출신 입주자 4세대 중 8호, 9호, 11호는 금악북로를 따라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22호는 거리가 떨어져 위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외 출신 입주자들은 일부 개인농장을 제외하고는 인접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입주선택에 입주 시기가 유사하거나 출신지 등 이전의 인연관계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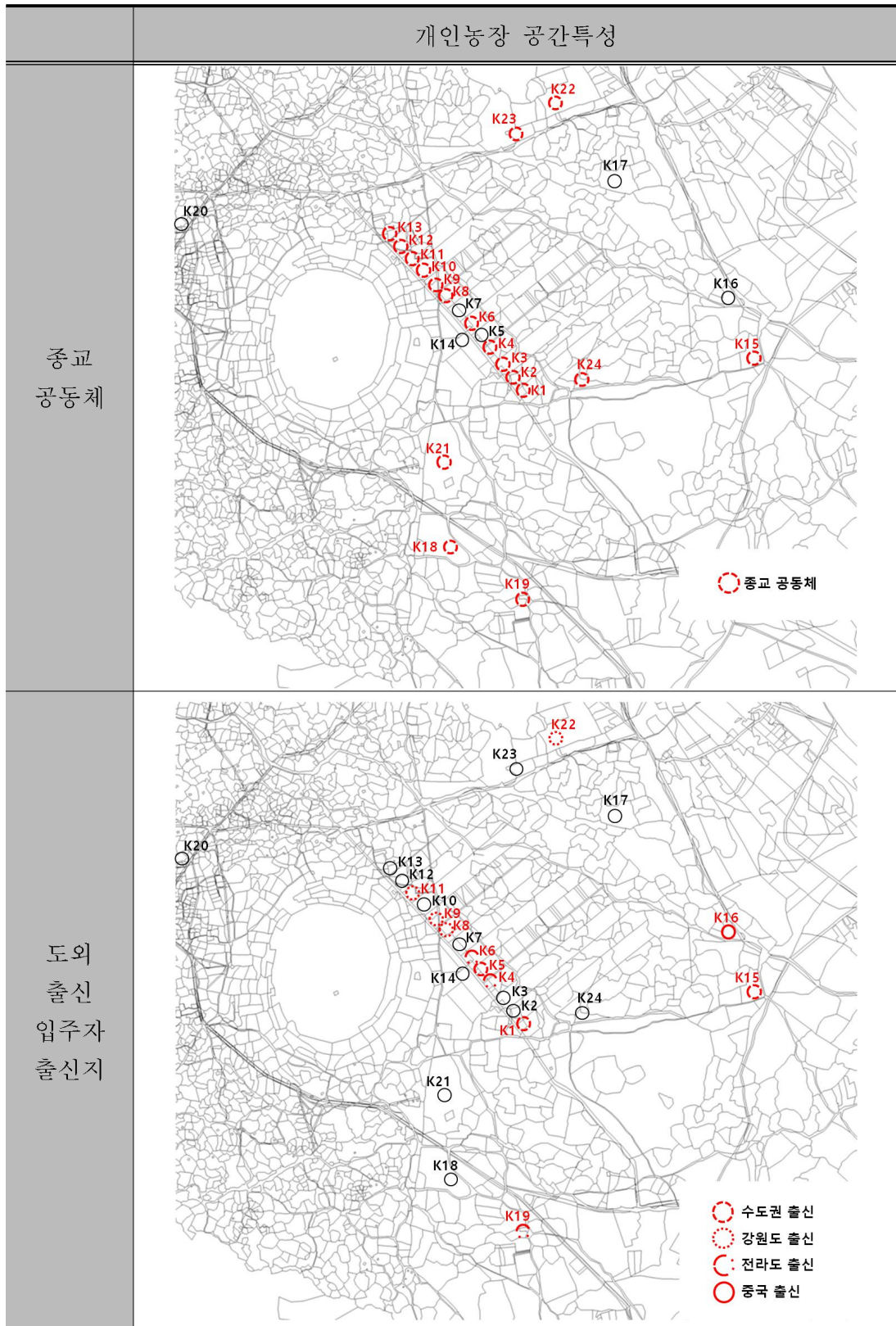
도내 출신 입주자들은 주로 금악북로를 중심으로 하여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수는 12세대 중 7세대에 달하였다. 또한, 금악북로에서 벗어난 개인농장들 중 24호, 21호도 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였으며, 멀리 떨어진 17호, 18호, 20호 중 18호는 21호와 인접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었다. 20호는 개척농가에 속해는 있지만 축산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금악 분동에 위치한 경우이기에 제외한다면 도내 출신 입주자들 중 17호 1세대를 뺀 나머지 개인농장이 모두 근접한 위치에 입지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내 출신 입주자들도 도외 출신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개인농장 입지 선택에 입주시기가 유사하거나 출신지 등 이전의 인연관계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5-3).

마지막으로 입주 전부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던 개인농장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개인농장 중 혈연으로 연결됐던 개인농장은 형제관계와 매형-처남관계였던 18호, 19호, 20호였으며, 이들은 모두 개척농가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역시 출신지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가 개인농장 입지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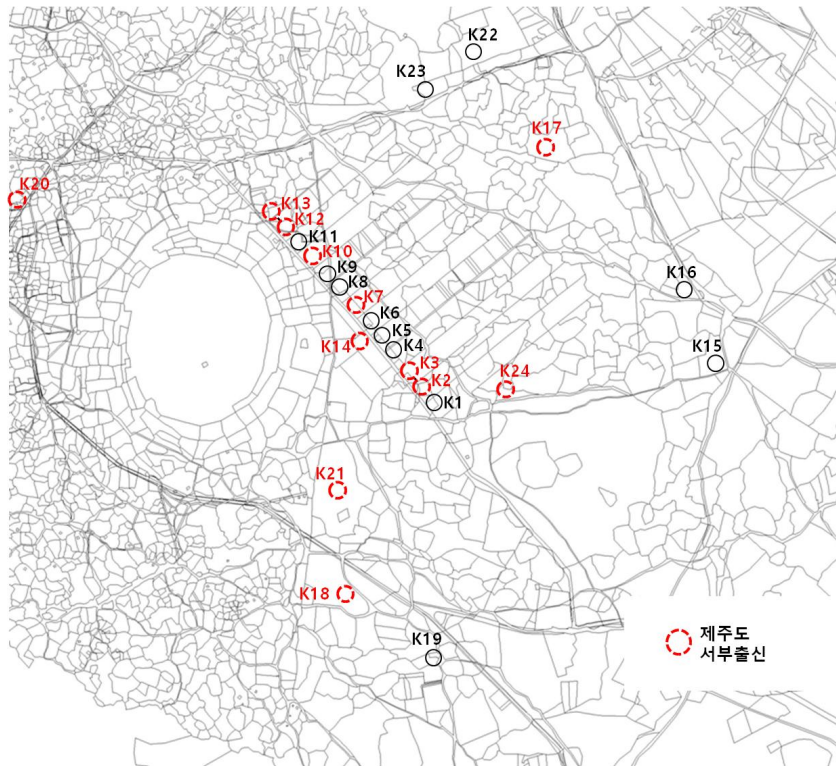
이처럼 종교 공동체는 개인농장의 입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출신지와 혈연관계는 개인농장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신지는 일부 개인농장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게 입지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혈연관계에 있는 개인농장들은 예외 없이 근접한 것으로 보아 혈연관계가 출신지보다 개인농장 입지 선정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금악 개척농가 공동체에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었다. 금악북로를 따라 위치한 1~14호는 금악북로 포장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을 정도로 높은 친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위치상으로 가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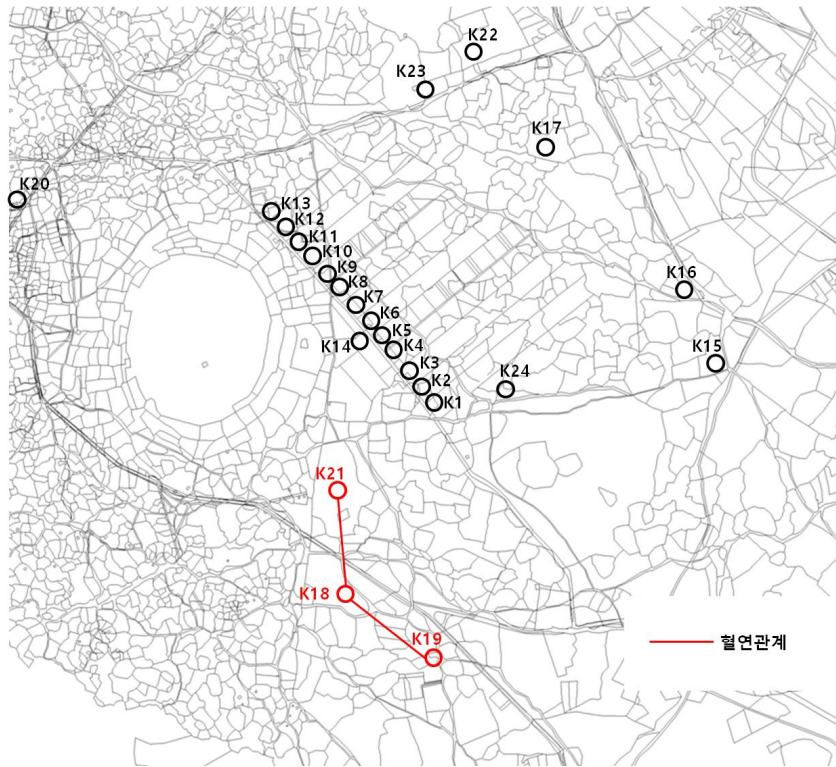
<표 5-3> 입주자 특성과 개인농장 공간특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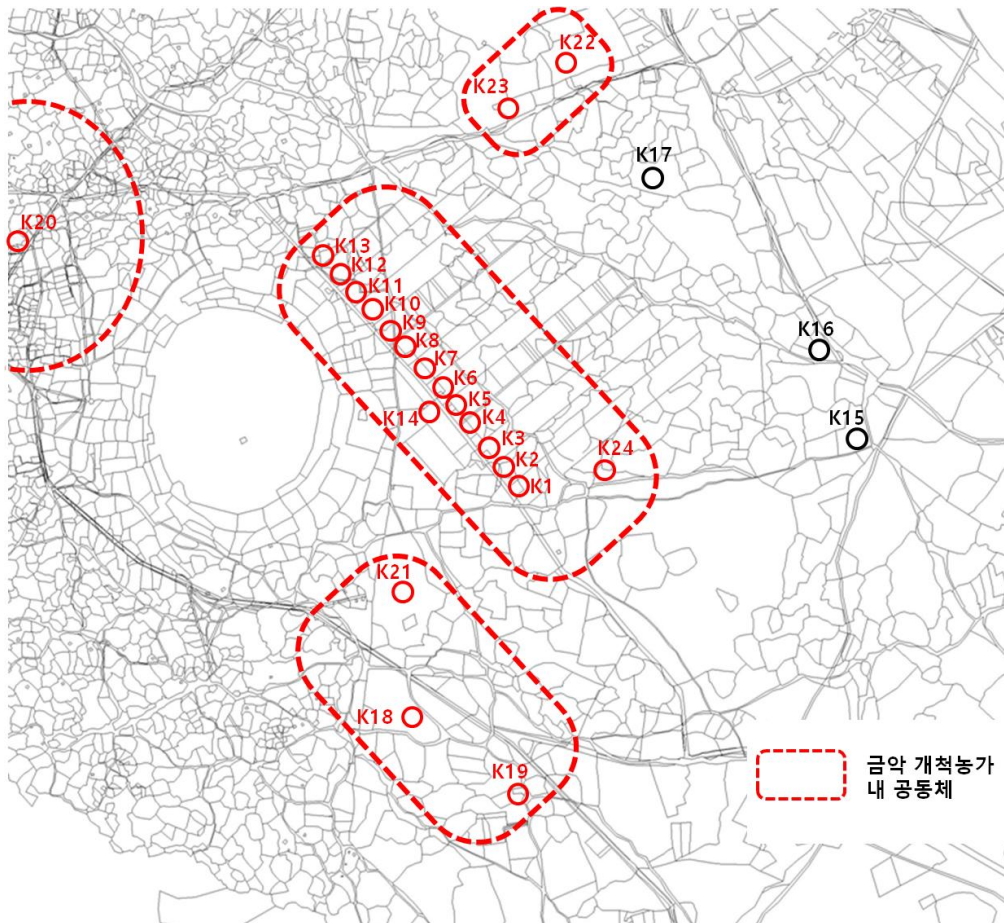
도내
출신
입주자
출신지



혈연
관계
입주자



고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24호도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에 위치한 22호와 23호는 특별히 친했다는 증언이 존재하고, 두 개인농장 모두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호, 19호, 21호는 위치상으로 가까우며 혈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20호는 거리가 먼 금악 본동에 혼자 위치하며, 개척농가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금악 본동의 공동체에 속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5-5).



<그림 5-5> 금악 개척농가 내 소규모 공동체

3. 소결

금악 개척농가는 개척농가 중 최초로 계획된 단지이며 성 이시돌 목장 인근에 위치하여 연관성이 깊은 단지이다. 또한, 가장 근대적 공간 구성 체계로 구성되었고, 지역 기반 공동체가 아니고 다양한 출신지를 가진 입주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등 개척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며 당시 핵심적인 기억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금악 개척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금악 개척농가의 기본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생활적 요소에 대해 고찰했다. 금악 개척농가의 주요 도로는 한창로와 금악북로였으며, 그 중 한창로는 한림과 연결된 도로로 그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도로이다. 그러나 한창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 한창로를 통해 출하되던 돼지의 상품성 하락까지 야기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마침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성 이시돌 목장을 방문하였고, 이 때 맥그린치 신부는 한창로의 도로 포장을 건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성 이시돌 목장 진입 중 차가 고랑에 빠지는 경험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들여 한창로는 포장도로가 된다. 금악 개척농가의 또다른 도로인 금악북로는 1~14호 개인농장이 위치한 도로였다. 이 도로 또한 포장되지 않은 도로였으나, 도로 포장의 필요성을 느낀 맥그린치 신부의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당시 작업의 주체는 1~14호 입주자들이었으며, 도로 포장에 필요한 돌은 개인농장의 울타리 역할을 하던 발담의 돌이었다고 한다. 이후 금악북로는 ‘맥그린치로’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통해 성 이시돌 목장 통근버스와 한림과 개척농가를 잇는 시외버스가 지나다녔다. 또한, 오토바이를 통해 한림을 왕래했다고 한다.

용천수가 많이 나는 해안가와 달리 중산간지역은 항상 물이 부족하였다. 특히, 금악 개척농가는 물이 많이 필요한 축산업을 주업으로 삼았기에 그 부족함은 더욱 심하였다. 이러한 물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금악 개척농가의 입주자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물통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물통은 노나진 밭이었다. 노나진 밭은 금오름과 금악북로 사이에 위치한 물통으로 물을 확보하

기 위해 맥그린치 신부가 인위적으로 땅을 파고 담을 둘러 만든 물통이었으며,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들은 물지계를 이용하여 물의 수요를 채웠다. 노나진 밭 다음으로는 세미오름에 위치한 세미소라는 물통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이외에도 밥셋물, 생사물, 건평 등지에도 물통이 존재했다고 한다. 당시 맥그린치 신부는 물을 중요성을 간파하여 여러 곳에 물통을 팠다고 한다. 물통으로 용수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자 북동쪽에 위치한 흠골에서 PVC 파이프관을 이용하여 용수를 끌어오는 근대적 방식을 이용하여 수요를 채웠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방문 후인 1976년 공공수도관이 연결되어 용수에 대한 수요가 해결되었다.

에너지원은 기존에는 나무를 이용해 난방하거나 호룽불, 대한 등을 이용하여 불을 밝혔다. 이후 공공 수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방문 직후인 1976년 근방에 전기가 한림과 금악을 통해 보급된 것으로 보이며, 도입 이후 일부 개인 농장에서는 전기장판을 이용하여 난방을 해결했다고 한다. 통신체계도 전기와 비슷한 시기인 1976년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대통령 기록물에 따르면 맥그린치 신부의 건의에 따라 전화 연결이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한림에서 금악까지 8km 구간은 관(官)에서 연결해주고, 금악에서 성 이시돌 목장까지 4km 구간은 성 이시돌 목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도입된 전화는 성 이시돌 목장과 금악 개척농가 사이에 있던 교환소를 통해 이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공동체 특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먼저 앞장에서 언급한 입주자의 특성을 더 나아가 알아보았다. 입주자 특성으로는 금악 개척농가에 속한 개인 농장의 세대주 성명과 출신지, 가톨릭 신자여부, 확인된 주요 특징 등이 있었다. 그리고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을 확인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금악 개척농가 입주자들은 서로 친밀하였으며, 나아가 인접해있던 성 이시돌 목장의 근무자들과도 끈질기게 어울렸다고 한다. 서로의 집을 돌면서 모임을 가지고 경조사를 챙겼으며, 인원이 많이 모이면 돼지를 잡아 회식을 하기도 했다. 개인농장에서도 입구에 위치하였으며 성당과 가까운 24호에서 많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24호는 입지도 사람들이 찾기 좋았으며 TV도 최초로 보급되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계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전 세대에 TV가 보급되면서 이러한 모임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한 금악 개척농가

에서도 1~14호는 독특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악북로를 따라 근접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던 1~14호는 금악북로를 포장하는 공동 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다른 개인농장보다 1~14호가 더욱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2호와 23호가 특별히 친밀했다는 증언이 있음을 통해 금악 개척농가 공동체 안에도 소규모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입주자들의 특성과 개인농장의 입지가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였다. 먼저 금악 개척농가의 입지와 동번호 부여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1~14호는 금악북로에 면해 필지가 정형적으로 구획되었으며, 성 이시돌 목장과 가까운 동측부터 시작하여 동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다. 15~19호는 비정형의 필지로 성 이시돌 목장과 근접한 순서대로 동번호가 부여 되었으며, 20호는 금악 본동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21~23호는 비정형의 필지로 더 외곽에 위치하여 동번호가 부여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주한 24호는 다시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종교공동체와 개인농장의 입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종교 공동체에 속한 개인농장과 그렇지 않은 개인농장이 섞여 입지했음을 통해 종교 공동체는 개인농장의 입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와 출신 거주자와 도내 출신 거주자가 속한 개인농장의 입지 확인하여 다수의 개인농장이 출신지가 같은 개인농장끼리 근접한 위치에 입지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신지가 개인농장의 입지에 영향을 끼쳤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입주자가 속한 개인농장의 입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혈연관계인 개인농장은 모두 매우 근접한 위치해 입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혈연관계는 개인농장의 입지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개인농장이 물리적으로 먼 위치에 입지한 경우가 존재한 출신지에 비해 혈연관계는 모두 근접한 공간에 입지한 것으로 보아 출신지보다 혈연관계가 개인농장 입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를 바탕으로 금악 개척농가 공동체에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었다. 금악북로를 따라 위치한 1~14호는 금악북로 포장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 했을 정도로 높은 친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근접하였으며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24호도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에 위치한 22호와 23호는 특별히 친했다는 증언이 존재하고, 두

개인농장 모두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호, 19호, 21호는 위치상으로 가까우며 혈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20호는 거리가 먼 금악 본동에 혼자 위치하며, 개척농가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금악 본동의 소규모 공동체에 속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VII. 결론

제주 중산간지역은 초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물이 부족하여 해안지역에 비해 취락이 발달하지 못했다. 더구나, 1948년 제주 4·3으로 인한 제주 중산간지역의 황폐화는 기존 취락의 멸실로 이어졌다. 1960년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커뮤니티의 수복이 당면과제로 인식되었다. 동시기 제주 개척농가 사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제주 중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구축을 모색한 사업이므로 중산간지역의 복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개척농가와 입주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척농가의 공간구성 특성과 입주자 특성, 공동체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척농가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주 개척농가는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금악 개척농가는 한림, 선홍 개척농가는 조천읍과 제주시와 간선도로로 연결되었다. 반면 월평 개척농가는 간선도로와 연결되어있지 않아 독자적인 생활권을 구성했음을 확인하였다. 금악 개척농가는 24세대의 개인농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금악북로를 따라 1~14호가 배치되어 있었고 15~24호는 1~14호를 둘러싸며 분포하고 있었다. 월평 개척농가는 20세대로 이루어졌으며, 간선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길을 따라 분포하지 않았다. 선홍 개척농가는 22세대로 이루어졌으며 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1967년 당시 금악 개척농가에는 43동, 월평 개척농가에는 38동, 선홍 개척농가에는 40동 등 총 121동의 테시폰식 건축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개인농장의 필지 획지 유형 고찰을 통해 금악·선홍 개척농가가 월평 개척농가에 비해 단지 형성 당시 체계적 계획 존재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인농장의 진입유형 고찰을 통해 금악 개척농가가 도로와의 연관성이 깊었고 월평 개척농가는 도로와의 연관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개척농가의 입주자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입주자들의 출신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어 개척농가의 종교를 고찰하여 금악 개척농가는 가톨릭 신자가, 월평 개

척농가는 비가톨릭 신자가 다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악 개척농가는 높은 비율로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이는 성 이시돌 목장과의 연관성 때문으로 확인됐다. 월평 개척농가는 非종교 공동체가 다수였으며, 이는 제주시 출신 입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非제주시 출신 입주자들은 종교 공동체에 다수 속해있었으며 이 또한 성 이시돌 목장과의 연관성 때문으로 확인됐다. 또한, 非제주시 입주자들 사이에 입주 권유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의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월평 개척농가에는 제주도 서부지역 출신 입주자들이 커뮤니티가 존재하였음에도 월평 개척농가만의 자립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금악 개척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금악 개척농가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 생활적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활적 요소들은 모두 한림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금악 개척농가는 한림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공동체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입주자 특성을 정리하고 공동체 활동을 고찰을 통해 금악 개척농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안에서도 금악북로를 따라 인접해있던 1~14호는 가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며, 22호와 23호도 인접한 거리로 인한 소규모 공동체가 형성됐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척농가 공동체 내 소규모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입주자 특성과 개인농장의 공간특성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개인농장의 입지와 동번호 부여는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인농장의 입지와 종교 공동체는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출신지와 혈연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금악 개척농가 공동체에는 가로, 혈연, 금악 본동, 인접에 의한 친분을 중심으로 한 고슈모 공동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1960년대 제주 개척농가는 최초로 형성된 금악 개척농가에서 배치와 단지계획 등에서 길을 중시하는 서구 근대적 공간구성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이후 월평 개척농가에서 제주적 특성에 대응한 변용이 발생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척농가는 출신지와 종교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이 모여 형성된 인위적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대를 느끼는 사회집단’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기능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커뮤

커뮤니티 내부에서 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로 분화되어 갔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입주자가 감당하기 힘든 물리적 스케일과 가혹한 제주 중산간의 기후 등으로 의도했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금악 개척농가 등에서 일부 커뮤니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척농가 내 개인농장(테시폰식 건축물)의 위치와 동번호 등 공간특성, 입주자 특성 및 커뮤니티적 특성 등 개척농가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에 관한 연구가 금악 개척농가에 비해 월평, 선홍 개척농가가 부족했던 점, 개척농가 커뮤니티의 체계와 인근 커뮤니티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점 등 향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개척농가는 제주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모여 형성하고 기능한 독특한 사례의 커뮤니티였다. 또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인근 한림 생활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척농가 커뮤니티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이주민의 증가로 새로운 커뮤니티의 등장과 기존 커뮤니티와의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커뮤니티의 공존을 위한 지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 논문>

1. 강한문(1969), 이시들 축산 개발사업
2. 김호선, 김태일(2000), 제주지역 근대주택의 특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공과대학 산업기술 연구소 논문집
3. 김상준(2008), 중간경제론:대안경제의 논리와 영역, 경제와 사회
4. 최영진(2010), 희망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아치’ 드러내기:자본주의 공간성에 대한 Harvey와 Gibson-Graham 비교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5. 황진태(2012),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 공간과 사회
6. 강만익(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
7. 박철수(2014),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주택의 상관성 유추, 대한건축학회
8. 권상철(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마을공동어장과 이시들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
9. 부혜진, 강창화, 정광중(2016), 제주도 중산간 꽃자왈 지대의 마을공동목장 운영과 방목활동을 통한 생활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0. 이용규, 양성필(2020), 제주 개척농가 테쉬폰의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1. 이용규, 김태일(2021), 1960-70년대 제주 중산간 개발과 단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시범단지와 개척단지’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12. 이용규(2022), 제주 주거용 테시폰의 실태와 공간구성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위 논문>

1. 김지수(2000),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 고관범(2005),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조건에서 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

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3. 이재광(2011), 커뮤니티센터 계획안-단절된 도시조직에 대한 건축적 대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4. 成慶(2013), 커뮤니티 지향성과 사회자본 연구 : 커뮤니티 지향성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최호석(2021), 제주 2중 외곽 테시폰 구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서적>

1. 제주특별자치도(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2. 김성오 외(2013),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협동조합 창업과 경영의 길잡이, 겨울나무

3. 양영철(2016), 제주한림 이시들 맥그린치 신부, 박영사

4.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18), 제주 상수도개발 60년사, 제주도

5. 이용규·양성필(2021), 성 이시들 목장 테쉬폰 생활문화 조사, 제주학연구센터

<자료제공>

1. (사단법인) 성 이시들 농촌개발협회

학술 성과

1.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 발표

부기홍, 이용규(2021), 금악 개척농가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3.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 발표

부기홍, 이용규(2021), 제주 개척농가 테시폰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4. 2021년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부기홍, 이용규(2021), 1960년대 제주 개척농가 테시폰 거주자의 커뮤니티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Jeju Pioneering Farms in the 1960s.

Boo, Ki-Ho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 Yi, Yong-kyu

This study was conducted on Jeju pioneering farms and residents. Pioneering farms are examples of restoring Jeju mid-mountain area devastated by St. Isidore Farm and Father McGlinch, promoting economic independence of Jeju residents, and further pursuing sustainable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ve memories of pioneering farms that are on the verge of disappearance due to the aging of tenants, and to reveal the true nature of pioneering farms that have not been revealed based on this. To this end,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pioneering farms, complex characteristics such as distribution and status of private farms, and layout characteristics through land compartment type and entry type were studied through aerial photo analysis and field survey.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enants were studied for Geumak and Wolpyeong pioneer farms through interview surveys and observation surveys of residents and officials of pioneering farms. Subsequently, community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for Geumak Pioneer Farms, which were planned for the first time among pioneering farms and where community members with core memories are maintained. The living factor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Geumak pioneer farms were confirm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nant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farm space characteristics was confirmed.

Through the study, a Western modern space composition method that emphasized the road in the layout and complex planning was attempted in pioneering farms, bu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by Jeju's characteristics was confirmed lat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munity was formed and functioned even though an artificial community was formed by gathering tenants with different hometowns and religions.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reveal the reality of pioneering farms through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ocation and arrangement of private farms in pioneering farms, resident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such as community activities.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knowled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existence of the community in a situation where the emergence of new communities and disconnection from existing communities are emerging as social problems due to the increase of migrants.

- 부록

- 음악개척농가 워크숍 녹취본

워크숍 일시 : 2020년 08월 19일

참석자 : 4호 2차입주자 박○○님(80세, 남성)

9호 1차 입주자 박○○님(82세, 남성)

(사진보며)

A : 이거 뭐야, 2002년도?

A : 02년도? 우리집이구만. 예 요고보니까 우리집이야.

Q : 많이 익숙한 집이네.

A : 그때 심었나? 아.

A : 우리집이야.

A : 우리가 84년도에 지어 가지고 요것이 2년만 걸렸으니까. 하하

Q : 요거는 왜 있었습니까? 굴뚝은.

A : 이거 굴뚝인데, 저 한림에 수직사.

Q : 아닙니다. 이거 룡테시폰.

A : 룡 테시폰 같아.

A : 이 이 굴뚝은 지금 사저관 뒤에. 옛날 따블 저 테시폰 그것도.

Q : 예, 여기 따블 테시폰이 사진 있는데... 앓으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시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혹시 생각이 앓으십시오.

A : 응?

Q :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앓으십시오. 보시면은 개척농가 같습니다. 개인농장

A : 히히별판이라...

Q : 예, 예.

A : 근데 개인농장에 따로 짓고 그런 것이 없고, 이거는 연속으로 보였을텐데... 다른 집이잖아.

Q : 혹시 아랫단지, 아랫단지.

A : 흥○○이 살던집이거나 아니면 저 저 나○○ 살던 집 이렇게 길 가운데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

Q : 아래 단지에 그 위에 있는데 명봉목장, 명봉목장 바로 밑에
A : 그러니까 나○○라고...
A : 맞아 명봉 보건소라고 그 옛날 홍○○이 살았던디... 그런거 같은디 잘 모르
지.
Q : 예. 명봉 목장 거기 앞에 하나 있더라구 마썸.
A : 아까 저 나○○가 산 것이 홍○○이가 먼저 살다가 나○○가 살은 거예요.
A : 응.
Q : 나○○가 아 여기 말씀하시거예요?
A : 응.
A : 이것이, 맞아. 그러면 몰라도...
A : 들어가는데 당시 나무도 쭉대낭도 안 컷잖아요.
A : 어. 없었지.
Q : 저... 목장이고, 축산단지. 거기우다. 이 집이.
A : 이것도 들판인데 그때 당시 지금은 나무가 컷지만은, 나무가 없을 때니까.
칠십, 육십 구 년도, 칠십 년도에 나무 쭉대낭들 심고 했던 것들이예요.
Q : 예. 여기 인제 따블 테시폰.
A : 예, 따블 테시폰.
Q : 여기도 굴뚝이 있었나요?
A : 여기 지금 요 앞에 여기를 막아가지고 돼지를 길렀어요.
Q : 운동장?
A : 여기 운동장. 여기. 어이구. 여기서 사료 2,000장까지 여기서 이고 여기까지
가서 다 썰어요. 사료 창고로 만들었으니까.
Q : 앞으십시오. 여기는 공간이 하나로 뚫려있었습니까?
A : 여기는 막혀있었어요.
Q : 막혀있었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지었나요? 왜 따블로 지었을까요?
A : 아마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거 닐아요. 여기서
중간에 엄청나게 다 두꺼운 벽이에요.
Q : 아 여기 벽으로 되어 있구요.
A : 예. 벽에다가 힘을 넣은 것들이라구요.

- Q : 네... 이거는 돈사로 쓰인거구요?
- A : 지금은 다 내렸어요.
- Q : 아. 그러니까 옛날에.
- A : 아. 옛날에 돈사로 썼어요.
- A : 요고는 운동장.
- A : 운동장. 앞, 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 Q : 요고는 무슨 공원이.
- A : 요고 밑에 지금 도로.
- Q : 요건 누가 사셨습니까?
- A : 요 관리자들이요.
- Q : 아. 요 집의 관리자. 직원 숙소로 쓰신 건가요?
- A : 예. 여기가 지금 돈사, 돈사가 있었어요. 요 돈사를 관리해준 관리자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 Q :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사셨던... 가족숙소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신 건 아니고, 직원분들이 사신 건가요?
- Q : 직원 가족 분들이....?
- A : 예. 직원 가족들이...
- Q : 예. 요게 인제 벽이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 A : 예. 벽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 무게를 그 벽에다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요 물이 비가 오면은 물이 양쪽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구.
- Q : 요고를 이렇게 지은 이유는 재료를 아끼려구?
- A : 근데 요 밑에 여 돈사 이게 지금 칠주 쪽에 이 돈사가 두 동 있었어요. 두 동 있었는데, 여기 돼지 이빠이 차가지고 여기서 사료를 내다 메기고. 또 부두에 원곡이 들어 오면은 차로 실어다가 여기다 가져다 다 재고.
- Q : 아. 여기다 사료도 보관을 하신 거예요?
- A : 아휴. 원곡들 이 이 창고가 아마어마하게 길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그 천장까지 닿도록 이빠이 쌓아봤어요.
- A : 아. 저 원곡도 쌓아봤어?

A : 김문소 있었던데 아니냐. 저기.

A : 아이, 장○○라고.

Q : 룡테시폰 공사는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더블 테시폰 공사. 공사할 때 사람들.

A : 그 사람들은 모르고...

Q : 모르시죠? 네, 네. 그럼 혹시 이게 사료공장인데.

A : 예. 사료공장.

Q : 네. 이게 원래 6개 있다가 5개만 남았더라구요.

A :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지요?

Q :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6개 있다가 하나 끝에 있는 것을 잘라서 없어졌더라구요. 혹시 왜 없어졌는지 모르시죠?

A :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두 동 있던데.

Q : 아, 예.

A : 그나마 없어졌나?

A : 예

Q : 다음에 요게 이제 직원 7동짜리 지을 때 4동 먼저 지은 사진이거든요.

A : 7테시폰?

Q : 7테시폰 지을 때.

A : 그러면 요, 요 쪽에서 정문에서, 저 쪽에 젊음의 집 들어간 그 오른쪽 편으로 지을 때.

A : 이게 요것이 한 세대, 요것이 한 세대, 그래서 두 세대.

Q : 나중에 요걸 잘라서 몇 세대가 살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A : 이 저희들이 와서 볼 때는. 여기 살림을 살던 사람들. 두 세대가 맞는 테시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기 칸막이를 가운데 해 가지고 2층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8명씩 생활을 하게...

Q : 아, 이 안에서요?

A : 예. 그렇게 해놓았더라구요. 또 가운데 저 들어가는 입구 난로를 피워서. 겨울에.

Q : 요게 이제 목장장님 숙소인 것 같고, 요게 이제 룡 테시폰인거 같고. 아, 7

- 개 테시폰이구요.
- A : 그렇죠. 이게 7테시폰이면, 요것이 김동호씨 살던 데.
- A : 음. 저 안에. 요게 지금 돌집.
- A : 이리로 가면은 룡테시폰 있고.
- Q : 예. 이게 일본군, 무슨 뭐 일본군 기지로 이용한 건가요?
- A : 지금 이거 다 걷어 불고. 여기 지금 돌집으로.
- A : 이게 그거라?
- A : 예, 그거요. 돌집. 그 뒤편에.
- Q : 취사장으로 쓰였던 자리라고.
- A : 지금 숨비소리 자리라고?
- A : 예, 예. 요고 김○○씨 살던 집이면은. 요기 모다풀이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
- Q : 그러면 지도에서 어디?
- A : 이리로 길이 나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다.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숨비소리 자리. 이것도 직원 숙소였으니까. 이게 방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예.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이게 그거면은.
- A : 여기서 술도 팔다가, 소비잡도 하고, 뿔도 하고, 예비군 총 만드는 공장도 하고.
- A :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어. 길이. 요기는 길이 이렇게 나서. 영선반도하고...
- A : 그 집 한 대, 여섯 번 변경했구만.
- A : 지금은 숨비소리라고.
- Q : 예
- A : 그때는 나무들이 없으니까 평지는 평지였었네.
- Q : 그 요게 저기 룡테시폰 만들 때 사진인데, 요런것들 혹시 이 때 계셨었나요? 요거 만들 때? 안 계셨나요?
- A : 이~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중간에 고속정씨 집 지을 때는. 예, 나무를 휘어서 거는 것은 구경은 했어도~ 아마 이렇게 힘을 줘야지 공사를 했을 거예요.
- Q : 요 집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A : 예 요고. 저, 저 이○○씨라고. 이거 오늘 이거 와야 할 분. 예, 그 분.

Q : 아, 이분이 이○○씨구나. 예, 6호.

A : 84년도, 86년도에 찍은 사진이겠구만. 그러면 저게.

A : 아, 84년도에 찍혔으니까.

Q : 아까 86년도요?

A : 예, 아까 그 사진이 86년도 사진이에요.

Q : 요고는 누군지 모르시죠? 여기는. 아니, 이 집.

A : 우리 동네 사람 아니에요.

A : 딱 동네 사람이라든가.

Q : 제가 70년대 사진이 있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틀며) 여기에 건물하나 있었는데. 요것도 직원 숙소.

A : 예, 직원 숙소. 봉승 위에 살던 테군.

A : 산을 봐야돼. 산을.

A : 이게 여기... 이게 매점 자리고.

A : 여기 정문 들집 아니요?

A : 어어, 매점 자리. 여기 이런 게 있었나?

A :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A : 길 건너편에 요기 있잖아.

A : 아니. 그것은 7테시폰 들어가는데고. 예, 7테시폰 들어가는 자리고. 요것은 저 로타리에. 길 건너 테시폰 하나 있었어요.

A : 모 이사 살던데.

A : 아니요, 고 누구요. 저 고 하르방 살았잖아요.

Q : 이걸 지금 교환입니까?

Q : 이걸 교환이구요.

A : 교환대, 교환대. 맞아. 교환대. 응.

Q : 여기는 교환대는 사람이 살지 않았나요?

A : 여가 교환대지요? 동그란. 바로 위 길 건너 여기 저. 고하르방.

A : 고하르방이 테시폰 1호에서 살았는데?

A : 아니. 여기서 살았어요.

Q : 홍씨 아니꽈, 홍씨?

A : 고씨. 예, 맞아요.

Q : 홍씨 아니꽈, 홍씨?

A : 홍○○이라 해서 난 홍○○이라 아는데. 근데,

Q : 예, 친구네 집인데.

A : 예, 예. 맞아요.

Q : 홍○○네. ○○네.

A : 황○○가 여기서 살고, 여 짝 방에는 그, 저, 그 키 큰 고힌르방 안 있었수
과. 저, 저 모다풀에.

A : 난 내가 저기, 고힌르방 할 때는 테시폰 1호에 살았었어. 거기 살다 글로
간지는 몰라도. 응. 이것은 교환대가 맞네.

A : 고힌르방 오기전에. 저 그 누구냐. 옛날에 그, 저.

A : 저기 ○○이 살던 데 아니고? 거기 두 개가 있었어?

A : 이견 정물 앞이구. 저 뒷산 이추륙.

Q : 마을길, 금악에서 이제 이시들 가는길. 이게 전신하고.

A : 이게 우리, 우리 마을... 어, 아닌데?

A : 전 번, 다시 한번 아까 거.

A : 우리 동네 이렇게 길가에 돌맹이 쌓아놓은 집은 없었는데?

A : 아니 금악, 금악. 금악에는 저렇게.

Q : 금악에서 이시들로 들어올 때 사진이랍니다. 길 포장할 때. 아. 금악 그 밑
에 동물 동물병원 그쪽 위쪽 같습니다. 지금 신협 위에. 신협 위에. 쪽 올
라오는 길.

A : 방앗간 자리인가?

A : 아. 고힌. 고힌 방앗간 자리가 모양이네. 응.

A : 그러면 신협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쯤에는 동물약국이 있지.

Q : 그러면 테시폰이 여기 있었겠네요?

A : 그렇죠. 테시폰 여쯤에 있었죠. 아, 방앗간이면 몰라도. 응.

Q : 요거는 전화인지 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

A : 전화는 뭐 나오고 들어왔으니까.

A : 그때 당시 전주시 있는 것 보니까 금악 본동은 본동인데.

A : 응? 금악 본동엔 이런 거 없었어. 이건 금악 아니야 금악은 아닌 거 같애.

Q :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개척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확대 줘.

A : 옛날 이거 저 뒷길 이거 고압선 봤잖아요. 옛날에.

A : 아. 테시폰 있네. 요거네. 알 수가 있나. 하하. 이래 봐. 선이 이렇게 있는 데가.

A : 조금만 올려보세요. 옛날 전라도 살았던 집이고, ○○이 아버지 살았던 집 아니요?

A : ○○이 아버지는 길가야. 지금도 길가지. 큰 길가. ○○이네?

Q : 요기가 길이 아니었을까요? 요렇게 길?

A : 요 뒤를 좀 보게. 산 같은거.

Q : 예, 이 한라산이 보이구요. 그러니까 14호에서 13호 쪽에서 보고 계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A : 저 저 옛날 ○○이형 살았던 저기 아니요? 한라산 보이면은?

Q : 여기도 테시폰이 있습니다. 여기도 테시폰 있고.

A :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Q : 예, 뒤에 한라산 보이고, 전신주 있고,

A : 여기 이상하네,

A : 글썸. 아니 근데 옛날에 쪼그마한 돌맹이 집에 슬레이트 얹은 집은 옛날 ○○이 아버지 살던 집. 근데 거리가 그때 당시 나무?

Q : 70년대입니다. 70년대

A : 70년대요?

Q : 네, 네. 70. 한 새마을 운동 때 사진입니다.

A : 아. 그때 찍은 거 가져온 거예요?

Q : 예, 예.

A : 이 산이. 이 산이 우리 동네 산이 아닌?

A : 우리 동네 뒷산은 아니요.

Q : 예.

A : 산에. 더군다나 이런 전봇대가 두 개씩 지나가는 건 우리 동네 없었어.

Q : 75년도에 민방위 할 때 이게 저기 정문 목장이라 되어 있구요.

A : 이게 맞아. ○○이 살던데.

A : 박과장이야?

A : 박○○씨?

A : 박○○씨? 긴 것도 닳네. 이것이 매점 자리.

A : 그 때 직원도 많고, 몇 백명 되니까.

A : 그 때 도청 직원보다도 숫자가 많았다고 그랬으니깐.

A : 이거 지금 스몰 테시폰들.

Q : 이거는... 어딴집이냐?

A : 이거는 김○○씨 집.

Q : 김○○씨 집이고.

Q : 예, 예. 동영상으로 한 번 볼까요? 옛날 영상도 있더라구요. (영상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한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테시폰입니다. 요게 이제 7테시폰 완성과 그 앞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목장장님 댁, 지금 남아있는거죠?

A : 네... 이게 테시폰이고

Q : 근데 이분은 서양분 같으신데 이렇게... 66년도거든요. 이게.

A : 그 때... 고문관이 그 때 있었나? 이거 있을 때?

A : 예... 이거 돌볼 때 있었어요.

A : 이게... 맞아. 7테시폰. 이게 스몰 테시폰 아냐?

Q : 여기 이제 7테시폰인거 같은데. 이 두 번째 거가 6번 테시폰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A : 지금 여기 지금, 마감하고 있구만. 마지막.

Q : 66년도에 요거 아일랜드에서 와서, 아일랜드에서 이 다큐를 찍어갔던 겁니다. 혹시 요때 기억은 없으시죠?

A : 일곱개 중에 하나만 색깔이 하얗다고요?

Q : 네, 두 번째 것.

A : 아, 그러면 될가 하면. 비가 세니까 임신부님이 그때 이 에폭시라는게 나왔

어요. 에폭시 기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7개 중에... 몰라. 하나만 시범적으로 했을는지 몰라. 색깔이 다르다니까. 에폭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때 서양 사람 왔었어요.

Q :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색깔 이것만 달라요.

A : 그러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Q : 요게 이제 처음 지은 창고. 시범으로 하나 지었던 게 후문 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룬테시폰 뒤쪽에 이렇게. 룬테시폰 뒤는 이렇게 직각이 생겼더라고요.

A : 네 마리 이렇게 채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Q : 여기 이제 농장...

A : 그럼 에폭시가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도인지는 안 나오지? 아까 그거.

Q : 66년도입니다.

A : 66년도요?

Q : 네, 이 영상이 66년도에 찍은 겁니다.

A : 아, 그럼 에폭시가 아니...

Q : 아닌가요?

A : 66년도는... 거의 70년대에 저 에폭시가. 너무 강해가지고. 금 간 곳에다 칠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A : 여기 우리 아버님.

Q : 아... 아, 그러신가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A : 뭐, 금악 쪽일거예요. 아버지 다른 데는 안 가셨으니까.

(사진보며 대화 시작)

A : 언제 찍은 항공사진인지는 몰라도...

A : 79년도래. 79년도.

A : 79년도?

A : 아닌 거 답아...

A : 여기는 연수원... 그리고 우리 동네 가는 길이고. 요거 새미소. 지나가는 길.

A : 1, 2, 3, 4. 그 다음 시내. 맞아?

A : 예, 맞아요.

A : 그니까 땅이 넓었지.

A : 그러니까 밑에 하고 우리 동네하고 이렇게 딱 가로지르면은 최소한도 한 3,4천 평은 차이가 나겠네.

A : 만 팔천 평 밖에 안 될거라? 여기?

Q :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호. 그 다음에 14호. 그 다음 15호. 16, 17. 그 다음에 18이 여기 있는 것들인가요?

A : 18이 저기 저...

A : 아니, 아니. 저기 홍○○.

A : 홍○○~ 아... 그러면 요기로 내려가는 길. 요 쪽으로 빠질 건디.

Q : 요게 18호요?

A : 저기가 하난가?

Q :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A : 이름이 뭐냐.

A : 그 저... ○○이. 양○○.

A : 양○○이. 부인이 홍○○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럼 여기 하난가?

A : 예, 그거 하나. 테시폰은 그거 하나고.

A : 그러면 17, 18. 19가 이○○, 전라도.

A : 전라도.

Q : 여기 19.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어요.

A : 두 개였어요?

Q : 세 개가 여기 있었어요.

A : 이것이 금악봉 밑에... 그러면은...

A : 그것은 모르겠네? 거기도 있었다고요?

Q : 네. 20호 있었어요. 여기 길 들어와서.

A : 분노 처리장 쯤 되는데?

A : 글썄. 그 부분인데.

Q : 그럼 여기 18호고, 여기 19호.

A : 김○○이가 20호가?

A : 아, 본동에. 본동에도 하나 있는데.

Q : 그니까 이게 19호가 맞으신거죠? 이 삼각형.

A : 거기 김○○씨... 테시폰 있었지? 거기에.

A : 벨○○. 요거 벨○○ 집이구만.

A : 김○○. 이름은.

Q : 김○○씨고. 요거는 테시폰이...

A : 그 테시폰은요, 도중에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못 봤어요.

Q : 그러면은 여기 마을에 있는 게 이제 20호.

A : 예, 이제 김○○씨라고. ○○이가.

A : ○○이가 동생.

Q : 혹시 그러면은 21호부터 23호까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A : 24호까지 왔으니까. 중간에.

Q : 세○○님이 24호거든요. 21, 22, 23호가 없어가지구... 혹시 이 위쪽으로는 없었나요?

A : ○○이형네가 테시폰은 없었어도 호 수가 있었나?

A : 홍○○이 살았었던 데가?

A : 아니. 그건 홍○○이 살은 데고.

A : 16호, 17호고 한데요, 거기까?

A : 16호. 여기 분도네, 성일이네, 모시네, 여긴 성식이형. 16, 17. 여기 이름이 3호 이름이랑 같애야요. 같은 사람. 이 농장, 너무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니까... 그러면 저게 20, 21... 아마 그러면은 테시폰은 없었어도...

Q : 저기 그러면, 여쭙보고 싶은게... 제일 먼저 생긴 게 직원 숙사... 개척농가가 먼저 생겼습니까?

A : 개척농장이 먼저지.

A : 집은 동시에 세워졌던 거 닮아요. 저기 7개 텍쉬폰이나 농장 거기나. 같은 시기에 세워진 거 닮아요.

Q : 비슷한 시기에... 요거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룡테시폰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더블 테시폰 세워진 순서가 맞습니까?

A : 우리가 67년도에 왔을 때는 다 들어서 있었어요.

Q : 그 저기, 옛날 사진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 격납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 없나요? 비행기 격납고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A : 내가 볼 때는 호수 같아.

A : 여기 물구덩이였다. 물구덩이. 물웅덩이. 여기 물이 저장이 되가지고 미꾸라지 엄청나게 많았어. 여기 이 자리가 생수 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올려가지고 동산에 올려서 물을 주고...

Q : (동영상 자료)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산 뒤에 격납고 같은 게 하나 보여 가지구요. 자세히 보시면 이 신부님 뒤로 까맣게 점이 있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비행기 격납고처럼 생긴게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동굴 같기도 하고, 네.

A : 여기 조금 확대해 보세요. 우리 동넨가 보게. 우리 동네 같지는 않아. 신부님이 어디를 가서 찍었을지도 모르지. (웃음) 그리고 이게 거기 격납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Q : 네. 알겠습니다.

(영상 자료 확인하며 천천히 대화.)

A : 70년대에는 관광객이 무척 많이 왔어요.

Q : 이거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A : 그 저 테시폰 옆면, 벽을 보니깐 거 우리집 닭기도 하고. 다 똑같이 생겨 놓으니까... 똑같애. (웃음.)

Q : 알겠습니다...

Q : 혹시 여기가 돈사... 낮은 돈사.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깐 여기가 축산단지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옛날에 축산단지 올라가는 길. 여기가 우유부단.

A : 여기 연수원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A : 2단지. 2단지.

Q : 여기가 축산단지고. 여기가 돈사. 제가 맨날 학교 걸어 다닐 때 여기가 돈사였거든 마썸. 여기가 스몰 돈사.

A : 어어 후문 뒤에. 맞다. 요것이 2단이 뒤이고.

Q : 그럼 요것도 개척농가였나요?

A : 아니 아니, 이시돌 목장

Q : 예, 목장. 이시돌 목장이고.

A : 이때는 이쪽이 1단위, 2단위. 이렇게 했었거든요.

A : 2단위. 단위별로. 그리고 여기 스펀 테시폰 여기는 또 3단위. 그래서 양 쪽
에서는 생산하고. 돼지를 생산하고. 여기서는 비육하고. 그랬어요.

Q : 그럼 더블 테시폰에서는 뭐하신거예요?

A : 거기도 비육 돈사로 들어가요. 비육돈사에 포함됐어요.

Q : 그럼 여기 스펀로 돈사가 있었다가...

A : 그 돈들 발정나면은 여기서.

Q : 아 그 칸칸이 있드라고?

A : 그 칸칸이 돼 있던 데는 여기 아니?

A : 아 거기서 모았다가 임신한 거 확인하면은 갖다가 넣었지.

Q : 제 기억으로는 돼지들이 여기서 칸칸이 갇혀 있었어요.

A :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신 확인이 되면은 여기다가 차근차근...

Q : 아. 임신을 하니까 따로따로 놓았던 거구나. 모아 놓지 않고.

A : 그 때 요 짝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돈사들은... 나는 못 본 거 닮아.

Q : 여기는 가서. 이쪽에 약간 커브가 있고.

A : 여기가 현재 우유부단.

Q : 아 우유부단 여기 아닙니까? 네. 우유부단 지나서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가.
근데 테시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 : 여기 대나무 숲이네.

A : 대나무숲? 그러면 지금 커피집이 여기라?

Q : 네, 그렇죠. 우유부단 아래 있는 커피집이 거기죠.

A :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뭐가 있었다.

Q : 저쪽으로 가서 영보 목장이 저 밑이고.

Q : 여기는 아까 관리자 숙소라고 그러셨나? 더블 테시폰?

Q : 더블 테시폰이 아니고.

Q : 여기가 쌍둥이네 살지 않았습니까? 쌍둥이네. 강씨.

A : 이시돌 정문에?

Q : 아니, 교환.

A : 교환대? 여기 더블 테시폰 자리 같네? 여기 밑에 테시폰 옛날 그 저... 응 맞아. 강○○씨라고.

Q : 강씨, 강씨. 우리 친구가 동생이고. 오빠가 쌍둥이거든요.

Q : 어, 그러면 직원 숙식으로...

Q : 그 맞은 편에 있는 거에는 뭐 있습니까?

Q : 거기가 구제주의 형님이 살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여기가 쌍둥이네고 이 뒤에가 그 맨날 우리 성당에서 부활절 행사하면 그 형님이 거의 주도해서 행사를 했었던 거든 마썸. 아,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네. 그 형님이 거기 살았고. 앞에가 쌍둥이네 살고. 근데 그 뒤의 건물은 잘 모르겠네.

Q : 근데 궁금한게... 왜 숙소가 안 모여 있고 저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A : (웃음) 나 생각에는 처소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Q : 네... 그 교환소 옆에 있는 테시폰에도 누가 사신 건가요?

A : 그 전에 흥... ○○이 살았었지. ○○이. 테시폰 교환대 옆에. 7테시폰 가기 전에... 이게 요양원이고. 요기 있었지.

A : 성하르방. 그 저저 자기 딸 뭐도 하고.

A : 성하르방 어디서 살았어?

A : 여기서 살았지.

A : 테시폰 안 살고?

A : 요기 요 돌집.

A : 지금 있는 돌집? 매점 자리?

A : 매점 자리 말고. 이 뒤편에.

A : 또 있었어? 어어. 그건 잘 모르겠네.

A : 옛날엔 이 뒤가 서울 사람들 농장 아니여. 이 모다풀 이쪽.

Q : 저기 옆에 있는 테시폰 양식은...

A : 여기 이시돌 농장이 아닌 땅들이 좀 있었어요.

Q : 거기엔 누가 사셨나요?

A : 여기 이기선씨. 아까 얘기 했던.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 테시폰. 여기 살았어요. 지금도 있다 그러네?

Q : 네네.

A : 지금요? 거기는 이것이. 웅덩이가 맞아요. 우리 여기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랬거든. 지금도 여긴 있어요. 여기는 돌로. 이 정도 되게 샘물이 나와요.

Q : 그럼 다 직원 숙소로 사용하신 거네요? 이쪽에 있던 것들. 여기에는 누가 사셨나요?

A : 여긴 후문이네. 여기 옛날에 ○○이형 여기서 살기도 하고.

A :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 산거라?

A : 예. 여기서 소비 조합 했지요.

Q : 여기는 누가 사셨나요?

Q : 그건 테시폰 아니에요.

A : 이거는 들집인데. 아까 숨비소리 얘기한 데.

Q : 숨비소리 거기도 테시폰인가요, 그러면?

A : 거긴 아니.

Q : 아... 저기 뭐냐. 우유부단에는 누가 사셨어요? 우유부단 있는 자리.

A : 그 테시폰에 거기도 직원이. 지금 있는 거?

Q : 네, 네. 양쪽으로 두 세대가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A : 네네. 요 테시폰 서 있죠?

Q : 네네.

Q : 테시폰 하나 짜리는 거의 직원분들이 사셨네요?

A : 전부 다 직원이죠.

Q : 그렇죠.

Q : 여기 이거는...

A : 저희가 그것은 못 봤어요. 1967년도 후로는.

Q : 혹시 그러면은 21호, 22호, 23호는 왕래가 없으셨던 건가요? 아까 20호까지는 기억하셨잖아요? 금악 마을에 있는거. 그거 말고는 그러면 테시폰으로 지어진 개척 농가는 없었던 건가요?

- A : 저기... 호수로 들어가도 테시폰은 없었거든? 그 사람들 같애. 고○○이라고
 개가 어디쯤 되냐 하먼은...
- A : 고○○이 그 농장. 옛날에 농장 바로 그 옆에 아니여?
- A : (지도 확인) 이쪽에 그냥... 회원이죠, 회원. 회원들이 농장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나○○가 여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친하게 지냈었거든.
- Q : 옛날에 테시폰 비슷한거 흔적이 있긴 했거든요. 옛날에 테시폰 같은거 60년
 대에 있더라구요. 아니었나요?
- A : 그냥 돌로 지은 집 같애. 테시폰은 아니고. 테시폰은 여기까지 있었어. 고○
 ○이, 전○○이.
- A : 요것이 지금 돌집으로. 전성식이 살던 집이죠?
- Q : 네네.... 고○○씨, 전○○씨. 21, 22. 뭐 이런식으로 있었던 거죠? 23호가 없
 습니다.
- Q : 이 쪽에 하나 없었을까요? 이쪽에도 보면 끝에...
- A : 13호 밑엔 없었어요. 13호가 끝이지.
- Q : 20호까지는 같이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시기에.
- A : 개척농가하고 같이. ○○이네.
- A : 네. 그거 본동에 아까 저기 김○○씨라고...
- Q : 네, 알겠습니다.
- A : 여기가 지금 옛날에 고○○이가. 농장이 너무 커서 노나부렸어요.
- Q : 네네. 이제 좀 앉으세요. 저희 너무 감사드리구요.
- A : 저희들이 먼저 오고. 알았으면 좋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진 것도 많네
 요.(웃음)
- A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웃음) 오래되니까.
- Q : 이게 제주도의 중요한 기록이고 자산이고 기억인데.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하
 면 이시돌 목장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개척농가 분들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도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게 엮어
 지는 것 같아서...
- A : 이 사진이 몇 년도에...
- Q : 79년도요. 이거 말고 60년대 사진도 있습니다.

- A : 근데, 79년...
- A : 돼지 파동 났던 해지.
- A : 우리 아스팔트가 몇 년도에 완공 돼수과?
- A : 73년도에 내려와가지고선 그 해 막 돌 깔았거든? 돌 나르고.
- A : 그러고도 한 2년 걸렸으니까 한 75,76년?
- A : 74, 75년?
- A : 하여튼 석유 파동 하루 전엔가 끝났어. 그 저 끝나고 기름 파동 났다고 난 리더라구.
- Q : 네네. 그러면 지금 같이들 자주 모이십니까?
- A : 지금은...(웃음) 지금은 텔레비전 때문에 다 망했어요. 옛날에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을 판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끝날때까지 완전히 자기 일들처럼 붙어서 하는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지금처럼 차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어디 갔다 오라 하면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장보고 오고 그랬어요.
- A : 그리고 그 전에는 때는 지금 결혼하듯이 제사 때도 그렇게 크게 돼지 잡구. 그래서 제사 때도 사람들 막 모이고 그랬는데. 말마따나 텔레비전 때문에 다 없어지구. (웃음)
- Q : 텔레비전이 참.
- A : 텔레비전이 67년, 7,80년대까지. 제가 육지서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제일로 어리더라고요. 나보다 다 위인데 화투 쳐 가지고 닭떡을려고 새벽되는 닭 사오라 하면은 길도 없는데. 저 금약까지 가서 닭 사오고 그랬어요. (웃음) 그래도 불만 안하고 새벽에 닭 사가지고 와서 그 날 먹고, 또 뒷 날 별짓게 밤새고. 그래도 다들 형제간처럼 안 다투고 살았어요.
- Q : 저기 1호에서 14까지 계신 분들은 다 신자 생활을 하신 거죠?
- A : 네. 백프로는 아니고.
- Q : 그러니까 주로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이 라인에 계신 분들. 요 13호까지. 아까 말했듯이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친하시고.
- A : 여기가 셋이니까 우리한테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 Q : 이 두 분은 어떠셨어요?

- A : 여기는 중국 사람이고, 여긴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아들이 김○○인데, 뭐 주로 이리로 놀러오긴 하지만은.
- Q : 네. 그럼 이분도 마을 안쪽에 있으셨으니까 여기서 노셨겠네요.
- A : 그 분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 Q : 이쪽 분들은 어땠나요? 이 분들하고 왕래가 있으셨나요?
- A : 거기는 왕래는 없어도. 그 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까 종교 얘기 했잖아요? 우리 동네도 13호에서는 우리는 천주교로 하고.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와서 목회를 하고. (웃음) 그리고 아주 미신 그런 것 믿는 사람도 있었고.
- Q : 선생님, 저기 길 건너 쪽에, 오름 밑에 쪽에. 85년도 사진에 보면 테시폰이 하나 보이거든요. 테시폰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 보여요. 혹시 이쪽에 뭐가 있었나요?
- A : 아 그것은 새왓인데.
- A : 금약봉 밑에 저 노나진 밭.
- A : 노나진 밭. 그거지?
- A :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 A : 요게 우리집인데. 그냥 테시폰 아니구 그냥 짓고 살라 그러니까 살았었던. 돌집
- Q : 길 건너에.
- A : 한 집 있었어요. 6호 앞에.
- Q : 그렇군요. 14호 뒤쪽에는 하나 없었나요?
- A : 네.
- Q : 그러니까 요 라인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 A : 그쵸.
- Q : 노나진 밭이 물 나오는데가 여기이고, 물 나오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 A : 요 길로 올라가다가. 요기
- Q : 여기가 ○○이네. 내 친구입니다. 저는 여기 축산 단지 막내.
- A : 우리가 여기서 뭐 하다가 좀 뭐하니까 일루 내려가서 한 이쯤 될 거예요. 그 쪽에 샘이 있어요. 또 거기루 하나 갔더라구.
- Q : 그 다음에 이쪽도 물이 있었다고.

- Q : 저희 동네에서 먹었던 거는 지금은 잘렸는데. 저희 집이 축산 단지라서 잘렸는데...이렇게 해서 여기 명보 농장이고.
- Q : 개척 농가에서 쓰신 물은 노나진밭 물 쓰신 거죠?
- A : 처음에는 노나진 밭 물 쓰다가...
- Q : 여기 세○○ 목장이 보니까. 세레나 목장이 테시폰 뒤쪽으로 물길이 흐르던데 혹시 이게 물이 흐르던...
- A : 물이 많이 흐른 거 뿐이지.
- A : 물이, 통과해서 나온 물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요래 통과를 했어요.
- Q : 네. 그래서 세○○님이 이 물을 받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 A : 그랬을지도 모르지.
- A : 그 고○○씨가 산에서 내려온 물이 너무 많으니까 저 완전히 막고 나머지를 농장으로 돌려 버렸어요. 완전히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도 그것이 물길이 되부러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몇 년동안... 물난리를 시켜가지구. 그러다 세○○는 떠나구.
- Q : 이 쪽에 물통은 없었습니까? 요거 물통인가요 요것도?
- A : 아까 3개
- Q : 아 요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썼을까요?
- A : 그 사람들도 아마 집 주위에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파서 용천수 받아서 썼을거예요.
- A : 용천수가 많았어요.
- Q : 여기가 그 처녀물. 여기도 그 물통 하나 있잖아요? 처녀물이라고.
- A : 응. 거기가 나는 물이었어. 처녀물 동산.
- Q : 여기가 박통(박정희)이 만든 길이라부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길 안 만들고 여기에 만들었다는. (웃음) 박정희 대통령 오다가 자빠져서 길 댄 데. 거기가 여기 마썸.
- A : 그러니까 우리 이시들 정문에서, 금악에서 오는 길이나 우리 동네서 빠지는 길이나 길이가 같아요. 몇키로? 4.7키로? 모르겠어.
- Q : 그럼 제일 큰길이? 이시들의 메인 도로가 이 길이였을까요?

- A :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 길만 아스팔트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일로 해야 우리가 되니까. 안 해줄거니까. 우리가 받담을, 여기 받담을 다 걷어서 깔았다. 그래서 여기에 받담이 없어요. 여기에. 다 깔았어요. 여기서 여까지. 깔고. 이시들 목장에서 기계 빌려다가. 자갈도 깨구. 그 다음에 다 날라.
- A : 이 많은 돌. 전부 다 우리 등으로 저다가 기계로 자갈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자갈 까는 기계로 했지만은. 하여튼 이 철조망, 서로 담 경계 없애불고. 이 철조망비가 우리 상환할 돈하고 맞먹어 버렸어요.
- A : 그래서 아무튼 돌담이 없어요. 그니깐.
- Q : 그래서 여기가 다 철조망이었구나.
- A : 응. 여기서 가져다가 다 깔아 버렸어.
- A : 그래서 여기는 아스팔트가 좀 두껍고. 여기는 얇고.
- Q : 네. 혹시 그 전화선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 A :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딱 아스팔트 하나밖에 없어요.
- Q : 전기하구 전화요.
- A : 전기? 전기는 한전에서 해주는 거니까.
- Q : 이쪽으로 들어왔나요? 아님 이 쪽으로 들어왔나요?
- A : 이것은 전선부터 이 길로 따로 떨어져서 왔어요.
- A : 처음엔 저기로만 왔었죠.
- A : 네. 저기로만 왔는데. 우리가 양돈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제 별도로.
- A : 그리고 전화는. 이게 광주 지구에 속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럴거예요. 그래서 낮에 광케이블? 근데 여기는 광케이블 없어요. 여까진가? 요기만. 그래서 여기는 전화가 안와서 딱 사정을 해서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 Q : 그럼 교환소는 여기만...
- Q :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 A : 근데 이 교환도 이시들 목장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쓰는 교환대였지. 다른데 교환이 아니라.
- Q : 그럼 여기는 여기로 해서 끌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 Q : 여기가 지금 돈사하고 있잖아요? ○○이네.

A : 그 ○○이네는 아니고 그 옆에 지금 홍○○를...

A : 홍○○. 그 큰언니 이름이...

Q : 큰아들은 ○○이. 그 다음에 ○○이고.

A : ○○이 아들 말하는거 아니?

Q : 여기가 딸목장인데 지금. 옛날에는 모르겠고. 아, 여기도 테시폰이 있었네.

A : 여기 테시폰이 있을 리가 없는데?

Q : 아 여기 테시폰 2개가 개척농가처럼 있습니다.

(사진 확인중)

A : 확실하게 테시폰이에요?

Q : 네. 맞습니다. 60년대하고 70년대 사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A : 저희가 아는 것이 없어서 더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렇네요.

A : 한 이삼년 뒤에 오셨으면 더 몰랐을거예요.(웃음)

Q :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다 기억들 하시고. 말씀해주셔서 저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구...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성과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